

발간등록번호

2023-KIHF-099

따뜻한
돌봄동행

2023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Contents



대상

이용자

- 강이니** • 아이돌봄이 있어줘서 엄마인 나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04

아이돌보미

- 이현임** • 13년간의 돌봄동행, 시집 장가 갈 때까지 돌보고픈 마음 08

종사자

- 주연화** • 우리는 누군가의 빛이었다 13



우수상

이용자

- 권지은** •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다 17

- 김정란** • 선생님이 계셔서 숨 쉬며 살아요 22

- 남일현** • 31살 싱글대디를 구한 아이돌봄서비스 26

- 최나라** • 아이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 31

- 허다원** • 마마! 포기하지 마! 35

아이돌보미

- 김미경** • 선생님, 우리 아이들 보듯이 잘 키워주세요~ 39

- 오경순** • 조금 느려도 괜찮아. 기다려줄게 43

- 전태복** • 함께 만든 우리의 보물일지 49

종사자

- 송정일** • 구호요청 하십시오 54

장려상

이용자

김경옥	• 싱글맘이자 워킹맘, 나도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다	59
김명선	• 삶을 지탱해준 아이돌봄서비스	63
김보비	• 햇살 같은 아이들 그리고 햇살을 만들어준 키다리 선생님	67
박미현	• You are my Rock!(너는 나의 바위야!)	73
박수연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78
신서영	• 위기 탈출	82
정지유	• 유방암을 함께 극복해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	89
조민주	• 나의 오랜 꿈, 무조건 셋!	93
조윤희	• 7년의 동행, 엄마의 마음케어 서비스	98
최연희	• 우리는 매일 점심 같이 먹는 사이	103
현재경	• 다시 가슴 뛰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8

아이돌보미

강원자	• 샘과 함께 살고 싶어요!	113
김승경	• 나는 향기 없는 여자로 생활한 지 7년차다!	116
김주리	• 두 시간의 큰 힘, 변화	120
신재연	• 아줌마? 선생님!	125
양정임	• 나의 아이돌보미 생활	130
오미영	• 아이돌보미, 제2의 인생을 꿈꾸며	134
이수자	• 평생교육을 실현시키는 아이돌봄서비스	138
조영숙	• 날마다 좋은 날	143
허현자	• 꼬마 산책자와 동네 한 바퀴	147
황점숙	• 저는 아이돌보미입니다	150

종사자

송지연	•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의 양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155
이숙자	• 나 또한 돌봄의 등불이 되고 싶다	160
윤은미	• 내 삶의 멘토가 되어주신 두 분의 아이돌보미 선생님	164



아이돌봄이 있어줘서 엄마인 나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강 으 니

노원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며칠 동안 몸이 아프고 미열이 있어, 혹시나 하는 설렘과 설마 하는 불안감 속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다. 결과를 확인한 나는 기쁜지 슬픈지 모르는 어떨떨한 표정으로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위로 초등학교 1학년, 6살 두 딸이 있는데, 6년 만에 셋째가 생긴 것이다. 나는 아이 욕심이 많아서 예전에는 셋째가 빨리 생기기를 바랐으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중한 두 딸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며 모든 신생아용품, 아기침대 등을 다 정리한 상태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임신이 되다니,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걱정도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셋째가 태어나자 나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몸을 씻겼다. 세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일은 새발의 피에 불과했다. 셋째가 100일쯤 될 무렵, 나는 갈림길에 서고 말았다. 생애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걸렸다. 나는 아이들에게만 올인할 것인지, 일과 가정을 양립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

다. 오랜 고민 끝에 아이의 엄마로도, 사회경제의 구성원으로도 도약하고 싶은 결론을 내렸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모든 일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됐지, 여자가 무슨 사업이야. 내 생각이 짧았어.’

‘별써 힘들고 지치잖아. 아이들도 방치되고, 나는 나쁜 엄마야!’

나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점점 죄책감과 우울함을 느꼈고, 사업에 도전한 일을 후회하며 자책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직장을 그만두듯 간단하게 폐업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시작 전에는 몰랐다. 뭉든지 경험하고 겪어봐야 깨닫는 게 사람인 것 같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우리 바람도 쉴 겸 드라이브나 하고 올까? 기분전환도 하고.”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나를 위하는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따라나섰다. 차를 타고 한참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차가 신호대기에 걸려 멈춰 섰다. 창밖에는 ‘아이돌보미’라 쓰여 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여보 저게 뭐지? 아이돌보미가 뭐야?”

“그러게. 어린이집인가? 한번 알아볼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돌보미가 내 인생의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다둥이인 처지라 감사하게도 돌보미 신청을 하니 선생님을 바로 배정받았고, 두 번의 교체 끝에 최미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아마도 아이 둘에다 100일을 갓 넘긴 셋째까지 있으니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었나 보다.

최미현 선생님과 처음 통화했을 때 나는 이렇게 물었다.

“아이가 셋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힘드실 텐데요?”

“네, 그럼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선생님은 기꺼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셨다.

그때가 2018년쯤이었으니, 선생님과 인연이 올해로 6년째가 된다. 선생님의 첫인상은 돌보미로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데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은 한창 키우기 힘든 시기인 100일 이후의 아들을 업어주고 안아주면서 나보다 더 사랑으로 돌보셨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감사함을 넘어 너무 감동적이어서 순간 울컥하는 일도 많았다. 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던 내가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폐업 위기도 모면하고 사업도 잘 운영하였다. 아이들의 육아 때문에 자칫 내 삶을 포기할 뻔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 같다.

마음이 편한 탓일까. 셋째의 돌을 치르고 나니 또다시 행운이 찾아왔다.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넷째 딸을 임신한 것이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또 한번의 경사를 모두 기뻐해주었고, 선생님의 돌봄은 넷째까지 쭉 이어졌다. 앞서 말했듯이 가장 키우기 힘든 100일 된 아이를 선생님은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업어주고 안아주며 어르고 달래주셨다. ‘가족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가족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선생님은 가족보다 더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아주셨다.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네 아이를 돌보면서 사업도 하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은 어렵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초등 6학년, 7살, 5살이 되었다.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으레 선생님부터 찾는다. 나보다 선생님과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가끔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선생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것을 아이들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서 나는 이제 몇몇 직원을 둔 작지만 어엿한 지사 대표가 되었다. 또한 짬짬이 간호자격증, 강사자격증 등을 따면서 여러 곳에 강의를 다니곤 한다. 남들이 보면 애 넷을 키우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해냈냐고

혀를 내두를 것이다. 물론 돌보미 선생님이 전적으로 아이를 맡아 케어해주신 덕분에 시간을 내서 배울 수 있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늘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 내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주시면서 꼼꼼히 체크해주신다. 게다가 내가 힘들어할 때는 곁에서 엄마처럼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다. 지금은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분이다.

6년 동안 선생님을 보아왔지만 참으로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며 정직한 모습이 6년 동안 한결같았다. 또한 넓은 아량과 인품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사업을 하다 보니 좋은 인재, 좋은 사람을 직원으로 뽑는 일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선생님을 아이돌보미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은인이 되어주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싶다.

나는 아이돌보미 전도사가 되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엄마들을 만나면 이용을 권유하고, 신청방법까지 친절히 설명한다. 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이 제도를 이용하여 엄마 아빠가 좀 덜 힘들게 육아의 산을 넘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맡은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아이들에게도 분명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하며, 지금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작년 아이들이 만든 김장 김치를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는 모습



13년간의 돌봄동행, 시집 장가 갈 때까지 돌보고픈 마음

이 현 임

예산군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봄에는 휘날리는 벚꽃 잎 사이를, 여름에는 차창 밖 빗물 수채화와 함께, 가을에는 노란 은행나무 길 앞 호수를 지나, 겨울에는 하얀 함박눈꽃을 맞으며 그렇게 오늘도 나는 그곳으로 13년째 달려가고 있다. 그곳에서 나의 딸이자 친구, 애인인 꼬마숙녀 지영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14년차 돌보미 선생님이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14년을 더 돌보미 선생님이고 싶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큰오빠가 결혼하고 첫 조카가 태어나면서 어린아이를 처음 보았다. 그 뒤 여러 조카들이 태어났고 그때부터 나는 대가 없이 아이돌보미를 자처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닌 듯싶다. 그때 본 아이들의 눈망울과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 아이돌보미라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아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 고1, 고3이 되어서 수능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을 때, 아이돌보미란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가 내게 두 번째 직업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도전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돌보고 보살피

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지만 오랫동안 잊지 못할 아이가 있다. 나와 13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지영이가 중학생이 되어 더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아이와 헤어지게 된 아쉬움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14년 전, 예산군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수료증을 받고 이용자와 연결되기를 기다리던 어느 날 가족센터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생님 잘 계셨죠? 덕산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이가 셋이에요. 선생님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덕산까지요? 더군다나 세 아이를 돌보라구요? 저는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은데요.”

마음이 쓰였지만 하는 수 없었다. 거리도 너무 멀고 아이들도 셋이나 되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센터에서 전화가 또 왔다.

“선생님 말고는 가실 분이 안 계세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또 거절할 수가 없어 허락을 했고, 그렇게 지영이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지영이를 처음 만나는 날, 걱정 반 설렘 반으로 40분을 달려간 곳에서 7개월 지영이와 4살, 6살의 오빠를 만났다. 여러 아이를 돌봐야 하는 집이라 망설였는데 천사 같은 미소와 반짝이는 6개의 눈망울이 나를 사로잡아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당시 아이들의 부모님은 맞벌이로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 된 것이었다.

세 아이를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는 천사보다 더 천사 같았고, 하루는 악마보다 더 악마 같았다.

너무 힘들어서 방광염이 생기기도 했고 그만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내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선생님들도 어려워서 금방 그만둔다

고 하실 텐데. 그럼 이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더 힘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내다보니 금세 적응되었다. 내가 아프면 아이들도 아프고, 내가 웃으면 아이들도 웃었다. 그때 알았다.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것을.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행복한 가족에 불행이 찾아왔다. 아이들의 부모님이 사정상 이혼을 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나 또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 순간부터 지영이와 오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나의 책임은 더욱 커졌고 엄마 아닌 엄마가 되어야 했다. 유치원 하룻길에 꽃을 꺾어 와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고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눈물이 앞선다.

나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듬어줘야 해서 어느 날은 엄마, 어느 날은 상담사, 또 어느 날은 댄스와 요가 파트너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아야 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내 몸과 뇌를 항상 흔들며 깨워주는 아이들 덕분에 앞으로 치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니까. 입학식과 졸업식 교복 맞추러 갈 때, 코로나로 인해 간소화되었지만 운동회, 소풍, 학예활동 등을 바쁘신 지영이 아버님을 대신해 나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행사에 참석하곤 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실감 난다. 이런 나를 이해하고 함께해준 남편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런 시간을 거치며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다. 지금은 큰아이가 대학교 1학년,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지영이가 중학생이다. 정말 많이 컸다. 이것은 모두 아이돌봄서비스와 나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신 아버지님 덕분이다.

이제 지영이도 중학생이 되어 내 품을 떠났다. 내 주변 사람들은 지영이를 보고 이렇게 묻곤 한다.

“이렇게 큰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요?”

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나이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대학생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 갈 때까지도 돌봐주고 싶은 심정이다.

요즘 사춘기인 지영이가 나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

“선생님은 꿈이 뭐였어요?”

“선생님은 어떤 때 제일 행복하세요?”

“선생님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세요?”

“선생님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저도 선생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지영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지영이는 선생님과 함께 생활했으니 선생님 딸이야. 아빠와 멋진 오빠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너를 지켜줄 거야. 선생님도 늘 지켜보고 응원해줄게. 선생님은 네가 사춘기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그깟 사춘기 녀석 물러가라고 하자.”

지영이가 건강하게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싶다. 돌봄 이용이 끝난 지금도 지영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놀다가곤 한다.

지영이가 말한다.

“선생님! 제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선생님 같은 돌보미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어요.”

이런 지영이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럴 때 보람을 느끼고 내가

아이돌보미란 사실이 자랑스럽다.

“얘들아,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마워. 많이많이 사랑해~!”

나의 60년 인생 중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빛이었다

주 언 화

부산북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안녕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의 모든 시작과 관계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누군가는 그저 궁금해서, 또 누군가는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등등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아이돌봄서비스의 문을 두드린다. 과연 그 문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6년째 연계 담당자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저마다의 사연은 심금을 울리기도 하였고,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되었다. 그중 가장 기억나는 한 이용자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이용자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찾게 되었다. 힘없이 축 처진 목소리, 아무나 상관없으니 선생님만 보내달라고 애원하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급히 돌보미 선생님을 배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돌봄서비스는 녹록지 않았다. 선생님이 방문하면 이용자는 아이를 건네주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예민한 아이는 그저 울기만 하고, 그런 아이를 이용자는 사랑으로 돌봐줄 여력과 여유가 남아 있지 않았다. 아이와 놀아줄 장난감과 동화책은 턱없이 부족했고, 맨손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

황이었다. 돌보미 선생님은 비록 쉽진 않겠지만, 이대로 아이와 이용자를 내버려둘 수 없어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부족한 장난감과 동화책은 무료 나눔이나 중고로 조금씩 사서 아이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정을 붙일 수 있도록 수시로 아이 얼굴을 보여주고 엄마와 셋이서 같이 놀기도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돌보미 선생님께 확인해보니, 이제 이용자가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하셨다. 보통 이용시간이 줄면 선생님이 활동하기 어려워지는데, 선생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셨다. 자신이 오고 난 뒤 이용자가 집안일도 하고, 병원도 가며, 여유가 생기면서 선생님 없이 아이를 보겠다고 먼저 얘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였고, 아이 또한 많이 순해졌다고 한다.

선생님은 일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하더라도 아이가 엄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 가정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미 선생님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같은 존재, 아이의 할머니 또는 이용자의 부모 그 이상의 존재였다. 이용자의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한 선생님의 노력은 그 후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하면서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직접 기관에 전화를 주셨다. 전보다 확실히 밝아진 목소리, 또렷해진 말투 등 오랜만에 이루어진 상담이었지만 나는 이용자가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용자는 나지막하게 “많이 힘들었는데, 좋은 선생님 연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심을 전하였다. 선생님이 느꼈던 만족감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군가 나로 인해 버틸 수 있었다는 그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을 울리고 있다. 선생님 또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하니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이용자와 아이의 모습에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선생님들은 이런 만족 외에도 사소한 것에서 오는 작은 기쁨도 있었다.

하루는 돌보미 선생님이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가방에서 종이로 만든 다 찢어진 지갑을 꺼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돌봄활동 가정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만든 거라며 준 거라고 했다. 알록달록 색연필로 삐뚤빼뚤 선생님 이름을 적고, 스티커로 마구잡이 꾸민 이 종이지갑을 선생님은 너털너털해지고 색연필이 바뀔 때까지 들고 다니셨다. 선생님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생님 줄 거라고 하나씩 만들어 오는 아이가 마냥 귀엽고 기특해서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고 하셨다. 남이 보기에는 엉성한 지갑일 뿐이지만 선생님에게는 그동안 아이를 지켜보며 아껴준 시간의 결실이었다. 이런 작은 기쁨 또한 돌봄활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우리는 선생님들과 상담할 때 늘 첫 질문으로 활동이 어떤지 물어본다. 그때 선생님들은 “힘들긴 하지만 괜찮다.”라고 답하신다. 나는 항상 이 대답의 ‘힘들다’라는 말에 집중해서 어떤 일이 힘든지 물어봤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한 이유는 묻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괜찮다’라는 말은 고되긴 해도 그것을 잊게 하는 사소한 것에서 오는 작은 기쁨, 일에 대한 만족감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아이와의 끈끈한 애착관계, 이용자와의 깊은 신뢰감, 서로 고마워하는 그 모든 진심이 어우러져 돌봄활동을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원동력이 그저 감사한 마음 하나로 지속될 수 있을까? 상호간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만큼의 준비가 있어야 그 힘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활동하기 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신다. 매일 아이랑 놀아줄 때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어떤 놀이를 할지 계획표를 만들거나, 아이

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놀이방법을 구현하는 선생님도 계셨다. 또한 선생님들이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서로 놀이방법을 공유하는 등 배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선생님들은 “늙어서 배우려니 쉽지 않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 어떤 젊은이보다 더 책임감이 깊고 열정적이고 멋있어 보였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변화하는 건 비단 이용자와 아동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활동적인 아이를 만나면서 다른 가정의 엄마들과 친해져 인간관계를 넓힌 선생님도 계셨고, 바깥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를 위해 운동을 시작한 선생님도 계셨다. 퇴직 이후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갖거나, 일상의 활력을 되찾게 되는 등 아이돌봄은 이용자, 아동 그리고 선생님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이었다.

아이돌봄은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작은 결점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맞벌이 혹은 양육부담으로 생길 수 있는 결점을 돌보미 선생님이 메워주기도 하고, 장기간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 공허함을 느끼는 선생님들에게는 아이와 상호간의 애정이 공허함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서로의 결점을 메워주면 보다 완전한 양육, 돌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이상 양육, 돌봄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선생님들 말처럼 “힘들긴 하지만 괜찮다.”라는 긍정의 이미지로 변해가길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제목인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빛이었다’는 상담을 하면서 내가 느낀 점을 적은 것이다. 돌보미라는 것은 누군가에겐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빛이 되거나, 누군가에게는 막힘없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손전등 같은 빛이거나, 저물었던 인생에 다시금 불을 피우는 작은 불빛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빛이었으며, 그 빛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한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다

권 지 은

안동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고 준이 엄마! 내가 물건을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 가지러 가는 중이에요.”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저녁을 준비 중이라 준이를 내려보낼게요. 조심히 오세요!”

돌봄활동을 마치고 퇴근하신 선생님이 우리 집에 물건을 두고 가셔서 잠깐 가지러 오신다는 연락이었다. 퇴근 후, 음식을 조리 중이던 나는 준이에게 1층으로 내려가 선생님께 물건을 전해드리라고 부탁했다. 얼마 뒤, 준이는 나한테 와서 조금은 쑥스럽지만 다소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가 선생님한테 물건을 전해드리고 나서 돌아서는데, 선생님이 내가 집에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그대로 서서 지켜봐주셨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서로를 생각해주는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금의 돌보미 선생님은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가 3살이 되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 돌봄서비스를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바꿀 때 인연을 맺었다. 그 때 준이는 6살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남편은 회사일이 바빠 육아를 함께할 수 없었다. 맞벌이인 나는 직장을 다니며 살림과 육아를 혼자 감당해내야만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번갈아가며 연락이 오거나,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내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 날들이 이어졌고, 체력도 정신력도 한계치까지 다다른 느낌이었다. 그야말로 아플 자유도 우울해질 시간조차도 없었던 것 같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쌓인 날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마저 더욱 무거웠다.

‘아! 이제는 또 집으로 출근하는구나.’

나는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속에 살림과 육아를 또 다른 힘든 노동으로만 여기게 되었다. 그러니 살림살이도 육아도 형식적으로 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꾸밈을 늘어놓기도 했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성숙한 성인의 면모를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기도 했다.

그런 일상을 위태롭게 살아내던 나에게 매일 저녁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서면 “어서 오세요!” 하고 톤이 높은 밝은 목소리가 나를 반겨준다. 그런 선생님을 뵈는 때마다, 나는 깊은 수렁에서 현실로 끌어당겨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차!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자!”라고 나 스스로를 다독이게 된다.

하지만 준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나는 또 다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호기심 넘치는 준이의 산만한 수업태도가 문제였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학부모 상담을 하면 가끔 지적당하긴 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오니 이 문제로 계속해서 담임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다. 나는 준이가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준이를 불러 앉혀 타일렀다. 하지만 조바심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는 다그치게 되었다.

결국 준이는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계속해서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결국

학교에서는 문제가 취급을 받으며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담임선생님은 수업에 방해된다면서 도움반으로 따로 분리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학원에서는 수업에 방해되는 태도를 문제 삼으며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 같다는 말까지 했다.

준이는 결국 상담과 진료를 통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 내가 보기에 준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DHD 증상들 중에서 과잉행동을 하는 성향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고, 단지 보통 아이들보다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뿐이어서, 그 병이라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밤을 지새워가며 전문가들의 영상자료와 논문을 찾아본 결과 ADHD의 공통적인 증상들이 준이에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학교에 준이의 상황을 알리고, 돌보미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기로 했다. 돌보미 선생님은 매우 놀라며 준이는 아주 순수하며 보통의 포레 남자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이셨다.

“아, ADHD라는 것을 알고 다시 생각해보니, 준이는 책을 읽다가도 다른 것에 쉽게 시선을 빼앗기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나에게 준이를 걱정하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보이지 말라고 당부한 뒤, 준이는 잘 클 거라고 확인하셨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불안했던 내 마음도 약간 풀어지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돌보미 선생님은 아이들

을 돌보는 지혜를 나한테 전수해주기 시작하셨다.

“어쩌면 이번 시련으로 아이들을 더 잘 살피서 더 잘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라며 용기를 불어넣어주셨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들을 끊임없이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셨다. 선생님은 그것을 ‘자존감 올리기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나에게도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쳐 지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만,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말로는 모두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감사한데요, 선생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 걱정돼

요. 선생님이 편안해야 아이들도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정서적으

로 매우 안정된 긍정에너지를 내뿜는 선생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오호호, 준이 엄마, 나는 괜찮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나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 정말 좋아요. 이 직업을 내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에 힘입어 준이도 스스로 노력하여 학교생활에 점점 더 잘 적응해나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학년을 올라가면서 준이는 학급단원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준이는 시험을 잘 봤다며 춤추면서 현관문을 들어서기도 하고, 우리에게 재잘재잘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하며 수다를 떨기도 했다.

나도 준이처럼 좋은 변화가 생겼다. 고된 노동이라 생각했던 살림과 육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했고, 가끔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후회로 허비하던 삶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또한 나와 남편은 아이들이 성숙한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뻐했다.

이렇게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돌보미 선생님은 아이들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나의 멘토이기도 하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계셔서 숨 쉬며 살아요

김 정 란

의왕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020년 봄부터 나에게는 견디기 힘든 아픈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게임에 빠져 아이들을 돌보지 않던 남편과 별거 끝에 이혼하고 한 달 뒤, 내 심장 같은 둘째 딸아이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고, 예민하고 어린 큰아들을 이모 집에 맡겼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긴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아픈 아이 곁을 지키면서도 엄마와 떨어져 마음 아플 큰아이 생각에 하루하루가 눈물 속 지옥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내 몸이 망가져가는 걸 알면서도 미처 챙기지 못했다.

어느새 1년이 지났다. 항암치료 부작용에 중환자실을 오르내리고 응급실을 제집처럼 드나들면서도 딸아이는 집중치료를 잘 견뎠고 유지치료에 들어가면서 우리 가족은 다시 셋이 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도 잠시, 몇 달 전부터 이상이 감지된 내 몸에도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

2021년 6월, 나는 유방암 2기 후반 진단을 받고 아이와 같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치료가 힘들기보다는 아이들 걱정이 컸다. 아직 학교도 못 다니고 매주 항암치료에 매달 입원을 해야 하는 둘째와 또다시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큰아이 걱정에 고민하다가 맞벌이 시절 이용했던 아이돌봄서비스

가 생각났다. 지독한 항암 부작용에 시달리며 방에서 거실로 걸어 나오지도 못하는 내가 아이들을 챙기는 건 역부족이었다. 돌보미 선생님을 신청하면서도 걱정이 많았다. 면역력 저하 항암환자가 둘이나 있는 집에 지원할 선생님이 계시지, 지난 돌보미 때 유난히 어른을 경계하고 낯을 가리던 큰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지….

다행히도 와주신다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나처럼 작고 단단한 모습의 안정화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을 모시는 나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분이 오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감사하다. 선생님은 집에서만 지내며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하는 둘째와 함께 인형옷을 만들어 역할놀이를 해주시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익히지 못한 한글을 가르쳐주셨다. 날씨가 좋을 때면 면역력이 약한 둘째를 위해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틈을 타서 아이가 원하는 놀이터 투어를 다니고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돌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셨다.

음식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는 나를 대신해 아이들 밥을 챙겨주실 때도 영양을 고루 갖춘 멸균식을 준비해주시고 간식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챙겨주셨다. 선생님 덕택에 항상 불안했던 마음이 놓이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드디어 내가 걱정했던 큰아이의 방학이 시작됐다. 아이 두 명을 돌보는 건 한 명일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육아를 경험한 분들은 모두 알 것이다. 성향도 성별도 다르고, 하고 싶은 놀이도 다른 두 아이가 함께하면 충돌이 나기 마련이니까….

신기하게도 큰아이는 상냥하고 따뜻하지만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께 전혀 거부감 없이 다가갔고, 셋이서 즐길 수 있는 놀이에 흥미를 느껴 점점 침대에 누워 있는 엄마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내가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수시로 들락거리고 전화하며 다소 불안해하던 아이들은 선생

님과 함께하면서부터 내가 외출해도 전화 한 통 없다. 선생님과 노느라 잊었다는 말이 나는 감사하기만 하다.

아이들에다 아픈 나까지 챙겨가며 늘 따뜻하고 편하게 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나는 항암치료와 수술까지 무사히 마치고 회복을 했고, 딸아이의 긴 치료도 2023년 2월에 끝이 났다. 딸아이는 아직은 면역력이 약해 조심하고 있지만 오전 수업이라도 들으러 학교에 가고, 점심시간 전에 선생님이 픽업해 주신다. 그 덕분에 나는 체력 회복을 위해 수영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며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엄마가 되어가고 있다.

수술 후 회복기를 거쳐 처음 산에 다닐 때 친정식구들은 모두 말렸다. 아직 조심해야 하는 아이를 맡기고 자기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해주셨다.

“○○ 엄마, 좋을 대로 해요.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 하는 건데...”

선생님은 내가 마음 편히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나에게 그 말은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났다. 내가 놀아주지 못하면 학교 간 오빠를 기다리며 혼자 놀아야 하는 아이를 위해 선생님을 모셨지만, 정작 더 큰 위로와 사랑을 받은 건 나였던 것 같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할까 싶지만, 우리 집 상황을 모두 알고도 이렇게 와주신 선생님께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다. 마냥 아이들 비위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육아를 보여주시는 선생님의 진심을 느끼며 앞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갈 방향성을 배우고 있다.

열이 나는 둘째를 데리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할 때도 집에 홀로 남은 큰아이를 위해 달려와 주시고, 입원을 하게 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내게 선뜻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마음의 짐을

많이 될 수 있었다. 친정엄마보다도 더 가깝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그간의 신뢰와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랑 때문일 것이다.

운동하고 돌아온 나에게 딸아이가 달려와 말한다.

“엄마, 이견 선생님이랑 그린 거고, 이견 선생님이랑 만든 거고, 선생님이 단 건 쪼끔만 먹으래서 한 개만 먹었고…”

종알종알 끝없이 이야기하는 아이의 입에 사랑이 담겨 있다. 선생님께 주말에 있었던 일들, 내가 이야기하려 했던 전달사항을 이미 모두 전하는 아이 덕분에 선생님께는 비밀이 없다.

그만큼 우리는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내며 서로에게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아이의 속도에 맞춰 걸어주시는 선생님과 앞으로도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다.

안성화 선생님, 사랑합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와주시고 햇살 같은 따뜻함으로 온 집안을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글로 남겨봅니다.

ps.

한부모가족 지원 덕분에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큰 부담 없이 선생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변수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주신 의왕시센터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31살 싱글대디를 구한 아이돌봄서비스

남 일 현

미추홀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하아~!”

뜨겁고 끈적한 한숨을 길에 쏟아낸다. 빈 유모차의 요란한 바퀴 구르는 소리도 한숨소리를 가리진 못했다.

일주일 전에 낯설고도 익숙한 빌라촌으로 이사왔다. 전신주 전선이 아침을 이루고 빌라 외벽에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을 노을이 비춰준다. 저녁 7시 30분. 오늘도 12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낸 10개월 된 딸아이가 안쓰럽고도 기특하다. 이미 하원이 끝난 시간이지만 24시간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딸아이는 얼떨떨한 표정이지만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빨간 유모차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귀엽고 깜찍한 말소리가 들린다.

“앗빠, 할무니, 고모…!”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엄마’라는 단어는 끝내 들리지 않는다.

작은 평수의 집은 많은 짐들로 인해 누워서 잠잘 공간만 간신히 비어 있었

다. 마음의 위로나 고민 따위는 사치였고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야 했다.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여러 곳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이삿짐을 정리하며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보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이제 싱글대디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다.

2층 방 창밖에는 전신주 전선 사이로 삐죽삐죽 간신히 빠져나온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그 앞에서 엄마가 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순간 지금의 처지가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지만 아직 견지도 못하는 딸 아이를 위해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육아정보를 얻고 텅 빈 가슴에 연대감을 채우기 위해 지역 맘카페에 가입했다. 일반적으로 여성만 가입할 수 있지만 다행히 지역 맘카페는 남성도 가입할 수 있었다. 한부모 카페도 있지만 육아정보는 적고 만남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편견으로 딸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려면 맘카페가 낫다고 생각했다.

주말이면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맘카페에 올라온 키즈카페나 체험놀이를 다녔다. 간혹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으면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허리를 지렛대 삼아 잠든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들고 한 계단씩 올라갔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 내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용기를 내다니, 어엿한 아빠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성애가 육아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육아는 부모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아이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맘카페는 단순히 육아정보만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맛집 소개, 결혼 고민, 육아 경험담 등 육아와 결혼생활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는 공간이다. 어느 순간에는 같이 시댁(?) 육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내가 쓴 글에 달리는 댓글을 볼 때마다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소소한 쾌락과 안

정감을 느꼈고, 활동 보상으로 받는 회원등급은 육아를 잘하고 있다는 트로피 같았다.

저녁 10시가 넘는 시간.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이 줄어든 탓에 지하철역에는 사람이 많았다. 전동차 출입문이 열리자 밀려들어간 사람들은 다닥다닥 붙어 서서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었다. 겨우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서 돌보미 선생님께 지금 가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습하고 쿼퀴한 공기가 지하철 안을 가득 메웠지만 내 얼굴에는 설렘이 담긴 미소가 피어났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할 수밖에 없어 야근이나 회식을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을 동료와 팀원들 모두 이해해주었지만 나 스스로 정규직이 될 희망을 육아와 맞바꿨다고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직에 변화가 생기면서 일생에 몇 번 안 될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나와 딸아이를 위해 어떨게든 꼭 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돌봄서비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때 우연히 맘카페를 통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아이돌보미가 찾아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에 따라 지원등급이 '가'형에서 '라'형까지 달라진다. 신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고 지원등급을 판정받았다. 하루에 3시간 이용하면 계약직 월급으로도 부담되지 않았다.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마음속에 작은 희망과 그동안 묻어두었던 일에 대한 열정이 샘솟았다.

회사로 걸려오는 어린이집 전화는 대부분 달갑지 않다. 언제나 그렇듯 육아에는 많은 변수가 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방금 해열제를 먹었는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어린이집 선생님께 빨리 가겠다고 했지만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었다. 미팅이 끝나고 가면 병원 진료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돌보미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아이가 열이 난다는데 병원에 가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제가 다녀올게요. 센터에는 아버님이 연락해주세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선생님 목소리에 미안함과 함께 안도감이 들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이돌봄서비스에 병원 내원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유형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워킹대디(맘)로서 무엇보다 힘든 건 육아변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돌보미 선생님이 육아를 대신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에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정신없이 아이 저녁을 차려서 먹이고 목욕을 끝내면 부지런히 서둘러도 9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나는 찢지도 못하고 아이를 재우기 위한 ASMR 소리에 같이 잠들어버린 적도 많았다. 그렇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뒤에는 퇴근 후 시간을 온전히 아이와 함께 쓸 수 있었고 체력도 많이 아낄 수 있었다. 싱글대디의 삶에도 잔잔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안녕히 가세요.’라는 작별인사를 할 거라는 내 예상은 빗나갔다. ‘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뒤돌아보았다. 돌보미 선생님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닦으면서 연신 아이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었다. 평범한 감사 인사가 돌보미 선생님에게 깊은 여운과 울림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돌봄서비스는 내 삶 속에 빠르게 녹아들었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육아를 같이하며 나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다. 주말이면 돌보미 선생님이 보고 싶다는 아이와 아이가 아프면 먼저 걱정해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 비례하지 않는 깊은 애정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애정은 싱글대디가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모두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줄여주었다. 그렇지만 가끔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

“아빠, 돌보미 선생님이 엄마 하면 안 돼?”

이제 딸아이는 6살이 되었다. 유모차를 타고 지하철역 승강장을 찾는 대신 혼자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 반달눈으로 귀여운 눈웃음을 지으며 사탕 먹고 싶다고 조른다. 내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육아를 위해 정규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분홍색 네발자전거 타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 지난 날의 기억이 아픔이 되지 않고 에피소드로 남은 것은 배려 넘치는 24시간 어린이집 원장님, 퇴사를 고민할 때 잡아준 회사동료, 육아를 함께한 돌보미 선생님 모두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이 미래에는 좋은 에피소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돌보미 선생님일 것이다. 처절했던 31살 싱글대디의 시작을 함께 해주시고 아이의 그늘진 마음 한쪽을 애정으로 감싸주신 돌보미 선생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선생님, 저희 부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세요.”



아이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

최나라

세종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희망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싱글맘이 되기로 결정했다.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선택했다.

이제 4년이란 긴 휴직을 뒤로하고, 나는 출근을 앞두고 있었다.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다짐을 하다가도 아직 고사리 같은 아이들 손을 보고 있자면 ‘아직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한 나이인데...’ 하고 혼자 울컥하기도 한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내 월급의 많은 부분을 베이비시터에게 줘야 한다고 한숨지를 때쯤 주변 지인에게 추천받게 된, 구원의 동앗줄 같았던 ‘아동돌봄 서비스’. 복직 한 달 전에 아이들과의 적응기간을 위해 먼저 만나게 된 선생님. 신기하게도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

낮가림이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줄까, 어떻게 처음을 시작해야 할까 고민스러울 때, 선생님은 집에 있는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로 아이들에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내 상황을 알려줄 때 보여주셨던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이 기억나 마음이 저릿하다. 혼자서 일도, 육아도, 살림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숨이 막히다가도 아이들과 마음으로 함께해주는 선생님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 이런 소중한 인연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이들의 긴급 연락처에 아빠가 아닌 돌보미 선생님의 성함과 연락처를 기입했던 일은, 어찌 생각하면 매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일로 만난 인연에게 이토록 많은 부담을 드려도 되는 걸까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흔쾌히 괜찮다고 해주신 선생님의 맘이 날 안도하게 한다.

일정을 계획할 때 항상 우선권을 나에게 주시고 나의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던 선생님. 급히 개인적인 일정이 생기면 너무 미안해하며 말씀하시던 그 겸손함과 배려를 보고 이 모습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

나와 똑같이 아들과 딸을 키워본 경험이 있어 그 맘을 나눠주셨던 분. 딸 다르고 아들 달라 내 양육방식에 의심이 들고 혼란스러울 때 조심스레 방법도 알려주시고 선배 양육자로서의 지혜도 나눠주셨다. 예민한 딸의 성향과 표출을 잘 못하는 아들의 성향을 파악하신 후에는 딸에게는 다정스럽게 받아주시는 대화를, 아들에게는 감정을 자주 물어주는 대화법을 써서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시려는 모습이 어떤 때는 든든한 큰 산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아들은 몸으로 에너지를 빼야 한다며 맘을 뽀뽀 흘리며 놀아주시던 모습에는 아빠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싶어하시던 배려가 담겨 있다. 또 컨디션이 엉망이던 날, 날이 선 목소리가 어김없이 아이들에게 향할 것 같은 날에는 조용히 방패가 되어주셨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을 하는 해에는 엄마들이 보통 휴직들을 한다지만 나는 고민하지 않았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보미 선생님이 계시니까.

마술을 배워 오면 “선생님 먼저 보여줄 거다.” 하던 아들. 아마 리액션 점수에선 선생님이 나보다 더 훌륭한 관객이 되어주셨던 모양이다.

부모가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과정의 아이들에겐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선생님을 통해 하게 되었다.

퇴근길, 장거리 운전으로 예측할 수 없는 도로상황에서 차가 많이 밀릴 때면 “늦어도 괜찮으니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게 오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선생님. 어쩌다 일찍 퇴근하고 온 나에게 쉬라고 하시며 안방문을 닫아주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향하던 그 모습엔 친정엄마와 같은 따스함이 스며 있다.

돌봄서비스를 종합형으로 바꾼 뒤로는 선생님께서 아이들 저녁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시니 퇴근길이 급하지 않고, 간단히 장을 보거나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노하우 많은 선생님의 손길이 닿은 밥이 서툰 엄마의 밥보다 훨씬 더 맛있겠지. “많이 먹고 쭉쭉 크림.” 누구보다 내 사정과 아이들을 잘 아는 선생님의 축복이 담긴 밥상이니 몸도 맘도 건강해질 테지.

나는 잠자리에서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얘들아, 너희들은 인복이 참 많아. 특히 너희를 지켜줄 어른이 많거든. 그러니 행복하게 그저 뛰놀면 돼. 실수해도 괜찮아. 너희를 안아줄 어른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내 입으로 이런 고백들을 할 때, 나는 아마 선생님을 옆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을까.

동료 직장맘들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나를 무척 부러워한다. 그 부러워하는 시선이 나의 어깨를 조금 으쓱하게 한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일하는 엄마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아니까. 삶의 질과

결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우리는 아니까.

세상에서 마주치는 많은 인연 중에서 내 아이를 함께 키우게 된, 그 인연의 무게는 얼마큼일까. 무엇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

나는 퇴근하는 선생님의 등 뒤로 조용히 읊조려본다.

“선생님 꼭 복 받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상담으로 마음 시원하게 해주신 센터 선생님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들 복 받으세요. 진심으로요.”



마마! 포기하지 마!

허다원

마포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는 마포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허다원이다. 우리 가족에게 선물과도 같았던 ‘아이돌봄서비스’는 2020년부터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햇수로 4년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에 엄마라는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 소중한 경험담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19년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인 첫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소중한 아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심한 산후우울증을 겪었다.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널뛰고, 육아도 삶도 모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아이와 가정을 위한 삶이 무척 버겁게 느껴졌고, 엄마로서 자질도 능력도 없다며 자책했다. 직장에서는 자신감이 넘치고 매사에 인정을 받은 나였지만, 육아와 살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이런 상황을 주변에 빨리 알려서 도움을 청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우리는 육아를 가족끼리 책임져야 하는 과업으로만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시대도 친정도 멀리 떨어져 사는 ‘육아독립군’이었기에 나와 남편은 둘이서 의지하고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육아는 나의 한계를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날이 갈수록 나의 체력은 바닥이 났고, 자

신감도 자존감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이가 10개월이 될 무렵인 2020년 7월, 복직을 위해 아이 등원을 도와줄 선생님을 찾아보던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이용 금액이 저렴하여 가계에 부담이 적었고, 무엇보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다. 처음 문의하니, 마포구센터에서는 나의 상황을 공감해주며 우리 가정에 알맞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분으로 연결해주겠다고 친절히 상담해주셨다. 비록 전화기 너머 얼굴도 모르는 분이었지만, 의지할 데 없는 나를 위해 도와주겠다는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고, 희망이 생겼다.

그때 지금도 우리 애들을 돌봐주고 계시는 김옥자 선생님을 처음 만났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선생님은 내 첫인상이 굉장히 까다로워 보였다고 한다. 그 당시 우울증을 겪어서 까칠하고 예민해진 성격이 얼굴에 나타나 있었나 보다. 선생님은 직장생활과 육아로 늘 조급하고 자책하기에 바빴던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셨다. 언제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아이를 돌봐주셨으며 아이와도 지혜롭고 따뜻하게 소통하셨다. 아이는 이렇게 키우고 가정은 이렇게 돌봐야 한다는 것을 선생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육아와 관련된 그룹이나 사람들과 대화해본 적이 없는 나는 그동안 육아책의 이론이나 전문가의 말만 고집하며 ‘현실 육아’와 동떨어진 어설픈 육아를 했음을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먹구름 가득했던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돌보러 오셨지만 가장 큰 변화를 본 건 나였다. 우울감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삶이 다시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삶으로 바뀐 것이다. 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엄마로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되었다.

“엄마밖에 없지?”

“엄마가 최고지?”

선생님이 아이에게 하는 말씀이 엄마로서 책임감, 자존감을 느끼게 했고, 나 자신을 한 걸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샘솟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서비스 이용 후 “내 새끼 사랑해!”를 연신 외치며 보보 세례를 퍼붓는 딸바보 엄마로,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공주병 딸로, 웃음 가득한 단란한 가정의 행복한 가장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은 그렇게 하루하루 커졌다.

2023년 2월 13일, 이 행복의 결실로 둘째 아기가 태어났다. 하나 키우는 데도 우울증에 걸리고 괴로워하던 가정에서 둘째가 태어나다니! 놀란 지인들은 축하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앞서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웬걸, 그동안 우리 가족은 둘째를 품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나 보다. 우리 부부는 첫째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육아하며, 생긋생긋 잘 웃는 애교쟁이 둘째를 보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냈다. 아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더 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친다.

첫째는 엄마가 자기한테 해주던 말을 그대로 따라 해서 둘째에게 말한다.

“예쁜 우리 아가”, “사랑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첫째가 사랑스럽고 편안한 음성으로 동생한테 건네는 말을 들으면 왠지 울컥하게 된다. 둘째가 태어나고 감사함이 가득한 나날이다.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아이로 자라준 우리 첫째에게 감사하고, 행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준 선생님께도, 가족을 아끼고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강한 남편에게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 나에게도 너무 감사하다.

TV나 뉴스에서 산후우울증, 육아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엉망이 된 위기가정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참 아프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나도 주변의 작은 도움만으로도 가정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많은 위기가정들이 나처럼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길 바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을 연결해준 소중한 선물과도 같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게 되었다.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아이돌봄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더 이상 발을 동동거리지 않아도 된다.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 때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선생님의 개인적 사유로 돌보미 공백이 있을 때는 다른 선생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 가족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여러 고마운 이웃 선생님들이 돌봐 주다 보니,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자기를 아끼고 좋아한다고 굳게 믿는, 구김살 없는 아이로 자라났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족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니, 사회인으로서의 나, 엄마로서의 나를 훌륭히 해내고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나로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런 성장의 힘으로 첫째 때와는 달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둘째를 키울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제 4명이 된 우리 가족!

“우리 가족 품 안에서 모두 편안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엄마가 더 씩씩해지고 당당해질게. 고마워. 사랑해.”



2023.3.7.
동생을 환영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 보듯이 잘 키워주세요~

김미경

용인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느새 아이돌보미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

처음 센터에 문을 두드렸을 때, 육아교육 전공의 교수님들과 강사님들에게 영유아들의 행동발달, 연령별 특성, 아동심리와 보육, 실습을 통한 놀이교육 등 영유아에 대한 기본 이론과 돌보미로서 필요한 자질 등 체계적인 강의를 들었다. 특히 유치원 원장 출신인 강사는 현장체험과 실전에서 깨달은 생생한 경험들을 사례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 처음 돌봄활동을 시작할 때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긴장감으로 여러 번 잠을 설치기도 했다.

10년차. 해가 거듭될수록 매년 새로운 이용자들과 돌봄 아동들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낯섦과 긴장감은 어느덧 익숙함과 안정감으로 바뀌고, 네 차례 실습생을 만나 그들의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을 공감하며 선배로서 겪었던 나만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게 되었다.

10년 동안 거쳐 간 많은 돌보미 가정들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아 있는 이들

을 소개해볼까 한다.

첫 돌봄활동 때 만난 A. 전문적인 돌보미 교육을 받았음에도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진 쌍둥이 여아는 6개월 동안 내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돌발적인 상황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다. 이 일은 자괴감을 불러왔고, 쌍둥이는 한동안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었다.

분리불안이 심하고 예민하여 아침 등원 때마다 마구 울어대어 진땀 나게 했던 B. 다행히도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엄마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봄을 마무리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정성껏 포장한 과일향이 나는 차와 카드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많이 힘드셨지요?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우리 B의 예쁜 모습만 기억해주세요.”

차를 마실 때마다 이용자분의 고운 마음과 함께 B가 예쁘게 잘 자라기를 바랐던 행복한 기억이 생긴다.

“선생님을 만난 게 저의 가정에는 천운이에요.” 하며 늘 고마운 마음을 표현 해주신 C의 어머니.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아이엄마의 육아휴직과 나의 개인사정으로 아쉽게도 헤어지게 되었지만, 여름이면 3남매와 함께 김밥과 치킨을 사서 광교 호수공원으로 물놀이 겸 피크닉을 갔던 일, 엄마 아빠가 워크숍으로 집을 비울 때면 종종 우리 집에 데려와 재우던 일이 기억난다. 마치 손주를 보는 할머니의 마음으로 5년 남짓 돌봄하면서 아이돌보미로서의 정체감과 함께 보람과 성취욕을 느꼈던 가정이다.

누나한테 혼날 때마다 울면서 내 품으로 달려와 안기던 C. 처음 만났을 때 기저귀를 차고 있던 아이가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가끔 길에서 만나면 깽뚝하게 “선생님!” 하며 의젓한 모습으로 반갑게 인사한다.

4년 가까이 두 형제를 돌보았던 D가정. “세상에서 공통 다음으로, 우주보다 선생님이 더 좋아요.” 하며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제 몸보다 더 큰 동그라미를 그리며 마음을 표현해주었던 D. 아이돌 같은 꽃미남 미모는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해서 슬그머니 미소 짓게 한다.

심한 변비로 인해 오랫동안 배변장애가 있던 D의 형도 기억난다. 절대로 화장실 번기에 앉지 않겠다는 D의 형을 며칠 동안 어르고 달래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도록 서로 끌어안고 마치 전쟁 치르듯이 씨름한 끝에 마침내 배변에 성공했던 일. 퇴근해 돌아온 아이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환호를 했었다.

또한, 만들기를 좋아하는 꼼꼼하고 세심한 D의 형과 함께 재활용품과 미술 도구를 이용해 여러 작품을 만들어 거실과 놀이방을 도배하듯 멋지게 꾸민 적도 있었다. 두 형제는 이사할 때까지 1년 동안 그 작품을 소중히 여겨 버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돌보미 활동 마지막 날, 초등학교 입학의 계기로 육아휴직을 한 D이용자는 몬스테라 화분을 선물로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 오셔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아이들을 보듯 예쁘게 키워주세요.”

지금도 거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멋진 모습으로 잘 크고 있는 몬스테라를 보면 어느새 입가엔 미소가 지어진다. ‘귀여운 꼬맹이들, 아프지 말고 멋지게 잘 크렴.’ 이렇게 염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요즘 돌봄활동을 하고 있는 E가정. E는 어릴 때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터라 나이 많은 나에 대해 전혀 거부감도 이질감도 없이 “선생님이 우리 가족이면 좋겠어요.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하곤 한다. 집을 나설 때 매년 현관까지 나와 술선수범으로 인사하는 부모님의 영향인지 초등학생임

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예의 바르고 착한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의 나날들이다.

심성 좋은 부모님을 닮아 착하고 순수한 E남매. 나이보다 조숙하고 야무져서 제 할 일을 푹부리지게 하는 E의 누나는 문제집 풀 때 도와주면 “선생님이라 공부하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오늘도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요.” 하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기장에 나도 선생님처럼 공부 잘 가르쳐주는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썼다.”며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한다.

“선생님, 오늘 날씨 너무 추워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E남매는 이렇게 말하며 핫팩을 건네기도 했다. 괜찮으니 너희들이나 쓰라며 사양해도 “아니에요. 또 있어요.”라며 끝내 주머니에 넣어주며 밝게 웃는다. 가끔은 저희들이 먹는 비타민을 가져와 “선생님, 건강하도록 이거 드세요.” 하며 억지로 입에 넣어주는 정스럽고 살가운 남매다.

한 장면, 한 장면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는 10년간의 추억 어린 발자취를 더듬어보니,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고 얻은 경험과 해마다 받는 보수교육을 통해 이제는 초보자의 서툰 날갯짓을 벗어난 듯도 하다. 전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인 한 인격체를 양육하는 공동양육자로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돌봄활동을 해나가야겠다. 한 생명이 태어나 기저귀와 걸음마를 떼고, 한 걸음씩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벅찬 감동과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들이 새로운 인생 3주기를 맞이한 내가 갖는 아이돌보미로서의 행복과 기쁨이 아닐까 싶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기다려줄게

오 경 순

무주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어이쿠, 이럴 수가!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2022년 7월 초였다. 잠시 쉬고 있던 내게 연계된 가정은 할아버지가 자녀 3명을 키우는 가정으로, 5학년 여자아이와 4학년, 2학년 남자아이를 돌봐야 했다. 차로 오르막 내리막을 15킬로미터나 달려가야 하는 꽤 먼 거리였다. 왕복 1시간. 시작도 하기 전에 쉽지 않아 보였다.

어렵게 도착해서 그 집 문을 열고 내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어이쿠, 이럴 수가!”였다.

문을 여는 순간 진동하는 역한 냄새. 바닥엔 음식물 국물이 늘어붙어 찌들어 있고, 주방 식탁엔 먹다 남은 음식물, 설거지통에 쌓여 있는 지저분한 그릇들, 뚜껑이 열려 있는 밥솥과 국 냄비, 들끓는 파리들, 방엔 두꺼운 겨울 담요가 그대로 깔려 있고,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발 디딜 곳조차 없었다. 우선 청소와 설거지부터 했다.

집안정리를 끝내고 아빠와의 면담을 시작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저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세요. 큰아이가 생리를 시작했는데 제가 남자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요.”

직장일과 농사일을 병행해야 하는 아빠는 아이들을 챙길 여유도, 의지도 없는 듯했다. 아이들은 펴 놓은 이불에서 자고, 그대로 씻지도 않은 채 학교에 가고, 방과 후 돌봄센터에서 저녁까지 먹고 오면, 또 그대로 그 이불에서 자고 다시 학교에 가는 것이었다. 더운 여름인데 제대로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 아이들은 몸에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방문해서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씻겼다. 큰아이에겐 위생교육을 하고 작은 파우치를 주며 생리대를 넣어 휴대하고 다니라고 알려줬다. 아빠에게 큰아이 방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렸다.

아이들의 낡은 이불은 버렸다. 베개도 없는 아이들에게 집에 남은 베개를 갖다 주었다. 그러자 자기 베개를 처음 가져본다며 좋아했다.

전주센터 선생님들의 방문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동방치’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의 위생용품, 학용품, 목욕용품 등이 지원되었고, 군의 지원으로 벽지와 장판도 새로 갈게 되었다. 주변의 쓰레기 정리까지 마치고 나니, 한결 깨끗한 환경이 되었다.

하나씩 배워가자. 하나씩 익혀가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 아이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뭐지?”, “이답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제일 좋았던 체험이나 놀이는 뭐니?”

나는 이런 질문을 하며 백지를 주고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다. 결과는 참 난감했다.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글, 뭐가 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답….

큰아이는 언어장애가 있고, 그 아이와 종일 생활하다 보니 동생들의 언어발달에도 문제가 생긴 듯했다. 도와줄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르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하루에 몇 시간 돌봄으로 개선되거나 치유될 문제가 아니었다.

수학 수준을 테스트해 보니, 5학년은 4학년 수준, 4학년은 2학년 수준, 2학년은 한글도 떼지 못했다. 아빠와 의논하여 수학만이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보자고 결정하고 쉬운 학습지를 정해서 매일 공부하기로 했다.

생전 처음 집에서 공부를 하니 아이들은 산만하고, 하기 싫어서 몸을 비틀었다. 얼른 끝내고 게임을 하기로 했다. 메모리 게임, 알파벳 게임, 끝말잇기 등으로 아이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습관도 하나씩 고쳐갔다. 살면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들도 교육이 필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음식이 들어 있는 용기의 뚜껑을 닫을 것, 식후에 식탁을 닦을 것, 분리수거 방법, 잠자리에선 음식을 먹지 말 것,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할 것, 아침에 세수하고 학교에 갈 것’ 등등.

아이들을 싱크대 앞에, 식탁 앞에 세워놓고 알려주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았다. 아이들을 훈계하는 일이 잦아졌다. 너무 힘들었다. 생각다 못해 센터에 전화해서 못하겠다고 했다. 센터에서 3개월만이라도 해보자고 권유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3개월만 해보기로 했다.

우리들의 약속

매일 샤워하고, 잠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고, 신발을 벗으면 가지런히 놓고, 이불 위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기 등등 고쳐야 할 것들이 많았다. 하루는 아이들 옷을 정리하려고 서랍장을 열었더니, 거기에 빈 박카스 병이 가득 들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놀라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먹은 거니? 맛있었어?”

“네...”

아이들은 혼날까 봐 걱정되는지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가끔 오줌을 싸는 것 같더니 이것 때문이었나 싶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박카스 같은 카페인 음료가 아이들 건강에 얼마나 좋지 않은지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양 불균형도 큰 문제였다. 둘째가 자꾸 살이 찐다고 걱정하는 아빠의 말에 집에서 사과를 가져가 간식으로 주기로 했다. 다행히 잘 먹고 좋아했다. 그렇게 매일 놀라움의 날들이 지나갔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있었다. 스스로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날 즈음이었다. 문득, 돌봄가정의 아이들과 내 손자들의 차이가 눈에 보였다. 주위환경도 그렇고 타고난 자질도 그렇고 내 손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예쁘고, 건강하고, 똑똑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나는 그 감사함을 돌봄하는 아이들과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조금은 공평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바뀌자 아이들이 다시 보였다. 아이들과 ‘우리들의 약속’을 적어 약속을 잘 지키면 점수를 주고, 100점이 넘으면 선물을 주기로 했다. 10가지 항목의 생활습관 지키기, 공부하는 시간에 100점 맞기 등의 약속을 정하고 매일 기록하면서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내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걸레질도 항목에 넣었다.

처음 약속한 선물은 시내에 나가 외식 후 선물 사기였다. 작은 선물이지만 아이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집안일은 아이들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패턴으로 바뀌었다. 기특한 일이다.

공부 습관도 좋아져서 집중하는 시간이 늘었다. 가끔 연휴 때면 하루 분량의 공부를 숙제로 내주고 숙제를 끝내면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라고 했다. 모두 끝내고 사진까지 보낸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다음 날 만나서 “와, 너무 잘했

어. 이리 와, 선생님이 보보해줄게.” 하면서 볼에 보보를 해주면 좋아서 씩 미소 짓는 아이들…. 어느새 정이 깊이 든 것 같다.

“네가 열심히 한 덕분이야!”

기초를 잡아주기 위해 5학년은 4학년 과정을, 4학년은 2학년 과정을, 2학년은 ‘ㄱㄴㄷ부터 숫자 123’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쉬운 것도 자꾸 틀려서 야단을 치면 아이들이 울기도 했다. 가끔 나도 모르게 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렇게 힘들게 세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 점점 학습능력이 느는 아이들을 보자 안도와 함께 ‘조금만 더하면 더 좋아질 텐데….’ 하는 욕심이 생겼다.

하루는 컵물을 닦아주며 “네가 열심히 잘 따라줘서 선생님은 너무 기뻐. 네가 잘하게 된 건 네가 열심히 한 덕분이야. 네가 열심히 하면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쳐줄 거야.” 하며 달랬다. 그러자 더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기특했다.

100점을 맞았을 때는 “와, 100점 맞았네! 다 같이 박수!” 이렇게 함께 웃으며 성취의 기쁨을 나눴다.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오늘도 아이들은 재잘재잘 이야기를 한다.

“음 그랬구나!”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무슨 말인지 한참을 생각한다. 이제는 아이들의 생활습관도 정착되어가고, 큰아이의 방도 꾸며주고, 공부습관도 좋아져서 참 다행이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약간의 ‘경계성 지능 저하’인가 싶게 느렸다. 옆에서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 자꾸 알려주게 된다. 기다리다가 화나는 일도 참 많았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무도 더하기의 연산이 곱셈이고, 빼기의 연산이 나눗셈이 되는 원리를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다. 더하기 1부터 시작한 연산이 4자리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로 진행되니, 이제 좀 느긋해진다.

돌봄이 없는 휴일에도 아이들은 스스로 청소와 설거지를 한다고 한다.

“그래, 애들아! 좀 느려도 괜찮아.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아질 거야. 선생님은 너희들을 믿어!”

오늘도 아이들에게 줄 사과 3개를 챙겨 넣으며 기분 좋게 돌봄을 하러 간다.





함께 만든 우리의 보물일지

전 태 복

달성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선생님~, 이거 기억나세요?”

종종 서로 안부를 전하는 이용자 가정에서 오랜만에 사진 몇 장과 함께 연락이 왔다. 태아 초음파사진과 익숙한 필체가 노트에 빼곡하게 차 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써 내려간 육아일지였다.

“어머~, 어머니! 이걸 이렇게 잘 간직하고 계셨네요~!”

“그럼요. 우리 집 가보인걸요~!”

“저에게도 보물 같은 기억이랍니다. 초록이는 잘 지내나요?”

“저희 초록이가 이번에도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집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진짜 저희가 그때 말한 대로 되었어요~!”

그날의 육아일지를 보니, 어머니께서 “선생님 덕분에 우리 초록이 영재 되는 것 아니에요?” 하며 함께 웃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10여 년 전 우리가 말한 대로 아이는 정말 눈부시게 맑고 총명하게 잘 자라고 있다. 발명에 열중하는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은 ‘초록이’라는 태명처럼, 싱그러운 초여름 같다. 몇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안부를 전하는 고맙고도 어여쁜 어머니의 마음씨에

나도 덩달아 가슴이 벅차오른다. 떠올리기만 해도 빙긋 미소 지어지는 아이와의 기억도 함께...

2010년 11월 22일, 갓 태어난 초록이를 처음 만난 날이다. 초록이네는 어머니가 재택근무를 하는 맞벌이 가정이었고, 주변에 양육을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첫아이라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막막했어요. 아이돌봄제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나를 매우 반겨주셨다. 그러나 초록이와의 만남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첫날 아이는 많이 보채고 칭얼대다가 자지러지게 울었고 안아주거나 업어주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아이는 모유 수유 중이었는데, 분유를 젖병에 담아 주어도 먹지 않고 엄마 젖만 찾으며 운다고 어머니는 난감해했다. 나는 아이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머니, 제가 보기에는 모유가 부족해서 배가 고프니까, 아이가 예민해져서 더 울고 보채는 것 같아요. 분유를 숟가락으로 먹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머니가 나의 조언에 따라 숟가락으로 먹여주었는데, 아이는 잘 받아먹고 배가 부르니 잘 놀고 더 이상 칭얼거리지도 않았다. 그 모습에 어머니가 좋아하면서, 나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였다.

“이유식도 조금 일찍 시작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개월에 맞게 부드러운 이유식을 준비해서 분유와 이유식을 시간 맞춰 먹였다. 배가 부르니 아이는 기분 좋게 웅얼이 하며 잘 놀고 잠도 잘 잤다.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도 흡족해했다. 나와 어머니 관계에 신뢰감이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초록이는 첫날에는 책과 장난감을 보여주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

데, 내가 아이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충족해주려 애쓰자, 돌보미 4일차 만에 아이가 나를 알아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나의 목소리를 듣고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반응하고 뒤집기를 하였다. 나의 손길이나 동작에 방긋방긋 웃으며 나에게 두 손을 뻗어 자신의 몸을 맡기는 아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었다.

아이와 어머니가 모두 나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에, 나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돌봄활동에 충실할 수 있었다. 아이돌보미 교육에서 배운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맞춤식 양육에 대한 지식도 도움이 되었다. 발달수준이나 특성에 따라 욕구에 맞춰 아이와 온몸으로 소통하며 따뜻하게 보살펴주려 애썼다. 매일 다양한 놀잇감으로 놀아주고, 책을 5~6권 이상 읽어주었다. 책장을 넘기는 부분도 아이의 손을 잡고 반복해서 도와주었더니, 8개월 전에 책장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평균적으로는 11~12개월이 되어야 가능한 행동인데, 아이가 빠르게 습득하는 모습에 어머니도 나도 신이 났다.

나를 보자마자 폭 안기며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하며 잘 따르고, 날이 갈수록 영민해지는 아이의 모습에 정서적 교감과 안정적인 애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초록이와 어머니를 보며 나는 나의 첫아이 육아가 떠올랐던 것 같다.

첫아이를 낳고 물어볼 곳도 도움받을 곳도 없어, 육아서적을 쌓아놓고 무작정 읽었다. 그저 아이에게 오롯이 집중하며 온종일 잘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며 웃게 해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어디선가 책에 꿀을 발라두어 갓난아이 때부터 책과 가깝게 했다는 육아비법을 듣고, 우리 아이에게도 매일 책을 읽어주었다. 그랬더니 21개월쯤부터 한글을 모르는데도 책장을 혼자 넘기며, 동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읽듯이 외워서 말하는 영특함을 보였다. 이런 육아 경험이 있어서 초록이 어머니에게 더욱 애정과 확신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튼튼하고 속지가 예쁜 노트를 구해 와서 아이의 성장을 매일 기록하여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다.

“아휴~, 저도 아직 못한 것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이제부터 이걸 우리 집 가보로 삼아야겠어요~!” 하며 기뻐하셨다. 어머니가 나머지를 채울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두었는데, 그 공간을 아이의 태아 초음파사진, 발 도장, 태몽 이야기, 아이 사진 등으로 채워셨다.

초록이는 하루가 다르게 빠른 성장을 보였다. 생후 4개월에 만나 6세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아이의 성장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13년간 돌봄활동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귀중한 경험이다. 이제 아이들의 성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또 다른 기쁨이자 보람이 되었다.

초록이의 육아일지를 쓰면서,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놀이와 독서, 양육자



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아이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나는 초록이 덕분에 유아교육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흥미가 생겨 유아특수보육학과에 입학하였고, 57세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아들, 딸과 같이 학교를 다니는 진기한 체험도 하였다. 아이들과의 만남이 이제 내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선생님~, 초록이는 책 읽는 역량과 이해력이 고3 수준이라고 도서관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초록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고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신 덕분이예요!”

“선생님~, 우리 초록이 담임선생님 추천으로 본 교육청 영재시험에 합격했어요~!”

“선생님~, 우리 초록이 오늘 반에서 1등 했어요~!”

아이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과거의 공에 감사한다. 가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다정하고 살가운 이용 가정을 만났으니, 오히려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다. ‘아이돌보미’가 단순히 잠깐 아이를 봐주는 역할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존재를 함께 키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그리고 기꺼이 아이를 ‘같이 키운다’고 여기며 나를 믿어준 어머니, 나를 믿고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출근길에 새록새록 피어오른 행복한 기억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하루하루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물일지임을 잊지 말자고 다짐한다.





구호요청 하십시오

송 정 일

제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019년 44살의 나는 이직을 결심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다. 40살은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지 않는 나이라 하여 ‘불혹(不惑)’이라 하던데..., 나는 40을 넘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로를 고민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 일을 찾아 고민하던 중,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가 눈에 띄었다. 학원과 초등 돌봄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나는 새로운 일도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 지원하였다.

합격자 발표 날, “때르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송정일 선생님이세요? 여기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요. 합격하셨습니다. 3월 1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나요?”

그 말에 나는 너무나 기쁜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용자분과 돌보미 선생님 사이에서 원활한 서비스 연계와 민원 상담인데, 그 일은 주로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다. 먼저 정확한 서비스 안내와 연계를 위해 지침을 꼼꼼히 읽고, 모르는 것은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께 묻고 의논하며 익혀나갔다. 그다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과 돌보미 선생님들의 명단을 파악했다. 이렇게 나는 이용자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돌보미 선생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연계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리고 여느 때처럼 전화를 받았다.

“돌보미 선생님이 분유를 탈 줄 모르시더라고요!”

이미 언성이 높아진 이용자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이용자분의 말씀을 모두 듣고 나서 돌보미 선생님의 말씀도 듣고 난 뒤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돌보미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분유를 타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쭙보니 분유 타는 순서가 문제였다. 분유를 먼저 넣고 물을 넣는지, 물 먼저 맞추고 분유를 넣는지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젊은 엄마는 깨끗하게 거른 정수기 물로 편리하게 분유를 타면 된다고 생각한 반면, 연세가 있는 돌보미 선생님은 아기가 배앓이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끓인 물로 분유를 타야 한다고 주장해서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돌보미 선생님들께 보호자들의 양육방식을 따라 달라고 교육한다. 하지만 돌보미 선생님들은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자신의 양육방식과 철학이 아기에게 더 좋다고 생각한 나머지 현장에서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가름하지 않는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의 불편함을 들어주고 서로 맞춰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이용자는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돌보미 선생님은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려면 이용자분들의 사소한 요청사항, 아동의 성향, 가정상황 등에 대해 귀담아듣고, 돌보미 선생님들의 고충도 함께 들으며 서로 맞춰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

돌봄서비스 연계는 보호자와 돌보미 선생님, 아동 이렇게 사람 대 사람의 관

계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서로가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지속적인 돌봄을 할 수가 있다. 좋은 예로 다음과 같은 일을 들 수 있겠다.

어느 날, 돌보미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일주일 후에는 그 가정에서 활동한 지 한 달이 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동을 계속 업어야 하는 상황이라 팔과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아동을 등에서 내려놓으면 아동이 바로 울어버리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으며, 이용자분께도 벌써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 다시 돌보미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다. 이제 아동이 업히지 않고도 잘 놀고 울지 않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용자분과 돌보미 선생님은 이틀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기뻐하셨지만, 내가 보기에는 기적이 아니라 아동과 돌보미 선생님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리라.

한번은 자녀 셋을 둔 임신부가 돌봄 신청을 했다. 넷째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데, 집에 남아 있을 세 아동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집에는 아버지와 외할머니도 계시지만, 손이 더 필요한 듯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동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 선생님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보미 선생님 두세 분이 일정을 조정해가며 활동해주셨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무사히 예쁜 아기를 낳고 집에 오셨다며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화했다. 3명의 오빠들에게 귀여운 여동생이 생긴 것이다.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가족의 다복함이 눈앞에 그려졌다. 힘들겠지만 엄마와 아빠, 할머니 모두 기뻐하고 행복해하리라. 4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기가 쉽진 않겠으나 그 충만한 행복감에 비하면야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가끔 육아의 고충을 상담하듯 털어놓는 이용자분들도 있다. 첫째를 키우는

라 힘들고 정신없는 와중에 계획에 없던 둘째가 연년생으로 생겨 힘들다는 어머니의 푸념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난다.

“두 아이를 저 혼자 보는데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돌아버리겠다는 말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아마도 그분의 마음을 딱 한마디로 전달한 말이 아닐까 싶다.

하루에도 수많은 전화를 통해 일을 처리한다.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와 돌보미 선생님을 연계하고 관리하지만, 그 과정에는 첨단 시스템이나 컴퓨터가 건네지 못하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감정이 담겨 있다. 때때로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고충과 힘겨움에 공감하기도 하고 위로를 건네기도 한다. 혼자 돌보기에 벅찬 나머지 당장 손이 필요하여 센터로 문의전화를 했겠지만 어쩌면 온종일 집 안에서 아기들과 지내면서 지친 마음을 누군가와 얘기하며 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비록 만난 적도 없고 오늘 처음 통화를 했지만, 이 한마디에 그분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이다.

한 가정에 아기의 탄생은 축복이고 기쁨이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말 그대로 육아전쟁이 시작된다.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기에도 모자란 그 시간에 육아전쟁을 치르는 부모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유가 없어 기쁨보다 힘겨움이 앞선다. 당장 양육을 맡은 부모들은 언제 크나 하고 빨리 크길 소망한다. 돌이켜보면 너무 소중한 순간이고 아기들이 다 성장한 후 숨을 돌릴 만한 여유가 생기면 “왜 나는 그때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힘겨워만 했나?” 하고 후회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여 아기와 소중한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엄마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당당

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센터에 입사 후, 전체회의 시간에 센터장님과 모든 직원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 직장이며, 이곳에 뼈를 묻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렸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내 온 마음을 담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려면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나는 여기 내 자리에서 지금도 어디에선가 육아로 힘들어할 모든 부모님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며 그들의 구호요청에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

싱글맘이자 워킹맘, 나도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다

김 경 옥

김포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네? 안 된다고? 알았어요. 여기서 애들을 돌봐줄 사람을 찾아볼게요.”

아이들을 돌봐주러 서울로 올라올 수 없다는 친정어머니의 사정을 계기로 시작된 돌보미 선생님과과의 만남은 싱글맘이자 워킹맘인 내가 드디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다!”, “아, 나도 커리어를 가진 멋진 엄마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의 시작이었다.

5년 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던 전업주부인 내게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그 당시 첫째가 27개월, 둘째가 8개월이었다. 운영하던 병원의 경영 악화, 연이은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의 빚만 남기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린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지낼 집 한 칸도,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돈도 집도 직업도 없이 어린 아이 둘과 함께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나는 믿기지 않은 현실에 몇 개월을 좌절과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두 아이가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 내겐 저 애들이 있었지. 어떻게든 아이들과 살아내야지! 정신을 차려서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

그것이 아이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우선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서비스를 모두 신청했다. 하지만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덜덜거리는 2004년식 렉스턴 자동차와 (남편의 사업에 사용한) 내 명의로 된, 경매 중인 땅이 있어서 그 어떤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위해 친정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내가 자리를 잡아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때까지만 어린아이들을 맡아달라고 어렵사리 부탁했다.

그렇게 하여 아이들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외갓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나는 서울에서 일을 마치는 금요일이면 바로 광주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다시 월요일 새벽기차로 서울로 출근하는 생활을 4년 넘게 이어갔다. 한 주도 빠짐없이 아이들을 보러 가서 주말을 광주에서 보냈다. 힘든 시간도 결국은 지나가기 마련. 내 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다.

작년, 그 작년 꼬맹이들이 자라서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나는 광주에서 아이들을 데려왔다. 우리 셋은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아이들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평일에는 일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남들보다 2배의 역할을 해야 하는 워킹맘이자 싱글맘이라 아이들을 혼자서도 잘 키우면서 또 멋지게 일을 해내야 했다.

아침에 직접 아이들 식사를 챙긴 후, 첫째는 초등학교, 둘째는 유치원에 보낸 뒤, 내가 퇴근하여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학교 돌봄교실과 학원에서 지내게 했다.

그렇게 다시 합친 우리 세 식구는 그러저럭 단란하게 잘 지냈다. 하지만 가끔

이른 출근이나 늦은 퇴근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난감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못한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하자니 그것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들보다 2배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이들 케어하느라 2배는커녕 절반도 일하는 데 시간을 쓸 수가 없어 답답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너무도 좋았지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잘살기 위해 필요한 내 커리어는 어떻게 쌓아가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시간을 미루고 안 된다고 취소하기를 몇 번, 하지만 꼭 참석해야 하는 미팅이 잡혔다.

나는 친정부모님께 전화해 광주에서 우리 집으로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전에 몇 년을 그렇게 도와주신 부모님도 내가 다시 부탁하자 “이제는 몸이 안 좋아서 더는 안 된다.”고 거절하셨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여기서 애들을 돌봐줄 사람을 찾아볼게요.”라고 이야기했지만,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걱정이고,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려니 그것도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 미팅에 참석하지 못하면 향후 내 커리어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비용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의 결심은 내가 작년에 한 일 중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었다.

정부지원금이 있어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돌보미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나는 일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필요한 교육 수강을 포기하거나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미팅에 불참하는 일도 사라졌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아이들은 돌보미 선생님을 너무도 좋아한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은 선생님과 게임을 하거나 종이접기 같은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엄마가 집

에 돌아오면 돌보미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걸 깨달은 아이들은 재미있게 하던 놀이를 중단하는 게 싫었던 나머지 이렇게 외치기도 한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엄마는 물러가라. 엄마는 물러가라!”

나는 ‘출산·양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단체가 아니라, 부모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변수가 생기는 게 인간사다. 한 가정에 불행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식 자기가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몇 년 전에 내가 당했던 것처럼 살 집도, 살아갈 돈도, 살아낼 직업도 없이 밑바닥에서 그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면 어떻게겠는가.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국가의 복지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단연코 ‘아이돌봄서비스’인 것 같다. 일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를 제대로 쌓아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워킹맘, 워킹대디가 가능하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초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가진 ‘초저출산국’이면서 최대 아이 수출국이라는 아이러니하고도 부끄러운 타이틀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데서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나처럼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며 멋지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갈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한다.

삶을 지탱해준 아이돌봄서비스

김 명 선

고창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022년 4월 파스한 어느 봄날 오후, 자동차에 큰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다. 차는 새카만 도로 위를 네 바퀴 이상 굴러 전복된 채 겨우 멈춰 섰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다. 다행히도 나는 큰아이를 끌어안고 겨우 차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와 큰아이가 살아 있는 것은 천운이었다. 게다가 더욱 감사한 건 큰아이가 다친 곳 없이 무사하고, 나 또한 크게 다치지 않고 발목인대만 파열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목발 없는 걸을 수 없어서 32개월 된 큰아子和 6개월 된 둘째아이를 돌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 상황이 매우 비참하고 두려웠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일까. 사고가 일어나기 이틀 전, 나는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기를 읽고 나서 ‘나도 육아에 지치게 되면 한번 이용해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터였다. 어쩌면 아이돌봄서비스와 나는 대단한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혹독하고 잔인했던 시기를 함께 지내며 이겨낸 가족같이 소중한 분이다.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함께했던 지난 1년. 많은 사연과 아픔도 있었지만, 선

생님에게 위로를 받고 또다시 힘을 내어 희망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을 이 글을 읽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원래 예민하고 날카로웠던 성향을 가진 큰아이가 교통사고 이후에는 더욱 심한 증세를 나타냈다. 평소보다 격하게 행동하는가 하면, 동생을 때리는 정도가 날로 심해졌다. 아이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동안, 나 또한 몸에 남아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우울증으로 날로 정신이 피폐해져갔다.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포대기 안에서 꼬물거리는 둘째와 3돌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형이라는 이유로 주변인들로부터 사랑과 인정보다는 의무와 질타를 받고 있는 큰아이가 너무 불쌍했다.

‘그래, 오늘 하루만 버텨내자.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악물고 오늘만이라도 버티고 또 버텨보자.’

매일매일 이런 각오로 버텨나갔다.

우리가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도 돌보미 선생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셨고,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나는 큰아이의 하원시간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였고, 그런 속마음 탓인지 큰아이를 엄청 반갑게 맞이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큰아이는 둘째를 사정없이 때리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생떼를 썼다. 그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집 안에 있는 장난감 모두를 둘째가 절대로 손도 대지 못하도록 철통감시를 하는 것이었다. 목욕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혼자서 놀이를 하다가도, 동생이 자기 물건을 만지는지 감시하느라 정작 큰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둘째를 돌보미 선생님의 품에서 한시도 떨어뜨려놓을 수 없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단기간 내에 해결해보려고 아동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무섭게 아이를 훈육하기도 했다.

이렇듯 집 안이 불안과 긴장감으로 휩싸여 있을 때 돌보미 선생님은 오히려 평온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며,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와 아이들을 돌봐주셨다.

사고 이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되어가도 큰아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질 때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나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해주셨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 지금 당장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콩나물이 쭉쭉 자라나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매일매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좋은 말로 계속 다듬어주면 결국에는 바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빙그레 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그 모습을 대할 때면 나는 아이로 인해 북으락푸르락 흥분했던 마음이 어느새 사그라들고, 선생님처럼 좋은 말로 타이르고 기다려줄 줄 아는 엄마로 변모해갔다. 큰아이는 자신을 혼내지 않고 차분하게 타이르며 늘 믿고 기다려주는 선생님이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는지 친구처럼 장난을 치는가 하면 때론 버릇없이 함부로 대할 때도 많았다. 그 때마다 선생님은 따스하지만 중심 있는 모습으로 큰아이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셨다. 그러한 선생님의 사랑과 신뢰가 통한 걸까. 큰아이는 어느덧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아빠의 빈자리를 그 늦은 시간까지 채워주셨고, 큰아이가 수많은 감정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멜 때도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다. 어쩌면 선생님의 입장에선 다리가 불편한 엄마가 집 안에 함께 있어서 엄마가 없는 돌봄보다 더 불편하고 어려움도 많았을지 모르겠다.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니, 아이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선생님의 돌봄을 받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돌보미 선생님과 함께한 1년이 지나자, 큰아이는 더 이상 동생을 때리거나 미워하지 않는 멋진 형이 되었다. 물론 자기 장난감도 흔쾌히 양보해주고, 사랑한다면서 동생에게 보보도 하고 안아주기도 한다.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파스한 모습들을 매일 보여준다. 그로 인해 우리 집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다. 만약 돌보미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는 큰아이를 무섭게 훈육하여 제압하려 했을 테고, 그에 따라 둘 사이는 점점 더 악화되어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비록 우리 가정에 갑작스레 찾아온 교통사고는 큰 불행 중 하나였지만, 돌보미 선생님과 인연 덕분에 행운으로 바뀐 것 같다.

선생님은 요즘도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다. 나는 돌보미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나가는 중이다. 돌보미 선생님 덕택에 고된 육아에서 휴식을 얻고, 선생님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중인 것 같다. 나처럼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 선생님들이 함께해준다면 아이 부모님에게 큰 삶의 활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삶의 희망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돌봐주신 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선생님, 지난 1년간 저희 가정을 돌봐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 큰아이를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햇살 같은 아이들 그리고 햇살을 만들어준 키다리 선생님

김 비 뵈

원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연년생에 쌍둥이. 그렇다. 나는 세 딸의 엄마다.

둘째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이 발령을 받은 뒤였다. 그렇게 쌍둥이를 품은 채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쌍둥이가 태어나자 나는 급한 대로 친정엄마와 여동생에게 부탁했다.

“아기들이 신생아 딱지를 뗄 때까지 딱 100일만 함께 돌봐주면 안 돼요? 그러면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쌍둥이를 혼자 보든지, 아니면 아기 돌볼 사람을 구해볼게요.”

나는 일을 하고 있는 엄마를 졸라 함께 육아를 시작했다. 하지만 엄마는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처지여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여동생도 새 학기 준비로 바빠 내 머릿속은 복잡해져갔다.

어느 날, 중고거래에서 만난 아기엄마에게 우리 집 사정을 얘기했더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라고 알려주었다. 갓 100일 된 아이를 생판 모르는 선생님께 맡긴다는 게 꺼려졌고,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있으면 불편하지 않

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렇게 고민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내 몸이 부서지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센터에 문을 두드렸다.

둘째가 만난 선생님, 성실의 아이콘

3월이 되어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하지만 아직 적응기간이라 일찍 하원한 첫째는 나에게 달라붙고, 쌍둥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서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다. 어서 돌보미 선생님이 오시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드디어 아이들과 돌보미 선생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안 선생님은 누워 있는 쌍둥이와 18개월 된 첫째를 보더니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며 아이들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셨다.

“지유 엄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내 힘껏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 마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애정 어린 격려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선생님은 비 오는 날의 한 줄기 햇살 같았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아이들을 돌봐주셨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리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쉼한 내 모습과는 달리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이쁜이들~ 잘 지냈어?” 하며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기분 좋은 아침을 열어주신다. 선생님은 매일 아침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잠을 잘 잤는지 물으신다. 그런 다음, 창문 커튼을 활짝 걷어 젖혀 아침햇살이 집 안 가득히 들어오게 해주신다. 안 선생님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이들을 돌보아주셨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신다고 한다. 한 번도 연락이 안 되거나 늦으신 적이 없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해 보였다. “선생님은 하루 종일 우

리 집에 계시다가 잠만 주무시러 가시는 것 같아요.”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선생님 등에 업힌 쌍둥이 선유의 기저귀가 아기띠에 걸려 한쪽으로 몰렸다. 그래서 선유의 오줌이 새는 바람에 선생님의 바지가 젖었다.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풋!’ 하고 웃고 말았다. 그러자 선생님도 따라 한참을 웃으셨다. 선생님은 선유에게 질문형으로 말을 거신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선유가 고개를 끄덕이자 “진짜 알아들은 거야?” 하며 기뻐 하셨다.

몇 해가 지나, 쌍둥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을 때, 선생님은 쌍둥이가 낫설어할까 봐, 어린이집 적응을 위해 손수 아이들을 데리고 등·하원을 시켜 주셨다. 다행히 아이들은 빠르게 잘 적응해주었고, 선생님은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배정되셨다.

선생님의 근무 마지막 날, 나는 오열했다. 선생님의 열정과 진심에는 눈물로 밖에 보답할 길이 없었다. 안 선생님은 나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유 엄마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아이들도 친손주처럼 돌봤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선생님께 고마움을 말로 다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써둔 편지를 전해 드렸다.

“선생님 같은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셋째가 만난 선생님, 에너지의 아이콘

나에게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안 선생님이 퇴근한 뒤에는 혼자서 3명을 돌보아야 하는 ‘공포의 독박육아’에 돌입해야 했다. 게다가 새벽 수유로 인해 잠이 점점 부족해졌다. 아무래도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 쌍둥이 중 한 명을 도맡을 선

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분의 키다리 선생님을 만났다.

“까아~, 안녕하세요?”

한 선생님은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하이톤에 쾌활한 웃음, 밝은 에너지가 우리 집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출근하면 안 선생님은 둘째를, 한 선생님은 셋째를 돌보기로 하고, 나는 밀린 잠을 자거나 남은 살림을 처리하고, 하원하는 첫째를 담당했다. 그제야 완전체가 되었다. 이제 ‘환장의 집’에서 ‘환상의 집’으로 탈바꿈되면서 집 안은 점차 안정되어갔다.

셋째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신경 써주시던 한 선생님.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이의 시선에서 눈높이를 맞춰주셨다.

나는 쌍둥이를 구분하기 위해 셋째의 옷을 노란색과 민트 계열로만 입혔는데, 이를 본 한 선생님은 “왜 공주에게 핑크색을 안 입히느냐?”며 나에게 핑크 옷을 입히자고 조르기도 하셨다. 그런 선생님을 닮아 셋째도 무척이나 애교 많고 쾌활했다. 한 선생님은 우리 집을 ‘잔한 집’, ‘정말 도와줘야 하는 집’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웬만하면 쌍둥이를 재우고 퇴근하려고 하셨고, 주말에도 손길이 필요하면 기꺼이 와서 돌봐주셨다.

근무 마지막 날, 한 선생님은 무척 섭섭해하셨다.

“지유 엄마, 쌍둥이를 왜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야? 너무 보고 싶을 거 같아.”
나도 그때만큼은 내 결정에 후회했다.

“선생님께서 주신 사랑, 아이들이 자라는 데 큰 영양분이 되었어요. 감사해요.”

첫째가 만난 선생님, 긍정의 아이코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본의 아니게 첫째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다.

저녁에 선생님들이 퇴근하시고 나면, 나는 쌍둥이를 일찍 재우려고 했다. 그

래야 살림을 할 수 있었다. 저녁 7시에 쌍둥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혹시 빛이 썰까 봐 거실에 불을 끄고 첫째에게는 영상을 틀어주었다. 재우려면 족히 1시간도 넘게 걸리는 시간을 첫째 혼자서 기다리게 했다. 처음엔 첫째도 함께 재우려고 노력해보았지만 늦게 자는 첫째의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첫째는 언어발달이 느린 편에 속했다. 어느 날, 나는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친구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생님이 찍어둔 사진을 보니, 말문이 턱 막혔다. 친구의 얼굴 대여섯 군데에 상처가 나 있었다. 친구가 자기 장난감을 빼앗으려는 줄 알고 그런 것 같았다.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선생님도 많이 난감한 눈치였다. “하지 마!”, “싫어.” 이 두 단어만 말할 수 있어도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내 탓인 것만 같아 자책이 되었다.

그 뒤에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첫째가 걱정되어 언어심리센터에서 검사를 받게 했다. 의사는 또래보다 6개월이 늦지만 아직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으니, 영상을 줄이고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놀이시간을 늘리라고 했다. 하루에 영상을 네다섯 시간씩 보여준 게 화근이 된 것일까?

센터에 아이를 교정해줄 선생님을 부탁한 뒤, 한 달이 넘어서야 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첫 만남 때 우리 집 사정과 아이의 언어발달 상태, 그리고 성향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살피셨다. 첫째아이는 호불호가 명확하고, 자기주도 성향이 강한 편이어서 다루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섰다.

며칠 동안 선생님은 아이와 거리를 두며 천천히 다가갔다. 첫째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영상을 조금씩 줄이면서 선생님과 교감하기 시작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영상을 보던 멍한 아이의 눈빛이 선생님과 재밌게 놀이하고 싶

어 하는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언어가 트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언어치료심리센터에서는 아이의 언어가 많이 늘었다며 이제는 그만 다녀도 되겠다고 했다. 그 뒤로 첫째의 언어는 무척 늘었다. 김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첫째의 좋은 친구가 되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아이의 컨디션에 맞게 활동을 조절하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눈여겨보고,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또한 내가 조금해할 때는 아이의 발 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조언도 해주신다.

“선생님,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세 아이는 1년여의 시간 동안 무럭무럭 자라서 어린이집을 잘 다닌다.

자연스럽게 종일반 선생님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또 다른 키다리 선생님들이 우리 집의 버팀목이 되어주신다. 또 다른 사랑으로, 또 다른 돌봄으로 채워 나가는 중이다. 아이를 키우는 게 온전히 엄마의 몫만은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세 아이를 업다보니 허리가 안 좋아졌는데 돌보미 선생님 덕에 여유가 생겨 운동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체력도 좋아지고, 몸도 회복되면서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공백을 채워준 돌보미 선생님들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되 찾았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신 여러 선생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센터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햇살 잘 드는 집. 바로 그게 우리 집이다.



You are my Rock! (너는 나의 바위야!)

박 미 현

울주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You are my rock.”이란 문장은 “너는 나의 바위야.”의 영어식 표현이다. 누구나 바위를 생각하면 든든함과 변함없는 굳건함을 떠올릴 것이다. 의미를 풀어보면, “당신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뜻이다. 풍족했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던 나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 내게 있어서 바위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었다. 이제는 만 5살과 3살 두 딸의 엄마가 된 지금, 누군가 내 삶의 바위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고민 없이 나의 4년차 육아동지인 김필순 선생님과 신덕남 선생님을 떠올릴 것이다.

아직 갈 길이 구만 리인 내 육아를 이미지로 표현하면, 무척 예쁘지만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좀 외로운 개울썸 될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친절 도움을 받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남편이 미국인이어서 시댁 식구는 한국에 1명도 없었다. 내 육아의 개울물은 자연의 섭리대로 멈춤 없이 흘러간다.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며 천천히 흐르다가도 갑자기 몰아닥친 비바람에 작은 모래알갱이들이 쓸려 나갈 정도로 세차게 흐르기도 한다. 이렇듯 변덕스러운 풍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다시 평온한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까닭은

개울물에 놓여 있는 바위 같은 두 선생님들 덕분이다.

남편과 보금자리를 만든 지 6년이 지나도록 우리 부부는 자녀계획이 없었다. 덩크족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즉 아이가 생기면 따라오는 경제적 상황과 육아공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1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서 별면서 키우는 게 낫다.”는 어르신들의 조언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임신을 결심했다.

감사하게도 아기는 용기를 내자마자 바로 찾아왔다. 그때부터 ‘당당한 커리어를 가진 사랑 가득한 부모’가 되고자 조금은 전투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임했다. 유도 분만으로 출산일을 맞추고 출산 당일까지 강의를 했다. 퇴근 후에 남편과 산부인과로 가서 입원 수속을 마치고 초산치곤 비교적 수월하게 첫딸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남편과 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조합에 우는 목소리마저도 푹꼬리였다. 하지만 그때가 아마도 내가 출산을 기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 같다.

2주 후 나는 일터로 돌아갔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었다. 첫아이라 아무것도 몰랐던 그 당시에는 “원래 아기 키우는 게 이 정도로 힘든 걸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참 많이도 던질 만큼 힘들었다. 둘째가 3돌을 넘겨 나를 경력직 엄마가 된 이 시점에서 나는 첫째가 보통아이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00일이 될 무렵, 우리는 어린이집 문을 두드렸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사랑과 진심 어린 케어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온갖 병치레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심지어 5개월 때부터는 어린이집 문 앞에만 가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인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양ang 울어댔다. 아이의 계속되는 불행으로 남편과 나는 예민해졌고, 빳빳던 나의 커리어는 짐짝처럼 느껴졌다. ‘다른 아이들은 잘

적응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예민할까?’ 하고 비난의 화살이 아이에게 향하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의 3번째 가족 구성원의 불안과 불행은 당연히 우리 가족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졌다. 분리불안을 겪는 주체가 아이인지 나인지 더 이상 구분도 안 될 만큼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최선책으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집에서 안정적으로 케어하고자 인터넷에서 육아도우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정보가 없던지라 처음에는 사실 육아도우미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집이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섯둑 나서는 사람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방팔방으로 쭉셔대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한 육아도우미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었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일단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니 사설보다는 믿음이 갔고, 선생님들 교육시스템, 지속적인 모니터링, 아동학대에 기민한 점 등이 마음에 들었다. 더구나 비용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안성맞춤인가? 미국인 남편도 “정말 이런 게 있다고?” 하며 의심할 정도였다. 지역이 외곽이라 선생님 매칭이 힘들었는데, 센터에서는 2달간 단기로 일할 선생님을 우선 연결해주고, 그 후에는 경력이 오래된 평이 좋은 선생님을 꼭 연결해주겠다며 마음을 다독여주셨다.

김필순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건 2020년 2월이었다. 면담을 요청하고 처음 만났는데, 사람을 보고 ‘인상이 좋다’, ‘꼼꼼하다’ 등의 형용사가 아닌 선명한 이미지가 떠올랐던 건 내 인생을 통틀어 굉장히 생경한 경험이었다. 선생님은 마치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서 피어난 꽃 같은 분이셨다. 신기한 건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오신 뒤로 우리 집은 조금씩 안정과 행복을 찾아갔다.

“어머나, 아이가 정말 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5살이 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아이가 보여주는 말투나 표정, 몸짓 등을 보면 정말 들쭉 같은 아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난 끔찍한 고슴도치 엄마다. 사실 아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말 예쁘게 해야지.”, “마음을 곱게 써야 해.” 하고 가르친 나와 남편의 영향 때문이 아니다. 꾸며내지 않아도 매일 꽃 같은 언행을 아이에게 보이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잇감이나 발달에 맞는 활동을 준비해 와서 아이에게 온실의 따뜻함을 선사하신 선생님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요구하며 선생님이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주려는 야속한 아이를 대하면서도 한 치의 시들함도 없었다.

이제는 우리 인생에 절대 없을 거라 단언했던 둘째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아이돌보미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면 둘째를 못 낳을 이유가 없지!”

다 꺾인 줄 알았던 나의 조금은 무식한 전투력이 이렇게 피어났다.

2020년 둘째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또 한 분의 육아동지 신덕남 선생님을 만났다. 그분에게서는 범상치 않은 인간적인 면과 강단 있는 기개가 느껴졌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틀린 것도 아닌 게, 내가 육아에 관해 소소하지만 거슬리는 고민들을 늘어놓을 때면 선생님은 인자하게 웃으시며 강단 있는 답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기가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을까요?” 하고 내가 꾸념을 하면 “돌아다니고 탐색해야 푹푹한 아기예요.” 이렇게 말해주셔서 내 고민을 말끔히 씻어주신다. 또 귀엽고 통통 튀는 만큼 화가 많은 둘째를 걱정하면, 선생님은 믿음직한 표정으로 아이의 화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다. 일부러 사서 하는 나의 걱정이 육아 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이다. 둘째 딸은 또 첫째와는 다르게 개성이 강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주

곡 같다. 신덕남 선생님은 우리 둘째의 죽 끓는 변덕에도 원래 그래야 멋진 곡이라는 듯 의연하게 지휘봉을 흔드는 변주곡의 지휘자 같다.

이 정도면 더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일정에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두 선생님은 늘 “아이가 먼저죠.”라고 얘기해주며 나의 불안함까지 잠재워주신다. 그뿐인가, 가끔은 맛있는 것 먹으며 데이트하고 오라고 우리 부부의 삶의 질까지 신경 써주신다. 내가 전생에 무슨 공을 세웠나 싶다.

내 육아의 개울가에는 굳건한 바위도 있고 너무나 고운 꽃도 있다. 굳건한 바위가 있어 개울도 아름답게 빛나고 꽃도 잘 자라는 것 같다. 먼 훗날, 이 두 선생님은 나에게 단순히 고마운 육아도우미를 넘어 나를 엄마로서, 또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귀인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분들과 인연이 되게 해주신 센터 선생님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박수연

부산강서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첫 만남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생명들이 깨어나는 계절, 봄이 왔다. 나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해 3월 초에는 유독 눈이 많이 내렸다. 이제 아장아장 걷는 뒤탈가 마냥 귀엽기만 한 인생 18개월차 둘째아이를 품에서 떼어 기관에 보내야 하는 내 마음을 하늘이 공감해주는 것만 같았다. 이런 내 마음도 모른 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함박눈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던 둘째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첫아이 때는 양가 어머니가 몇 개월씩 돌아가면서 돌봐주시기도 하고, 갑작스레 남편과 주말부부가 된 다음에는 아예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면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기도 했다. 남들은 어떻게 남편도 없이 시댁에 들어가 사느냐고 했지만, 내 소중한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지금도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

4살 터울인 둘째는 첫째아이 때처럼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어린 이집에 보내기로 했지만, 하원시간이 퇴근시간보다 훨씬 빨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양가 부모님은 모두 타 도시에 거주하고 계셨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며칠씩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도움을 부탁할 데가 없어서 사면초가인 상태였다. 그렇다고 어린이처럼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일을 사랑하고, 해야만 하는 워킹맘인 나는 강해져야 했고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결국 아이돌봄서비스를 찾아내어 신청도 해놓았지만 나는 계속 불안했다. 생각보다 하원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많았고, 시간대가 딱 맞는 선생님을 배정받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했다. 다행히도 빠른 시일 내에 선생님을 배정받았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 분이면 좋겠더라는 열망을 품고 선생님을 기다렸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불안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처음에 만난 선생님은 연세가 있으셨지만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겠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아이도 선생님과 거부감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어갔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간 중간에 모니터링도 하고, 정기적으로 돌보미 선생님들에게 보수교육도 진행하였다.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되니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더욱 쌓여갔다.

어느덧 6년차

그렇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지 어느덧 6년차가 되었다. 이렇게 수기를 적으면서 돌봄 기간을 계산해보니 새삼스레 놀라웠다. 둘째가 3살 때부터 이용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8살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 정도면 아이돌봄서비스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준 제도인지 알 것 같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 말이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의 일이다.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 선생님이랑 탁구도 했어.”

“정말? 우와, 우리 아들 정말 재밌었겠다! 엄마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겠네.”

“응. 엄마, 지금 나랑 탁구 치자. 내가 가르쳐줄게.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탁구를 잘 친대.”

비록 퇴근 후에 체력이 방전된 채로 소파에 기대고 있었지만 나는 신이 나서 벌떡 일어났다. 서랍에 방치되어 있던 탁구채와 탁구공을 발견한 선생님은 식탁을 활용해서 아이와 탁구 활동을 하셨나 보다. 감사한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돌보미 선생님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 이상으로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도 하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로 자라게 하는 데 일조하신다. 아이는 엄마가 선생님에게 느끼는 감사함을 보고 배우고,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응원과 격려는 아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물론 선생님과 부모님 간에 신뢰와 배려가 돈독히 쌓여 있다면 말이다.

워킹맘의 꿈과 성장

내가 주말부부 워킹맘으로서 산 지난 5년은 나 스스로도 어른으로서 가장 크게 성장한 시기였다. 내 목숨과도 같은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은 직장에서도, 어린이집에도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다.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늘 등에 짊어지고 살지만, 옆에서 토닥여주고 짐을 덜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 계셨기에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폭도 더 넓어졌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어른

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8살이 되면 많은 워킹맘들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엄마의 꿈과 성장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체계적이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이니 이 제도를 마음껏 이용하라고 말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담당자들과 우리 아이의 돌보미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위기 탈출

신 서 영

연제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다. 1명의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사회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나 또한 우리 마을이 우리 아이들을 함께 보살펴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와 있다. 매월 스케줄을 짜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게 된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다!”

저출산율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아보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게 될 것이다. 나는 직접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라 이 서비스가 더 귀하고 감사하다.

우선 나의 스토리를 소개해볼까 한다.

울트라 슈퍼파워 전라도 우먼.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인 자아를 가진 건강한 인격체, 직장에서 인정받고 대인관계 원만하여 사회생활도 즐겁게 척척 해내

던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체력은 좋은 편이지만 노산에 둘째를 낳고, 큰애까지 케어하다 보니 모든 관절이 너털너털해지고 두피까지 시려온다. 또 지속되는 무기력과 카페인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피로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검사를 해보니 병명이 갑상선기능저하증과 우울증이란다. 부정하고 싶지만 심신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다.

감정노동과 스트레스가 많은 상담업무를 하면서도 퇴근 후엔 힘들었던 감정을 집까지 포장해 오지 않았음에도 퇴근 후 몰아닥치는 집안일과 두 아이 케어는 나의 한계치를 넘어섰다. '그래 해내보자. 난 전라도 여자야. 할 수 있어!'

더 잘 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더 열심히 해! 더 해! 더 잘할 수 있어!'라며 나를 밀어붙였다. 남편은 있었지만 살림과 육아에 방관자였고, 같은 공간에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부는 용기가 없어서 이혼만 못하고 있었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소비했다.

나에게 하루하루는 KO패 당하고 늘 지는 싸움으로 끝나는 복싱과도 같았다. 만신창이가 되어 링 밖으로 나왔다가 여러 가지 잔기술을 익혀 훈련받은 뒤, 또 올라가서 반복되는 싸움을 시작한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보다 버터내는 것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결국 둘째아이를 낳은 뒤, 우울증은 극심해져서 산후우울증 중증 단계까지 이르렀고, 감정조절 능력이 망가져버렸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못 살아내는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다. 육아나 살림에 관심이 없는 남편을 원망하며 현실을 부정하며 살았고, 실패한 인생처럼 절망하고 억울한 감정들을 오롯이 큰아이에게 쏟아냈다. 너무 미안해서 아이와 떨어져 있을 땐 죄책감으로 수치스러웠다. 만나면 잘해줘야지 따뜻하게 안아줘야지 했지만, 막상 만나면 나의 심신이 불안정하다 보니 아이의 느린 행동, 의사전달을 정확히 못하

는 부분 등을 다그치고 짜증 섞인 말투로 가르쳤다. 어찌면 아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행동들인데 말이다. 또 바람 빠진 풍선처럼 무기력해 하다가도, 마치 칼춤 추는 사람처럼 날이 서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등 감정조절이 되지 않았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휴가를 내고 진료를 보았다.

“환자분, 뇌파 검사상 알파, 베타 회로 모두가 붉게 달아올라 있네요. 스트레스, 우울감 수치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 과부하 상태입니다.”

불면증과 피로감을 카페인으로만 버텨내고 있던 나는 몸과 마음이 모두 고장 나고 있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는다는 게 부끄러워서 약을 가방에 깊숙이 숨겨두고 몰래 먹었다. 약을 먹고 나니 잠을 잘 수 있었고, 컨디션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아이의 눈을 보고 미소를 짓게 되고, 아이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하고 싶어졌다. 정말 살고 싶어졌다.

나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는 친구가 주민센터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내가 없을 때 모르는 사람이 집에서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을까? CCTV를 달아야 하나?’

마음이 복잡했다. 양가는 그렇다 치고, 남편조차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이 속상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서 연제구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박영숙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돌보미 선생님은 죽어가던 아니 이미 죽어버린 화분에 사랑과 정성으로 물을 주듯 나를 살려냈다. 내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구세주다. 첫날 오셔서 수첩에 아이와 관련하여 꼼꼼히 메모를 하시고, 몸을 아끼지 않고 아이를 돌봐주시니 무척 의지가 되고 힘이 났다. “아, 죽으란 법은 없구나. 10년 넘

게 혼자 했던 육아를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해주신다니!”

친군만마를 얻은 듯했다. 처음에는 오후에만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오전에도 부탁을 드려 아침저녁으로 선생님을 뵙게 되었다. 가끔 알람소리를 듣지 못해 일어나지 못할 때면 “○○ 엄마, 출근해야지요.” 하고 엄마처럼 다정하게 챙겨주신다. 또한 애들 문제로 고민하면 매번 긍정적인 답으로 아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셨다.

“괜찮아요. 그때는 그런 거야. 어리니까 그런 거죠. 좋게 타이르면 돼요.”

지혜롭게 조언도 해주신다. 육아선배, 인생선배로서 해주신, 짧지만 팩트 있는 말씀들이 나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해주었다. 아이한테 똑같은 언어를 100번은 말해야 아이가 그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아이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 100번은 말해야 아이가 기억하고 행동으로도 옮길 수 있다고 한다. 즉, 똑같은 훈육도 100번을 해줘야 아이가 그제야 이해하고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내심이 아이를 성장하게 한다고 옛 육아책에서 보셨다며 나에게 좋게 타이르듯 알려주신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스를 많이 배워 이제는 단단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믿어주고 지켜주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엄마의 페이스대로 아이를 끌고 오면 안 된다.’는 진리를 지금도 가슴속에 짝 새겨두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나에게는 오은영 박사님보다 박영숙 선생님이 육아전문가이다.

아이들과 라포 형성이 잘 형성되어 있어, 주말이나 선생님이 오시지 않는 날에는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 안부를 궁금해한다. 어느 날 큰애가 말했다.

“엄마, 선생님은 성격이 진짜 좋으신 거 같아. 멋진 선장님 천사 같아. 동생이 버릇없이 굴고 떼쓸 때가 많은데, 화를 내시기는커녕 친절하게 천천히 설명을 해주셔. 그러면 골을 내던 동생도 선생님한테 안겨서 조용해져. 정말 신기하지? 우리 집 사고뭉치를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만들 수 있지? 선

생님은 선생님처럼 우리를 리더해주셔. 그런데 천사야.”

31개월 된 둘째도 질세라 우리 대화에 끼어든다.

“엄마 나도 나도! 내가 선생님이랑 하는 가장 즐거운 놀이는 솔방울 주워 차에 담는 놀이야.”

선생님은 체험 신청을 따로 해야 만져보는 자연들을 아이들이 톡톡이 만져보고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실 뿐만 아니라 설명까지 곁들여 아이들 학습에 도움을 주신다.

어느 날, 나는 선생님께 어쩔 그렇게 여유 있고 지혜롭게 아이를 볼 수 있다고 여쭙보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살기 바빠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못 대해준 것 같아. 돌보미를 하면서 많이 뒤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공부도 더 하게 되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지. ○○ 엄마,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황금기니까 아이들 잘 키워봅시다. 내가 도울게.”

그 말에 어떻게 감동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 영원한 지원군 슈퍼맨 선생님은 진짜 가족처럼 우리에게 점점 스며들었다. 선생님께 받은 사랑과 감동을 어떻게 글로 다 나열할 수 있을까? 항상 앞만 보고 허덕이는 나를 다독여주시고 내 마음의 그릇에 지혜라는 수프를 끓여서 담아주시는 따뜻한 선생님.

선생님은 내가 놓치는 부분들을 조용히 챙겨주시기도 한다. 한번은 큰아이 양말이 많이 헤어져서 구멍이 나서 마땅히 신을 만한 게 없게 되었다. 그걸 보신 선생님은 양말을 사서 아무 말도 없이 식탁 밑에 살짝 두고 퇴근하신다. 다음 날, 내가 발견하여 물어보면, 시장 갔다가 큰애 생각나서 샀다며 별거 아니니 긴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또한 둘째가 좋아하는 홈런볼을 사

서 호주머니에 넣고 출근하시는 선생님.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신다.

“선생님, 이렇게 저와 육아동지가 되어 노를 잘 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오신 후로 전쟁 같은 아침도, 어린이집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혈레벌떡 데리러 가는 일도,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허기져서 과자로 배를 채우게 하는 일도 이제는 안녕이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하원 후에 선생님과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예전에 내가 데려올 때는, 엄마가 올 때까지 기관에만 있다가 엄마랑 곧장 집으로 와서 씻고, 밥 먹고 자기 바빠 놀이터는 꿈도 꾸지 못했었다. 선생님과 할 수 있는 놀이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던 마음도 없어졌다.

하루는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다.

“아이들이 크면 나를 기억해줄까?”

“당연하죠, 선생님. 어떻게 아이들이 선생님을 잊을 수 있겠어요?”

맞는 말이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우리 아이들의 추억에, 마음 속에 깊이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 선생님과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안정적으로 출퇴근을 하며 아이들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건 다 돌보미 선생님 덕분이다. 선생님은 가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하고 조금 늦게 돌아오라고도 말씀해주신다. 감사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다. 1명의 여자를 살리고, 2명의 아이를 지켜주신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나와 아이들에게 온정과 사랑을 넘치게 주셨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허겁지겁 뛰어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는 아이에게 옷을 입혀 열지도 않은 어린이집 앞에서 당직선생님을 기다리

는 일도, 급하게 뛰다 출근길에 넘어지는 일도, 너무 늦은 퇴근 때문에 종종걸음으로 달려가 어린이집 앞에서 헉헉 숨을 몰아쉬며 벨을 누를 일도 없다. 그 중에서 특히 감사한 부분은 내가 이제 수면제나 안정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도 성장하게 된다. 멋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박영숙 돌보미 선생님과 연제구아이돌봄사업팀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돌보미 선생님!

저를 위기에서 탈출시켜주시고 저를 따뜻하게 돌봐주신 슈퍼맨 선생님.

2022년에 만나 23년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계속 뵙고 싶습니다.”

유방암을 함께 극복해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

정 지 유

창원시마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선생님, 제 가슴에 혹이 있대요. 오늘 큰 병원 가서 검사하고 왔어요.”

돌보미 선생님은 무척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침착히 나를 다독이신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결과가 좋을 거예요.”

다음 날

“선생님, 유방암 수술해야 한대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말끝을 흐리며 끝내 울음을 터트리자 선생님도 결국 눈물을 보이셨다.

2022년 9월, 둘째를 출산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나는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2022년 4월, 나는 둘째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첫째의 돌보미를 위해 베이비시터를 알아보던 중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다행히도 신청한 지 며칠이 안 되어 바로 돌보미 선생님이 오셨다.

“내 손주가 5살이에요. 내 손주처럼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미운 4살 첫째와 만삭의 임신부는 그렇게 하여 돌보미 선생님과 인연을

시작했다. 선생님은 5살 손주를 둔 할머니라 하기에는 젊은, 55세 나이였다.

당시 27개월이었던 첫째는 기저귀도 떼지 못한 상태였고 12월생이라 언어 역시 또래 4살 아이들보다 조금 느린 편이었다. 의사표현이 서툴러서 던지거나 소리 지르는 일이 다반사였다. 또한 처음 보는 음식은 절대로 입에 넣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한창 고집 부릴 시기였다.

나는 돌보미 선생님에게 첫째를 떠맡기다시피하고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엄마가 없는 집에서 선생님은 아이에게 인자한 선생님은 물론이고 때로는 친구, 때로는 엄마가 되어주셨다.

둘째를 낳아 집으로 데리고 가던 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첫째를 만났다. 그런데 웬걸? 서툴지만 전보다 감정표현을 많이 하고 발음은 좋지 않았지만, 말도 많이 늘어 있었다. 전보다 먹는 음식도 더 다양해져 있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선생님이 첫째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을지, 그리고 얼마나 큰 노력과 고난이 있었을지 엄마인 나는 안 봐도 다 알 수가 있었다.

사실 아이돌봄서비스를 오래 이용할 생각은 없었다. 둘째를 출산하고 산후 조리원에 있는 동안까지만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가?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몸의 회복이 너무 더디었다. 자질구레한 온갖 병들을 달고 살았다. 신생아를 돌보기에도 급급해서 도저히 첫째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서 돌봄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로 했다. 집에 없는 동안, 첫째의 변화에 무척 만족했기 때문에 계속 선생님을 믿고 맡길 수 있었다. 첫째를 위한 돌보미 선생님이지만 나의 말벗도 되어주셨고, 때로는 친정엄마가 없는 나에게 친정엄마처럼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둘째가 신생아 딱지를 떼고 통잠을 자서 이제 좀 적응이 될 무렵 왼쪽 가슴에 볼록한 것이 만져졌다.

선생님께 둘째도 부탁드리고 병원에 다녔다. 나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단순한 젖 멎침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아직

은 이른 나이인 30대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게 되었다. 입원 전날 저녁, 선생님은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셨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고생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것 같다.

“이번에도 선생님만 믿고 다녀올게요.”

첫째의 돌보미만 하기로 하고 시작했는데 결국 둘째의 돌봄까지 부탁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기꺼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며 걱정하지 말고 수술을 잘 받고 돌아오라고 하셨다. 3박 4일로 예정되었던 수술일정이 하루 늘면서 미리 짜놓은 일정에 차질이 생길 뻔했으나 그 공백을 선생님이 다 메워주셨다. 애들 아빠는 교대근무를 하는 직종이라 갑자기 시간표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에는 아이들을 맡길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작년 12월 한참 항암치료를 하던 중, 나는 첫째가 만 36개월이 되도록 기저귀를 못 떼고 있어서 조바심이 났다. 누적되는 항암치료로 인해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마음은 급해졌다. 나는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 손주를 키우고 계신 선생님은 늦어도 만 36개월이 되면 기저귀를 다 떼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셨다. 그때부터 선생님과 아이의 배변훈련이 시작되었다. 반나절 동안 팬티를 4장씩 버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일주일 남짓 지났을 무렵 선생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보세요. 내가 만 36개월이 되면 다 된다고 말했지요?”

아이를 키우면서 첫 번째 산이라고 생각했던 배변훈련도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다.

암 수술과 4번의 항암치료, 19번의 방사선치료를 마친 지금 2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첫 번째 항암 후 머리를 민 내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시던 선생님. 벌써 선생님과 인연도 1년이 넘었다. 그동안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셔

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나에게도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걱정해주신다. 어쩌면 이제는 가족 같은 느낌이랄까?

“스지가, 스지가!”

첫째가 선생님을 불렀던 호칭이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잘 말하지 못했던 첫째는 이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첫째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려 내가 힘들어하면, 첫째 또래의 손주를 두신 선생님은 지금이 원래 그런 시기라며 이 시기만 지나가면 곧 좋아진다고 나를 위로해주신다. 아들 손주만 키워보신 선생님은 딸인 둘째를 무척 예뻐하신다. 둘째가 뒤집거나 배밀이 하는 등 하나씩 스킬이 늘 때마다 무척 기뻐하신다. 아마도 갓난아기 때부터 자라는 것을 봐서 그런지 더 애정을 느끼시는 것 같다.

저녁 8시,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첫째는 선생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선생님, 가지 마.”라고 사정을 한다.

지난 1년 동안 출산과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소중한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보미 선생님이 있었기에 걱정 없이 큰일을 잘 치를 수 있었던 것 같다.

“선생님, 아픈 엄마의 부족한 자리를 채워주시고 내 손주처럼 보살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의 오랜 꿈, 무조건 셋!

조민주

구로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형제가 어떻게 되니?”

“혼자예요.”

“아이고~, 외롭겠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께 지겹도록 듣던 말이다. 그렇다. 무남독녀 외동딸은 부모님이 주신 사랑과는 별개로 외로운 날들이 많았고, 커갈수록 책임이 막중했다. 혼자여서 쓸쓸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33살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기야~, 우리는 애 셋 낳자. 나는 셋이 딱 좋은 것 같아!”

남편은 설마 하는 표정이었지만 놀라거나 반대하지는 않았다. 본인도 외롭게 컸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나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도전은 시작되었다.

2018년 11월 첫아이를 낳은 그해 우리 가족의 겨울은 혹독했다. 도와줄 시댁도 없고, 군산에 계시는 친정엄마는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라 서울에 거주하는 우리 부부는 단둘이 육아를 해야 했다. 그때 육아의 단맛 쓴맛을 다 느끼며

전우애로 버티면서 부부의 정이 더 깊이 들었는데, 만약 사이가 나빴다면 진작에 백기 들고 서로 아이를 가져가라고 떠넘겼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너무 힘이 들어서 둘째는 생각만 해도 저절로 몸서리가 쳐졌다.

그런 외중에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힘들다고 쉬었다 낳으려다가는 더 못 낳겠구나. 빨리빨리 낳는 것이 방법이다!’

지금 되돌아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맞다.

나는 그렇게 겁도 없이 출산 후 1년 쉬었다가 다시 임신하는 방식으로 둘을 더 낳았다. 지금은 아이가 하나보다는 둘일 때, 둘보다는 셋일 때 더 행복하다고 자부하고,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이에게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지만, 2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 모유 수유로 인해 잠도 못 자고 새벽마다 여러 번 깨야만 했고, 내가 선택한 삶이라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하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지나가는 어른들이 아이 셋을 데리고 가는 나를 보고 “애국자네, 애국자야. 상 줘야 혀~!”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상을 받을 일도 아니지만 만약에 누가 내게 상을 준다면 그 공을 아이돌봄서비스에 돌리고 싶다.

둘째의 돌 무렵, 체력이 한계에 다다라서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을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어 부랴부랴 신청을 했다. 수화기 너머 들리는 친절한 이용방법 안내와 누군가가 방문할 것이니 기다리라는 희망의 멘트는 기댈 곳 없던 내게 오아시스 같았다. 그렇게 만나게 된 분이 한순희 선생님! 마치 친정엄마처럼 우리 아이들을 본인의 손자, 손녀처럼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몇 년간 지칠 대로 지친 내게도 진심으로 위로와 칭찬으로 용기를 북돋아주셨다.

사실 나의 진짜 친정엄마는 딸을 너무 사



량한 나머지 딸이 고생할까 봐 아이 셋 낳는 것을 당연히 반대했고, 더 큰 문제는 본인도 인정하듯 육아에 전혀 소질이 없으시다는 것이다. 내가 잠투정이 심하고 까탈스러운 아이였다고 평생 말씀하셔서 늘 친절엄마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아이 셋을 낳아보니 아기들은 모두 때때로 잠투정을 하고 저마다 예민한 부분이 있다.

이때 양육자가 어떻게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가도 중요한데 한순희 선생님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깨달았다. 특히 첫아이의 경우에는 내가 늘 임신 중이어서 놀아달라고 해도 놀아주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지쳐 있을 때가 많았다. 아이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을 선생님이 맡아주셨다. 선생님께서는 놀이에 참여할 때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을 다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셔서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만족감을 주셨다. 그 덕분에 아이가 나로 인해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시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앞서 말했지만 둘째가 돌 무렵 한순희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나에게 남은 숙제가 있었다.

바로 ‘특명! 셋째를 임신하라!’였다.

사실 나는 ‘공부가 쉬웠어요!’가 아니라 ‘임신은 쉬웠어요!’라고 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척척 임신이 되는 것이 문제 아닌 문제였다. 2018년 11월 첫째를 낳고, 2020년 9월 둘째, 2022년 8월 셋째를 낳았다. 육아의 고통에 비하면 임신이 너무 잘되어 마치 운명인가 싶었다.

셋째를 임신하자 센터에 부탁드려서 한순희 선생님이 안 계시는 평일 저녁에 애들을 봐주실 분이 계신지 문의했다. 한 달 후 손성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첫째가 미운 4살 시기였는데, 아이가 졸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선생님을 만난 기쁨까지 더해져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엄마 마음도 모르고 엉덩이에 뽀뽀 난 망아지처럼 마구 날뛰는 것이 너무 민망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선생님이 도망가시면 어떡하나 싶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진땀이 났다. 아이를 목욕시키며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하고 혼냈다. 목욕을 끝내고 나오니 선생님이 아이가 처음 만나서 그런 거라며 혹시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해도 괜찮으니 편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해주셨다. 나의 난처한 상황을 이해해주시는 마음이 감사하고도 죄송했다.

한순희 선생님이 친정엄마 같다면 손성분 선생님은 든든하고 따뜻한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위험한 행동도 하고 부딪히는 일도 잦아졌다. 나 또한 천사 같은 엄마가 되겠다는 다짐을 잊어버리고 분노의 질주를 찍을 때 선생님께서 늘 중재하고 잡아주신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이들을 지키고, 옳고 그름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시면서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방법도 제시해주시니 가족의 평화가 지켜졌다. 선생님의 현명한 판단과 돌봄 덕분에 셋째도 무사히 태어났고, 산후조리도 편하게 할 수 있었다. 고만고만한 아이들 셋과 함께하는 육아는 바쁘고 힘들지만 아이돌봄서비스로 인연이 된 두 분이 계셔서 늘 든든하고 힘이 된다.

남편과 자영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 중 1종 대형면허에 도전하게 되었다. 18년 동안 장롱면허인 내가 버스 운전에도 도전하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우리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두 분 선생님께서 마치 본인 일처럼 생각해주시고, 아이들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덕분에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해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같이 비빌 언덕이 없는 부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곳이었고, 앞으로 그걸 것이다. 주변에 첫아이를 낳고 복직문제나 양육공백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에게 나는 늘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천하고 설명해주는 데 의외로 모르는 엄마들이 많아서 안타깝다. 꿈을 실제로 이루기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경험해본 나로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용자와 돌보미 선생님 사이의 중간역할을 해준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모니터링도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 대 사람의 일이라 서로 실수할 수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맞춰가며 아이들에게 양육공백을 채워줄 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도현,
소연, 지호야, 너희들은 나의 꿈이고
희망이야. 사랑해!”



7년의 동행, 엄마의 마음케어 서비스

조윤희

영등포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남한테 아이를 맡겨도 될까?”

“그래도 정부기관이니 괜찮지 않을까?”

2017년, 나와 남편은 아이돌보미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다. 친정부모님은 안 계시고 시부모님은 멀고 먼 지방에 계신 탓에 우리는 어찌저찌 남편과 둘이서 좌충우돌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돌이 되었을 무렵, 나는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다.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으므로 정부기관이라는 점을 믿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했다. 그때만 해도 어린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던 시절이었다.

그날 이후 7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서 두 아들을 키워냈다고 말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 서비스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고맙고 의미 있는 제도였다.

내 핸드폰에는 그동안 와주셨던 10명 선생님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평일, 주말, 저녁 가리지 않고 정기 돌보미, 일시 돌보미를 번갈아가며 이용하다 보니 영등포구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가정을 방문하셨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연계해주는 가족센터 담당자와 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고,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다.

제도 초반에는 조금 불편했던 온라인시스템도 해가 갈수록 업그레이드되어 지금은 전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나는 주변 엄마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 권유하기도 한다. 상황이 급할 때 문의를 하면 담당자 선생님이 한나절 만에도 연계를 해주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애써주실 때는 너무 고마워서 볼 수도 없는 전화기에 대고 수없이 꾸벅꾸벅 인사를 한다.

돌보미 선생님들은 연령대도, 스타일도 다 달랐지만 각자의 방법과 장점으로 우리 두 아들을 돌봐주셨다. 이제 6살, 8살이 된 아들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선생님 오세요?”부터 물어본다. 가끔 나의 휴가로 쉬게 되면 아이들은 “에이, 선생님 보고 싶은데...”라며 아쉬워한다. 일하느라 소진된 엄마를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에너지와 애정을 불어넣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나는 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버거운 시기에도 양가 도움 없이 심리상담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 올해는 경력을 바탕으로 종일 근무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출근 준비와 아이들의 식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아침 7시만 되면 어김없이 ‘똑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선생님이 밝은 미소를 띠고 들어오신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을 반갑게 맞은 뒤 놀잇감을 손에 들고 달려간다. 선생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춰주면서 반응해주신다.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이들은 기꺼이 나를 보내준다. 만약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마음 편히 출근길을 나설 수 있었을까?

돌보미 선생님이 없었다면 아마도 일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둘째를 선생님께 맡기고 과감히 출근했으니까. 선생님은 둘째가 품

에 쪽 안겨 들어온다면서 주말에 보지 못해 무척 그리웠다고 말씀해주신다.

돌봄 도중에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선생님이 구해질 때까지 먼 거리를 와주셨던 고마우신 분도 계셨다. 스케줄상 다른 가정으로 가시게 된 후에도 프로필을 보시곤 커가는 아이들의 사진에 반가워하며 안부 문자를 주시는 분도 계신다.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느낄 때면, 일 그 이상으로 아이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주시는구나 싶어 친정이 없는 나로서는 마음이 뭉클해진다.

한창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야말로 도둑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우리 집에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과 눈 맞추고 놀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계절에 따라 쉽게 우울해지는 나의 정서에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마치 마라톤을 하듯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곤 했다. 전투와도 같은 일상, 밥 먹이고 재우고 아이들을 보내고 데려오는 반복되는 매일 속에서 나의 마음과 몸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느껴질 때면, 주말 긴급 돌보미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유익했다. 선생님과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현관에서 나를 기쁘게 맞아주었다. 나 또한 짧은 외출을 통해 남편과 대화도 나누고 산책도 즐겨,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을 다시 정성으로 대할 힘이 생겼다.

그렇게 짧은 횃수를 와주신 선생님들조차도, 돌아가실 때면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네요.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포스트잇에 오늘 했던 놀이와 일과를 자세히 써서 붙여놓고 가셨다. 한 분 한 분의 강점은 다를지라도, 각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에 믿음을 갖고 어떤 분이 오시든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변화는 워킹맘에게는 재앙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던 둘째는 열이 나거나 약을 먹어야 할 경우에는 무조건 등원 거부를 당했

다. 어린이집 앞에서 순간적으로 아이의 열이 나면 워킹맘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 출근은 해야겠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어찌어찌 하여 약속된 돌봄 시간을 조정하여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선선히 나오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이 구세주세요! 빨리 조퇴하고 올게요.” 하는 말이 절로 나왔다. 아프면서 크는 것이 아이들이라지만 이런 경우를 겪으면 회사와 어린이집, 돌보미 선생님 모두에게 죄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멘탈이 흔들리곤 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그냥 다 관두고 집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곤 한다. 조퇴를 하고 돌아와 보면, 아들은 열이 나면서도 선생님과 재미있게 놀아서 기분이 좋다는 듯 웃는 얼굴로 맞아준다. 돌보미 선생님 또한 아이가 다행히 잘 있었다며 서둘러 돌아온 엄마를 위로해주신다. 워킹맘에겐 이게 가장 따뜻한 미소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여러 번의 위기를 넘기면 아이들은 점차 자라면서 병원 가는 횟수도 제법 줄어든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똑같이 겪고 있는 젊은 엄마들을 보면 “조금만 버텨보세요, 힘내세요. 함께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나는 여전히 좌충우돌하는 두 아들의 워킹맘이지만, 같은 워킹맘을 위로하는 심리상담사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나에게 이 말의 의미를 와닿게 해준다. 돌보미 선생님 가운데는 가까운 곳에서 걸어오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한동네에서 이렇게 능숙하고 친근한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돌보미 선생님은 아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무척 중요한 존재인 엄마의 마음도 돌보시는 분들이다. 혼자 아이들을 케어했을 때는 출근길에 전쟁터처럼 어지러진 집을 퇴근길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퇴근 후

에 돌아와보면 돌보미 선생님이 정돈해놓고 간 거실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수기를 쓰며 7년의 육아여정을 돌아보니 우리 집에 와주셨던 선생님 한 분의 얼굴과 이름, 목소리가 떠오르며 가슴이 포근해진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모든 돌보미 선생님과 담당자분들께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승민이가 꽃이 예쁘다고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전해
달라고 해서 한 장 찍었어요.
ㅎ



꽃이 개화하던 4월 어느 봄날,
선생님이 문자와 함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등교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엄마 맘을
달래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는 매일 점심 같이 먹는 사이

최 연 희

청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는 우연한 기회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임신부인 내가 청주보건소 문을 밀고 들어가니 바로 옆 책상 위에 아이돌봄 서비스 팸플릿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임신한 쌍둥이 말고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갓 돌이 지난 첫째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쌍둥이를 낳고, 1달 정도 산후돌보미서비스를 받았다. 나는 그곳에서 엄마 혼자 3자녀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청주가족센터에 돌보미 선생님의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현재 활동 중이었고, 쌍둥이 자녀뿐만 아니라 첫째와 엄마인 나도 돌봐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선뜻 나서는 선생님이 없었다. 우리 사정을 십분 이해했던 연계 담당자분은 청주시에서 활동 가능한 선생님을 적극 알아봐주셨고, 덕분에 돌보미 선생님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나는 난이도 최상인 육아를 맡기게 되어 죄송했지만, 돌보미 선생님 두 분은 마치 자기 자녀인 것처럼 성심껏 돌봐주셨다. 아마도 그때의 고마움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 선생님은 내 나이 35살에

만난 최고의 베스트프렌드였고, 두 번째 선생님은 빨리 할머니가 되고 싶은 돌보미 선생님이셨다.

연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상대인지 알아보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함께 지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첫 번째 돌보미 선생님과 사계절을 함께 지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잘 놀아주셨다. 아이들에게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놀잇감을 통해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주셨다. 나는 집안일을 병행해야 했으므로 육아에 한계가 있었다. 내가 집안일을 할 때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전담하여 놀아주셨다.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나보다 아이의 기질과 특성을 오히려 더 잘 알아서 내가 아차 싶을 때가 더 많았다. 선생님은 아이와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난 뒤에는 아이의 반응이 어땠는지 나에게 자세히 말씀해주셨다. 그 덕에 나도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8개월이 되었을 무렵, 쌍둥이 딸이 이유식을 잘 먹지 않았다. 선생님은 그 아이가 유산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밥 위에 유산균을 조금 뿌려 먹이셨다. 현재 20개월인 딸에게 그 밥을 먹이면 절대로 안 먹을 텐데, 그때는 아이에게 그것이 최고의 음식이었나 보다. 나는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지 못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책을 많이 읽어주시고, 책을 이용한 놀이도 고안해내셨다. 그 덕분에 쌍둥이 딸은 지금도 책을 즐겨 읽는다.

아이들은 피부에 상처가 나면 금방 나아서 회복력이 빠른 반면 면역력은 약한 편이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 대체로 감기를 달고 살게 된다. 나는 한 달도 안 된 쌍둥이가 콧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는 엄마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후 6개월까지는 잘 아프지 않는다고 육아책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째가 어린이집에서 감기 바이러스를 옮겨오는 바람에 아이들 모두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세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을 수가 있었다. 선생님은 아들딸을 키운 경험이 있어서 약 복용법이라든지 자녀를 키우는 노하우를 잘 알고 계셨으며 나에게도 많이 알려주셨다. 초보엄마가 보기에든 육아책에 나오는 설명과 아이를 키우는 실전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선생님은 아이의 기침소리에도 작은 변화를 느끼시고, 콧물도 어떤 종류인지, 또 컨디션은 어떤지 세심히 살펴봐주신다. 내가 무심코 지나칠 경우에는 “둘째의 감기가 조금 더 악화된 것 같으니 진료를 받자.”고 권유하신다. 그 덕분에 아이의 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고생도 덜하게 되었다.

여름감기 때문에 선생님께 죄송했던 일이 있었다.

작년 여름도 무척이나 더웠다. 나는 감기에 걸려 콧물을 줄줄 흘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에어컨을 켜지 않아야 했고, 더위를 잘 타시는 데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일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는 에어컨을 켜야 한다는 내적 갈등을 일으켰다. 고민 끝에 리모컨을 들고 에어컨을 켜려고 하자 선생님은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는데 에어컨을 켜다니, 절대로 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다. 그 말에 죄송하기도 했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선생님의 마음이 감사하기도 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점심시간은 정말 꿀 같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집에서 오전, 오후 시간을 함께 보냈으므로 점심도 함께 먹었다. 혼자 있었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점심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이 준비한 도시락에 내가 집에서 내놓은 반찬으로 늘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나는 초보엄마이기에 할 수 있는 음식이 제한적이었지만 선생님은 워낙 음식을 맛있게 잘하시어서 선생님의 반찬을 많이 빼앗아 먹었다. 선생님의 반찬을 살펴보고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음식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불고기조차 어려운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반찬과 국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된 것이다. “○○ 엄마 조금 싱거운 것 같아. 이럴 때는 까나리액젓을 넣으면 좋아.” 하며 실력이 늘었다고 무한 칭찬을 해주셨다.

두 번째 선생님과 인연은 첫 번째 선생님이 하루 종일 쌍둥이를 보시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실 것 같고, 또 선생님이 퇴근한 후에 나 혼자 아이들 셋을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모신 경우였다.

두 번째 선생님의 돌봄은 우선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첫째를 집으로 데려오는 데서 시작되었다. 선생님은 첫 번째 선생님과 쌍둥이를 각각 한 명씩 맡아서 돌보다가 첫 번째 선생님이 퇴근하고 가시면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돌보았다. 아이들은 저녁시간에 더 활동이 왕성해지는 것 같았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아이들과 놀아주고 보듬어주셨다. 선생님은 마치 친손자, 친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몸짓, 말, 표정 하나하나 귀 기울여주시고 먹을 것을 하나라도 더 나눠주시려고 하셨다. 아이들이 아파서 먹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식사 지도를 해주셨다.

나도 사람인지라 아이들을 사랑만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몸과 마음이 지쳐 한껏 예민해져 있을 때는 생떼를 쓰는 아이들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혼을 내고 말았다. 그러면 선생님은 특유의 마법을 부려 집 안 분위기를 바꿔놓으신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지내는 것이 꽤 벅차기도 하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면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게다가 가끔 남편과 다툰 뒤 하소연이라도 하면 선생님은 경청해주시고, 해결책도 알려주신다.

남편은 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말했을 때, 집 안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이 마치 가족같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만약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세 자녀를 키울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나와 남편은 이 서비스 덕분에 육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이들과 즐겁게 웃으며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다. 남편에게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물어보니 엄마인 나에게 자유시간을 주셨다며 선생님과 아이들을 돌봤던 일이라고 한다. 남편은 어색해서 선생님과 함께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과 놀이하는 노하우를 잘 가르쳐주셨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도 제법 아이들과 잘 놀아주게 되었다.

두 선생님과 추억이 셀 수 없이 많지만 다 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센터 선생님, 돌보미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다시 가슴 뛰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재 경

연수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현재경 대리님, 진급 축하드려요.”

“이번 연구결과 성과도 참 좋게 나오셨던데요?”

복직 후 이룬 성과였다. 직장 선배와 동료, 후배들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돌보미 선생님이 생각났다.

‘그분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약회사에 다니며 커리어를 쌓던 나는 축복받은 결혼을 한 이후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았다. 오랜 기간 난임센터에 다니며 노력하던 중 드디어 첫아이를 갖게 되었다. 간절히 원했던 만큼 기쁨도 컸다. 하지만 아이를 낳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엔 심한 입덧, 중기엔 임신성 당뇨, 후기엔 조산될 위험마저 있었다.

평소 일에 대한 자부심과 즐거움이 매우 컸지만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어렵사리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첫째아이가

태어났다.

‘잘 키워보자!’ 하는 자신감과 의지로 매일 ‘육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열하게 살았지만, 공부나 일과는 다르게 육아는 노력한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도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 아기는 예민한 성격인지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울어대기만 했다. 우유를 배불리 먹여 놓아도 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내 품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겨우 재워서 아기침대에 내려놓으면 바로 깨서 칭얼댔다. 너무 아기를 안아서 팔도 아프고,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었다. 나는 육아에 점점 지쳐갔고, 의무감으로 아이를 돌봤다. 어느 날 아기와 눈을 맞추거나 놀아줄 생각도 없이 아기가 잠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괴감이 들었다. 어쩌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직하길 잘했다.”, “승진했다.”며 직장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저들은 나랑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직장생활을 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그들이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아기만 돌보다가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그래서 속상한 나머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울었다.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육아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승진과 성과우대가 주어지는 복직 제안을 해왔다.

‘와, 나도 이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기쁜 마음에 큰 용기를 내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그만 둘째를 임신한 사실



을 알게 되었다.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걸 아이가 알고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나는 전부터 아이를 3명 낳겠다고 다짐해 왔는데, 오랫동안 난임으로 고생하는 바람에 그 일을 잊고 지내고 있었다.

‘그래, 기적에 가까운 자연임신을 했잖아. 이걸 축복이야. 다시 힘을 내서 잘 키워봐야지. 이번에는 육아로 고생하지 말고 육아를 도와줄 분들을 찾아보자.’

나는 출근을 산후 뒤로 미루고, 첫째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일찌감치 출산과 육아 준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신 데다 지방이라 너무 멀고, 시댁 어른들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부모님을 제외하니 남은 ‘육아동지’는 남편뿐이었다. 남편은 내가 존경하는 직업을 가진 ‘소방관’이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잦은 비상근무로 정작 필요한 순간에 없을 때가 많아, 존경은 원망으로 바뀐 지 오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야근이 잦았고 육아 참여도도 낮은 편이라 아이는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했다.

몇 개월이 지나 둘째가 태어났다. 낳고 보니 우량아였다. 아이를 한 명 더 낳았으니 육아가 두 배로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1+1은 2가 아니라 10이구나.” 하는 탄식과 함께 한 생명의

탄생이 가져다주는 삶의 무게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나의 바닥난 체력과 우울증을 염려한 남편은 육아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기 위해 현장활동 부서로 옮겨



육아를 도왔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나날이 지쳐갔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친구의 소개를 받고, 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아이돌보미를 신청했다.

2022년 4월 어느 날, 드디어 돌보미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 되었다. 나는 아직도 그분을 처음 만난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둘째아이는 예민한 성향으로 많이 보챘으며, 배앓이와 잠투정도 첫째 때보다 훨씬 심했다. 체중도 많이 나가서 산후도우미 선생님들이 아이를 돌보다가 몸살이 나서 기간을 못 채운 채 그만둔 적도 있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도 첫날부터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아이가 조금만 순하게 있어주면 돌봐주시겠다고 하지 않을까?”

나는 의사소통도 안 되는 둘째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둘째는 평소보다 더 악을 쓰며 울어댔고, 나와 선생님을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게 했다. 다음 날부터 오지 않겠다고 하셔도 이해가 될 법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집을 나서면서 처음 집에 들어오실 때와 같이 넘치는 에너지로 웃으며 “내일 뵙요.”라고 하셨다.

‘내일 오신다고? 아, 이분은 천사이시구나. 나의 구세주야.’

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돌보미 선생님은 아이가 아무리 보채고 울어도 귀찮아하는 기색도 없이 아기를 잘 달래줄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셨다. 그리고 현관문을 들어설 때도 항상 밝은 목소리로 “오늘도 ○○이랑 재밌게 놀려고 왔어요.”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이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둘째를 돌보는 게 느껴졌다.

둘째는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고 무럭무럭 자랐다. 선생님이 집에 오면 둘째는 내 품에 안겨 있다가도 별책 일어나 선생님께 아장아장 달려가 안긴다. 그 모습에 서운함보다는 ‘얼마나 잘 보살펴주셨으면 아이가 저렇게 선생님을 좋

아할까?’ 하고 늘 감사한 마음이 든다.

선생님과 상의 끝에 회사에 복직하기로 결정했다. 선생님은 나의 재능과 기회가 아깝다며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정해주셨고, 나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셨다.

선생님의 지지에 힘입어 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 “현재경 주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부장님이 인사를 건넸다. 그때 깨달았다. 선생님은 나를 육아의 늪에서 꺼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도 찾아주셨다는 것을.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첫째와 둘째를 모두 선생님께 맡겼다. 아침에 두 아이가 평온하게 눈을 뜨고 입가에 미소를 보일 때면, 이런 행복감으로 출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놀랍기만 하다. 모두 선생님의 노고 덕분이리라. 첫째아이는 가족여행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돌보미 선생님을 떠올리더니 선생님 이야기를 마구 늘어놓는다. 그만큼 선생님이 아이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노고에 보답할 길이 없겠지만, 수기 공모전이라는 기회를 통해 비록 서툰 표현이나마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

“선생님, 덕분에 ‘엄마’ 역할과 직장생활을 모두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다시 제 이름으로 가슴 뛰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연심 선생님, 사랑합니다!”



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강 원 자

함양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010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던 나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해서 정년퇴직 후에는 제2의 인생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때마침 퇴직하기 2년 전에는 운 좋게도 아이돌봄사업팀으로 부서를 이동하여 아이돌보미 담당자를 맡았다. 그곳에서 아이돌보미가 가져할 소양이라든지 자세, 역량, 마음가짐 등을 틈틈이 배우고 나서, 2020년 퇴직한 그해 9월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되었다. 비록 아이돌보미 경력이 짧아서 부족하고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동안 만났던 많은 가정의 아이들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싶다.

삼 남매는 부모의 이혼 뒤,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을씨년스럽게 추운 초겨울 날씨에 눈까지 하염없이 내리던 날, 아이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첫째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는 6살, 셋째는 4살이었다.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져 지내서인지 더 추워 보였고 불안해 보였으며, 낯선 사람의 방문에 호기심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도 적대시하는 표정을 지었다.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자상한 손길과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내가 책임자라고 느꼈다. 비록 엄마의 정을 온전

히 채워주지는 못하겠지만, 아이돌보미의 역할을 넘어 내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정을 듬뿍 쏟아주는 자상한 할머니가 되리라 마음을 먹었다.

삼 남매 아빠는 업무 중에는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어느새 내 휴대폰은 서비스 지원 시간과는 상관없이 삼 남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선생님들이 크고 작은 일로 급할 때 찾는 전용 전화 이상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날도 막내가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돌보미 선생님! ○○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가 열이 나서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어찌죠? 와주실 수 있나요?”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허사였다. 급한 마음에 유치원으로 곧장 달려가서 막내를 데리고 소아과 진료를 본 뒤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막내는 열이 떨어지지 않고, 열 경기로 발작까지 일으켰다. 놀란 마음에 허둥지둥 119를 불러 진주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막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빠가 막내를 간병하고, 첫째와 둘째는 2박 3일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자연스레 정이 들기 시작했다.

미소가 예쁜 막내는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을 가졌는데, 제대로 된 보살핌과 양육을 받지 못해 5살 때까지도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배변훈련을 시키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6살에는 기저귀에서 자유로워졌다.

“선생님, 나 또 황금 똥 누었어요, 참 잘했죠?”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대견해하는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기특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워 표현이 많이 서툴렀던 둘째는 어느 날부터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마다 머리 위로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선생님 사랑해요!” 하고 말한다. 둘째가 처음 이 말을 한 순간에는 가슴이 뭉

클하면서 아이돌보미에 보람을 느꼈다. 그 후로도 둘째는 기분 좋을 때마다 하트를 보냈는데, 나에게서는 ‘선생님, 저는 사랑이 많이 부족해요.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라는 시그널로 느껴져 가슴이 시리고 아렸다.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된 휴대폰에는 둘째가 나를 ‘좋은 돌보미 선생님’으로 저장해 놓았다. 나를 좋은 선생님이로 여겨주다니 감사하고 보람이 넘친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보듬어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되뇌었다.

엄마와 헤어진 상처가 깊었던 첫째는 첫 대면 때부터 심한 거부감을 보이며 “선생님 이제 집에 오지 마!”라는 말을 자주 했다. 대인기피증 경향을 보이던 첫째는 사람과의 소통을 어려워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이 거의 없었던 1학년 때도 몇 번 등교하지 않는 학교에 가기 싫다며 늘상 지각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석도 했다. 학교 담임선생님이 “등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런 첫째가 나를 통해서 어른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되면서 서서히 변화했다. 4학년이 된 현재는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성격도 많이 밝아졌다.

며칠 전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감사의 전화가 걸려 왔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는 학교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적극적인 학생이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힘겹고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면서 그래도 아이돌보미로서 역할이 헛되지 않았고, 수고를 인정받고 보상받은 것 같아 자부심이 생기고 마음이 뿌듯했다. 앞으로도 이용자 가정지원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아이들 곁을 지켜주고 싶다. 삼 남매가 바르게 자라고, 훌륭한 인격체가 될 때까지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향기 없는 여자로 생활한 지 7년차다.

김승경

서초구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나는 어느 가정을 가든 여전히 향기에 대해 긴장한다.

돌보미를 하기 전 직장을 다닐 때는 타인을 배려해 기분 좋은 향을 찾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좋은 냄새도 안 된다. 밀폐된 공간, 때로는 아주 협소한 실내에 들어갔을 때 그 불편함을 스스로 알아챘기에 샴푸향 흔적마저도 전날 저녁에 미리 머리를 감아 지운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향기 없는 여자로 살아가고 있다.

신학을 배우고 교회에서 30년간 사역을 마친 뒤 마냥 자유로웠던 나는 그동안 받은 사랑을 베풀고자 서초구청 민원실에 들러 직원에게 살며시 물었다.

“혹시 제가 사회에 보탬이 될 일은 없을까요?”

간단한 경력사항을 묻고 기회가 오면 연락해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그렇게 잊고 살았다.

어느 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가려던 그때 아이돌보미 교육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 “자식 키우기도 벅찬데 하물며 손주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친구들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

해 하고자 했던 모든 일을 접고 교육에 참석했고 현장실습까지 마쳤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돌보미가 되었다.

나의 첫 출근 그리고 첫 만남의 주인공은 교육을 위해 서초로 갓 이사 온 남매가 있는 가정이었다. 얼마 동안은 문제없이 학교와 어린이집으로 등교, 등원을 하였는데, 3월 중순이 되자 큰아이가 등교를 거부했고 엄마와의 분리불안으로 마음의 병까지 생겼다. 알고 보니 이 문제로 미술치료 같은 부모님의 안타까운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이와 친해지면서 엄마의 허락을 얻어 돌보미 일정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시간을 마련했다. 여러 차례 남매를 데리고 영화를 보거나 박물관, 고궁 등을 다녔다.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 저 너무 속상해요.”

큰아이는 겉으로는 동생을 잘 돌보는 책임 있는 누나였지만,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동생에게 가게 되면서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누나라는 책임감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아이가 쏟아내는 울분을 지켜보며 나도 가슴이 쓰렸다.

아빠 엄마가 되고 나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낯설고 어렵다. 부모님에게 양육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싶었다. 아빠의 훈육 방식과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 변화가 필요해 보였다. 가족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구축하고 수시로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부모님의 노력과 배려를 부탁했다. 그 후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뀐 큰아이는 동생에게도 너그러운 누나가 되었다.

이렇게 3년간 돌봄을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나의 첫 돌봄가정을 다른 돌보미 선생님에게 인계를 하고 아이들과 헤어졌다. 물론 그 후에도 아이들과 종종 만났고, 얼마 전에는 아이들 엄마를 만나 큰아이가 원하는 중학교에 입학하여 어여쁜 여학생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내가 두 번째로 돌본 아이는 까맣고 큰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던 5개월 된 사내아이고, 아이와의 첫 만남을 잊지 못한다. 엄마와 함께 아이 방에 들어서자 방금 깨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닌가? 젖은 기저귀를 빼니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두 다리를 쭉 뻗는데 내 가슴이 ‘쿵!’ 하며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모든 피로가 가시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가 손가락을 펴며 기지개를 크게 켜는데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마음속에 평안함과 안도감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맺은 귀한 인연을 3년간 이어가며 나 스스로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다. 모르는 것은 시도하지 않는 신중한 기질의 아이와 함께 날마다 놀이를 하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았지만 그 가정이 이사를 가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종종 소식을 전해 듣는데, 그 사내아이는 지금 영어유치원에 서 인기 폭발이란다.

오전 2시간만 활동할 때는 아픈 아이의 가정을 가게 되었다. 돌이 조금 지난 아기였는데 수두로 어린이집에 못 가서 15일 동안 함께 지냈다. 둘째 날 골목을 들어서는데 “하모니~ 하모니~!” 소리가 나서 앞을 쳐다보니 열린 창문 안 쪽에서 아빠의 품에 안겨 나를 향해 방긋 웃고 있는 아이가 보였다.

그날 이후 날마다 내가 올 시간이 되면 할머니를 외치며 창가로 가자고 아빠를 졸랐다고 한다.

“하모니~!”

하루는 기저귀 옆으로 오줌을 흘린 아이가 나를 쳐다보며 불렀다. 나는 아이를 씻긴 뒤, 마른걸레로 바닥을 닦고 욕실에서 빨랫비누로 걸레를 빨았다. 그 가정을 떠나고 한참 후에 아이가 비누칠을 하며 걸레를 빠는 흥내를 내면서 하모니를 찾는다고 사진과 함께 소식을 전해왔다.

헤어지는 날, 엄마는 아이와 함께 백화점에서 작은 선물을 골랐다고 답례를

했다. 이때도 아이가 “하모니~!”를 외치며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선물을 직접 골랐다고 했다. 나는 사랑 한 조각을 아이와 나누었을 뿐인데 아이는 자기가 가진 사랑을 온 마음으로 내게 주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행복하지만 아찔했던 순간도 참 많았다. 어느 날 다급한 아빠의 요청에 오전 일정을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간 가정에는 3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다. 출근해야 하는 아빠는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굴렀다. 열이 펄펄 끓어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아이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고열이 나는 수두가 찾아온 것이다. 선생님이 오셨다는 아빠의 말에 아이는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나는 얼른 세숫대야를 찾아 찬물을 받아왔다. 얼굴을 씻기고 물놀이를 했더니 다행히 30분 뒤 정상체온을 찾았다. 부모가 없을 때 이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땠을지 참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내 모습이 젊은이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교회 청년들이 인사치레로 아름답다고 해주는 격려의 말도 사실이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싶다. 신앙의 유산으로 평생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나를 아이들에게 보낸 것 같다. 아침마다 설렌 마음으로 집을 나오고, 오후에는 다시 한 번 샤워를 하고 내게 와준 아이들을 맞이한다. 잘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된 아이들이 이 사회의 단단한 기반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도 ‘향기 없는 여자’는 정성껏 아이와 눈을 맞추며 놀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두 시간의 큰 힘, 변화

김 주 리

청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다.”

대학교 첫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그림자조차 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아침 일찍 차를 타고 돌봄활동을 나섰다.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붉은 등으로 바뀌고 차가 멈추자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조잘거리며 횡단보도를 지나간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역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어린이집 교사들의 모임에서 내가 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언니가 내게 아이돌보미를 적극 추천했다. 보육교사로 있을 때에는 수많은 서류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서 오직 아이들만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지만 아이돌보미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

‘그래?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1명이 영아 10명 정도를 돌보았는데, 한두 명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이런 생각에 아이돌보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내가 어린이집을 퇴사한 후 눈을 돌릴 만한 곳은 노인복지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 편에선 여전히 아이를 향한 열망이 있었다. 경쟁률이 심하다는 이야기에 조금 걱정도 되었지만, 아이돌봄센터에 문을 두드렸다.

며칠 후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선생님, 센터예요. 원하는 이용자님이 있는데, 그분은 목욕과 식사만 제대로 해주길 원하시네요. 아이가 편식도 심하고 낮도 많이 가린대요. 어린이집 하원을 시작으로 두 시간 동안 가정에서 아이를 혼자 돌보는 일인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저희가 할 일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아이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다.

나는 아이엄마와 함께 유치원에 가서 하원 하는 아이를 맞았다.

“○○야, 안녕! 반가워. 오늘부터 ○○랑 함께 놀이할 선생님이야.”

낮을 많이 가린다면 아이는 웬일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곧바로 내 손을 잡았다. 그 모습을 본 어린이집 선생님과 엄마는 무척 놀랐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도 다른 반 선생님과과는 눈도 안 마주치고 손도 잡지 않는다고 했다. ‘나의 손을 잡아줘서 고마워!’

아이의 부모님은 직장이 멀어서 퇴근 후 바로 돌아와도 7시가 넘는다고 한다. 곧바로 저녁을 준비하고 밥을 먹고 목욕을 시키다 보면 저녁 9시를 넘기는 일이 다반사고,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에 아이가 영상물에 빠져 있어 고민이라고 하였다.

부모님이 내게 원하는 건 목욕과 저녁식사. 특히 편식이 심해서 입맛에 안 맞으면 음식을 뱉고, 좋아하는 것만 먹는데 국도 먹지 않아 고민이라고 했다.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이를 정도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아이와 꽤 친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하원시키는 데도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나설 때 엄마가 아니라서 조금 멋쩍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아이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었다.

하원 후, 가까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며 놀고, 산책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곧바로 손을 깨끗이 씻고 옷을 벗어 정리하게 한 뒤, 환기를 시켜 집 안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었다. 엄마가 준비해 놓은 간식을 먹인 다음, 동화책을 구연동화식으로 읽어주었더니 아이가 무척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잡을 때마다 함께 놀아주고 정리하면서 기본 생활습관도 익히게 하였더니 집 안에 들어오면 으레 리모컨부터 찾아 건네주던 예전의 모습은 사라졌다.

또한 목욕을 할 때면 울며불며 안 하겠다고 떼를 쓰던 아이가 이제는 물 받는 소리가 나면 스스로 옷을 벗고 아기상어 물총을 가지고 목욕탕으로 향한다. 부모님의 요구대로 목욕 후 로션을 듬뿍 발라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었더니 가려움도 점차 사라지고 아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는 좋아하는 색칠놀이를 하면서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였다. 식사가 준비되면 어린이집에서처럼 식사기도를 하고, 오늘의 반찬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면서 아이가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는 처음에는 식사의 반 정도를 뱉어내면서 편식이 무척 심했지만, 처음 먹어보는 것은 아주 조금씩 주어 거부감이 덜하게 했으며, 음식의 재료에 대한 이야기로 아이의 흥미를 끌어 맛을 보게 했다. 국도 밥을 국물에 살짝 담갔다 주



면서 거부감을 줄인 뒤, 조금씩 국물의 양을 늘려갔다.

어금니가 늦게 나와 이유식에 실패했다고 걱정하는 부모님께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아이에게 씹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식사방법임을 알려드렸다. 가족의 노력과 소통 속에서 아이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기뻐다.

“어머니, 아이돌봄제도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이렇게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척 만족스럽다고 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퇴근 후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았는데, 돌보미가 아이의 저녁 식사와 목욕을 도와주어서 부부간에 편히 식사도 할 수 있고, 아이와 놀아줄 여유도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둘째도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만남 때만 해도 둘째아이 애기에 싫다고 손사래를 치던 모습이 생생한데 그나마 여유가 생긴 듯하여 나 또한 기뻐다. 네 식구가 함께하는 ○○네 가정의 행복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하루에 두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님에게는 여유를 선물하고, 아이에게는 기본 생활습관, 언어, 정서, 놀이 면에서 좋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 또한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고, 행동이 교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돌보미로서 뿌듯함과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게 하는 첫 출발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크고 화려해 보이는 일은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드물다. 특별히 작아 보이는 일일수록 더욱 정성을 기울이다보면 그 속에 사랑이 깃들고 생명이 드러



나며 사람을 감동시키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하루는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요즘 일하는 거 맞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요. 전에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던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어떤 때는 낮에 집에 있기도 해서 그냥 전업주부 같아요. 엄마, 돌보미 선생님이란 직업을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맞는 말이다. 이 일을 하고부터 나의 삶은 전보다 많이 달라졌고, 일상이 즐겁고 행복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도 여러모로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양육문제일 것이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못 낳겠다는 가정이 있다면 아이돌보미 교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양육 걱정은 아이돌보미 교사에게 맡기고, 각 가정은 아이를 키우는 행복함을 느끼고 안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젊은 부모 세대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형제와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서 무한 책임을 갖게 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우연히 TV 광고에서도 접했던 말인데 매우 공감하게 된다. 한 아이의 성장은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맞벌이 부부가 역경과 고난을 딛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돌보미 교사들의 역할, 나아가서 나라와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아줌마? 선생님!

신재연

울산남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021년, 어느덧 내 나이 53세.

언제 그렇게 컸는지 모를 생때같은 자식은 내 품을 떠났고, 남편은 아침밥 먹여 회사 보내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부린 뒤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고, 반찬 몇 가지 만들며 집 안 곳곳을 들쭉시고 다니다 보면 어느새 저녁시간.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 저녁밥 먹이고, 딱히 챙겨보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대충 남편이 틀어놓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한 번씩 웃고, 시험기간이라 바쁜지 낮에 친구와 과제 중이라며 메시지를 보낸 뒤론 연락이 뚝 끊긴 딸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 한번 하고…. 이렇게 평온한, 그렇지만 딱히 내 일도 궁금할 것이 없는 심심한 하루하루가 내 일상의 전부였다. 뭐가 달라도 다를 줄 알았던 나는 그렇게 남들과 같이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봉사활동 단체에서 만난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다.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이고, 아이들은 귀엽잖아. 난 이미 애들을 잘 키워냈으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지원했다. 그러나 그때의 가벼운 선택

은 평범한 ‘아줌마’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다.

아이돌보미에 합격해서 처음 맡게 된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였다. 어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맞벌이로 인한 육아 부담 때문에 돌보미를 신청한 경우였다. 그 집에 방문한 첫날, 어머니가 내게 건넨 첫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었다.

‘뭐? 선생님?’

‘선생님.’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달콤한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그 단어에 내 가슴은 쿵닥쿵닥 뛰기 시작했다.

‘그래, 오늘부터 나는 이 아이의 선생님인 거야.’

그렇게 나는 하루아침에 평범한 아줌마에서 ‘선생님’이 되었다!

8살짜리 아이는 어찌나 활기차던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았다. “선생님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거 알아요?”, “선생님 이거 어때요?”... 가끔은 뭐라 대답하기 어려운 날카로운 질문도 해오는지라 마냥 어린애로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리한 아이였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쓰는 세대라 그런지 그 아이도 항상 유튜브에 푹 빠져 지냈다. 나는 아이에게 말 한마디라도 더 붙이고 싶어 옆에 붙어 앉아 뭘 그렇게 재밌게 보는지 슬쩍 보고는 집에 가서 열심히 유튜브 공부를 했다. 말랑이, 슬라임... 난생처음 보는 영상들을 열심히 찾아보고서는 다음 날 어김없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아이 옆으로 가서 말을 걸었다. “어? 선생님도 이거 아는데.”,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재밌죠?” 하고 반응을 보인다. 나는 한술 더 떠서 다른 영상을 검색해서 “선생님은 이제 제일 재밌더라.” 하며 영상을 보여주었다. 어느새 아이는 그 영상에 푹 빠져들었다. 너무 휴대폰에만 빠져 지내는 게 아닌가 싶어 “숙제 다 했어? 선생님이란 숙제 같이 할까?” 하고 물어보자 “오늘은 별거 없어요. 선생님 같 때까지만 볼게요!”

하며 “엄마한테는 씯!” 하고 손가락을 입에 대며 찡긋 웃는데 도저히 이겨먹지 못할 천진한 웃음에 마냥 넘어가버리고 말았다.

어머님이 돌아오고 나서 내가 갈 채비를 하자, 아이가 내 손에 손가락을 얹어왔다.

“선생님! 내일은 나랑 말랑이 거래해요.”

손을 펼쳐보니 사탕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썬는 저녁 공기가 괜히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집에서 저녁밥을 지으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다.

유튜브를 계기로 아이와 친해진 나는 점차 아이의 관심사를 밖으로 돌렸다. 아이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내 말을 잘 따라주었다. 어떤 하루는 같이 숙제를 하고, 어떤 하루는 놀이터에 나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지켜봤다.

차를 타고 학원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일도 일과의 한 부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학원에서는 저런 일이 있었다며 상기된 얼굴로 조잘조잘 떠들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어린이날에는 나름 고심해서 고른 양말을 선물로 건네주니 무척 좋아하며 그 양말만 신고 다니는 아이를 보니 뿌듯함을 느꼈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나는 누구 엄마보다 ‘선생님’으로 더 많이 불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덧 아이와 헤어지는 날이 오게 되었다. 어머님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더 이상 아이돌보미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를 학원에서 집으로 데려와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하고, 같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 어머니가 돌아오셨다.

“선생님 나 또 만나러 올 거죠?”

“그럼. 선생님은 ○○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게!”

아뿔싸! 별다를 것 없던 하루라 평소처럼 헤어지게 될 줄 알았는데 웬걸, 가방을 집어 들고 나서는 순간 아이가 소리를 내며 꺾꺾 울어대는 게 아닌가. 한참을 달래고 나니,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자기를 만나러 또 올 거냐고 재차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꼭 약속을 지키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그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매일 자신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달라며 신신당부를 한다.

배웅을 나온 어머니가 정말 감사했다고 인사를 전한다.

“어떡해요. 아쉬워서…. 아이가 항상 선생님 말씀을 했어요. 재밌고 똑똑한 선생님이라고. 다음에 밥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에 괜히 눈가가 붉어졌다. ‘먼 훗날에도 아이가 나를 재밌고 똑똑한 선생님이었다고 기억해줄까?’ 그 아이는 어떨지 몰라도 아마 내 기억 속에 그 아이는 착하고 똑똑하고, 나를 처음으로 선생님이라 불러준 아이로 영원히 기억될 것 같다.

요즘엔 막 두 돌이 지난 남자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제는 두 돌배기 아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장난감, 좋아하는 놀이가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며 언젠간 이 아이도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지낸다.

2021년 봄, 그때 아이돌보미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2023년의 봄,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여전히 아침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다가 저녁밥을 짓고, 특별한 일 없이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아니 조금은 지루한 전업주부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다. 사실 아침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다가 저녁밥을 짓는 일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사이에 조금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뿐이다.

나는 여전히 평범한 아줌마다. 그렇지만 오후 3시가 되면 나는 선생님이로

변신한다. 평범한 소시민인 척 살다가 위험이 닥쳐오면 사람들을 구해내고는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영화 속 히어로처럼, 나도 평범한 아줌마로 살다가 오후 3시만 되면 선생님이 되어 아이를 돌보고 오후 6시에 다시 평범한 아줌마로 돌아오니 내가 그 히어로와 다를 게 뭔가 하는 우스운 생각도 한다.

나에게 있어서 아이돌보미는 정해진 시간에 아이와 놀아주고 그에 알맞은 급료를 받는, 그런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대화하며 함께 웃고, 아이가 발전하는 만큼 나도 성장하는 그런 직업이다.

아이가 “선생님!” 하고 부르면 나는 자연스럽게 돌아본다. 어느새인가 ‘선생님’이 된 나에게 익숙해진 것 같다. 여전히 평온한, 그렇지만 심심하지만은 않은 일상, 내일이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두 돌 지난 왕자님

나의 아이돌보미 생활

양 정 임

제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오늘 아침도 나는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쥘다.

아이돌보미 8년차인 나는 2022년 4월부터 집에서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중산간 마을의 쌍둥이 형제를 돌보고 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면 심상한(제주어: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이곳 제주도에서는 정말로 머나먼 출근길이다.

‘간밤에 아프지는 않았을까? 울지 않고 즐겁게 지냈을까?’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이런 상념이 뇌리를 스친다.

중산간 마을에 도착해서 ‘딩동!’ 초인종을 누르니 곧바로 아기엄마의 반기는 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린다.

“선생님이다!”

아기엄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귀여운 쌍둥이 형제가 반갑게 문 앞까지 마중 나온다. 큰애가 팔을 벌려 안기고, 작은애는 다리를 꼭 껴안으며 격하게 환영해주는 이 순간, 내 마음속엔 행복이 가득 찬다.

“아이고 잘들 있었어? 우리 아가들!”

피로 얹힌 관계는 아니지만, 1년 가까이 봐온 터라 내 자녀, 손자처럼 귀엽고

사랑스럽다.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는 너무 멀어서 무척 부담스러웠다. 돌보미 생활 8년 동안 주로 20여 분 거리에 사는 아이들만 봐왔던 터라 1시간이나 걸리는 가정을 돌보는 것은 힘에 부치리라 생각했다. ‘오늘 하루만 도와주자.’는 생각에 방문했더니, 아뵘! 아기가빠가 4살배기 첫째와 생후 6개월 된 쌍둥이 이렇게 3명을 혼자서 돌보고 있는 게 아닌가!

사연을 들어보니, 아기엄마는 생계를 잇기 위해 장사를 나가고, 아기가빠가 육아휴직을 받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데, 남자가 애를 보면 얼마나 잘 보았겠는가?

아이들은 목덜미부터 울긋불긋한 모습이 따떠인지 아토피로 짓물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망고냉이(제주말로 피죄죄한 모습)’였다. 하루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평소 하던 대로 매일 정성껏 목욕을 시켜주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아기엄마가 밝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다.

“선생님이 와서 돌봐주시니 우리 아기들이 무척 깔끔하고 말쑥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돌보미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번 돌봐준 아이들은 커서 어린이집 입학할 때까지 계속 돌보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한 바 있다. 다짐도 다짐이지만 힘들어하는 부부와 허술한 육아 속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뵈면 외면하는 것도 못할 짓이었다. 이렇게 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장거리 아이돌봄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이 사는 집은 마을에서 떨어진 외진 곳이라 멀리 집들이 몇몇 보일 뿐 가로등도 없고, 주변이 온통 밭으로 둘러쳐져 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아이들 젖병을 씻으면서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악명 높은 제주도 들개가 핑을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는, 보기도 힘든 광경도 목격했다.

지난겨울에는 제주도에 눈이 무척 많이 내렸다. 그래서 소형 차량 운행이 전부 통제되어 나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퇴근길에는 가로등도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별판을 최대한 움츠린 자세로 세차게 쏟아지는 눈을 뚫고 버스정거장까지 가면 갑자기 추위와 공포가 밀려온다. 한참을 기다린 뒤, 저 멀리 불빛이 보이고 구세주처럼 나타난 버스에 올라타면 그제야 따뜻함과 안도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출근길이 즐거운 것은 분명 아이들이 보내오는 끝없는 애정 덕분이다. 출근해서 초인종을 누르면 문 앞까지 쫓르르 달려와서 안기고, 화장실이라도 가면 어디 멀리 가버리는가 싶어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질 않는다. 퇴근시간이 다가오면 아직 나갈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도 짐짓 눈치채고 쩔얼거린다. 본격적으로 몸에 외투를 걸치면 결국 얹드려서 얼굴을 푹 숙이고 대성통곡을 한다. 내일 다시 보리라 뻔히 알면서도 애들 울음에 마음이 저린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루는 너무 안타까워 안아주었더니 떨어지지 않겠다고 울음 반 눈물 반으로 달라붙어 결국 아기엄마 손을 빌려 겨우 떼어내고 나서야 퇴근을 했는데, 이런 일이 거의 다반사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생후 6개월이어서 누워서 겨우 웅얼이나 하던 녀석들이었다. 아이들 머리는 스펀지 같다고 한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그림책도 많이 읽어주었다. 내가 두 아들을 키울 때 가장 관심을 두었던 ‘책과 가까이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했다.

평소 나는 아이들에게 말도 자주 걸어주고 동요도 불러준다. 6개월에 처음 만난 아기들이 어느덧 밝고 건강하게 자라 내가 불러주는 노래에 몸을 기우뚱거리며 춤을 추거나 동물 울음소리와 특징까지 흉내 내는 재롱을 보여주니, 이 얼마나 귀엽고 대견하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는가!

세월이 흘러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면 할수록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아기들

이 마치 내 자식 내 손자 같아서 '잘 키워야지!' 하는 책임감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출발, 나아가서는 한 사람의 인격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아이들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진심으로 대하면 항상 진심으로 보답해주기에 나는 내가 돌보는 여러 아이들에게 항상 부모, 조부모에 버금가는 신뢰와 애정을 쏟으려고 노력한다. 오늘도 난 아이들과 시선을 맞추고 미소를 나누는 순간순간마다 삶에서 자주 느끼기 힘든 지고한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서두른다.



아이돌보미,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오 미 영

창원시진해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보미 활동을 한 지 어느덧 3년째다.

아이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나가고, 일밖에 모르는 남편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만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공허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챙길 일도 없고, 갠년기도 겹치니 마치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는데 결과가 허무함뿐이라는 게 슬펐다. 이제라도 가족들에게 몇몇이 선보일 보람 있는 내 일이 필요했다. 나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절실히 되고 싶었다. 누군가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고 싶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 추천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며칠 동안 방송통신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멘토 선생님에게 실습을 받는 등 여러 과정을 거친 뒤, 나는 비로소 아이돌보미가 되었다. 드디어 내 일이 생긴 것이다.

처음에는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게 쉽지 않았다. 나는 잔뜩 긴장한 채로 나에게 배정된 쌍둥이 집의 문을 두드렸다. 수면부족을 겪는 듯한 이용자님의 모습

은 초체하고 많이 힘들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과거에 연년생을 낳아서 키우던 힘든 시절이 떠올랐다. 연년생도 쌍둥이처럼 키우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 한 명은 젖을 물리고 한 명은 분유를 먹이며 힘들게 육아를 했는데, 도움이 절실했지만 그때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친정엄마는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허리디스크 때문에 아기를 안지도 씻기지도 못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왜냐하면 언제나 부르면 달려와서 도와줄 아이돌보미가 있으니까.

나는 그때의 내 처지를 미루어보면서 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용자는 첫째를 맡고 나는 둘째를 맡기로 했다.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육아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용자의 고단함을 묵묵히 듣고 공감해주기도 한다. 우리는 함께 아기들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간식도 먹였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마다 하루에 한 번씩 놀이터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 나는 오직 이용자가 원하는 육아방식대로 따라 맞추었다. 각각 한 명씩 포대기로 아이를 들쳐 업고 놀이터에 나가 그네도 타고, 산책도 했는데, 그 시간이 무척 즐거웠다. 놀이터에서 돌아오면 아기들을 목욕시켰다. 목욕통 속에 들어간 아기는 기분이 좋은지 방실방실 웃는다. 나는 아기를 보드득보드득 씻기면서 동요를 불러주기도 하고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넣어서 말을 하기도 했다.

“어머, 우리 아기가 물이 좋은지 손으로 침병침병 소리를 내네.”

그렇게 목욕이 끝나고 희고 매끄러운 피부를 보송하게 말리고 나면 아기들이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천사가 따로 없는 듯했다.

나는 아기들에게 동요를 메들리로 불러주는 편이다.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 몸에 익어서 이제는 자동으로 노래가 나온다. 너무 불러서 목에서 쉼 소리

가 나기도 했다. 나중에는 유튜브를 보며 율동도 익혔다. 노래와 율동을 하며 아기들의 반응을 살핀다. 처음에는 이용자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해주다가 이제는 이용자가 있어도 율동을 곁들여 노래를 부르곤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용자는 빙그레 웃음을 짓는다.

유튜브를 보면서 베이비 마사지도 스스로 익혔다. 활동일지 맨 뒷장에 순서를 기록을 해두고 첫날에는 간단하게 발 마사지를, 다음 날은 손과 팔, 그다음 날은 몸통.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아기에게 마사지를 해주니 이용자분도 좋아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반찬을 먹을까요? 제가 이유식이 서툴러서요.”

그러면 나는 엄마랑 함께 검색을 하면서 애들이 먹이에도 좋고, 엄마가 만들기도 쉬운 요리를 추천해주었다. 아기들이 이유식을 잘 먹는 모습을 볼 때면 마치 내 배가 부른 것 같고, 아기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간다.

하루 중 가장 즐거울 때는 돌봄활동을 하는 시간이다.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까? 시시때때로 고민도 하고 여러 돌보미 선생님께 조언도 구해본다. 한번은 교육 때 받은 물품으로 강아지를 만들어줬더니, 아이는 목줄

을 만들어서 마치 진짜 강아지인 양 끌고 다

니면서 산책을 시키며 놀았다고 한다.

일을 하면 할수록 경험도 쌓이고 조

금씩 더 전문가가 되어간다. 아직

도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울 것투



아이가 그린 그림. 오른쪽에 풍선을 들고 있는 사람이 돌보미 선생님이라고 한다.

성이지만 노력할 것이다.

바람이 있다면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놀아주는지 직접 한 번 보고 싶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좀 더 전문적이고 당당한 돌보미 선생님이로 거듭나고 싶다.

돌보미 활동의 장점은 다양한 가정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나이에 맞는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과 놀이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에는 한부모가족의 두 아이를 돌보고 있다. 아이들은 밝고 활발한 성격을 가졌으며, 만들기와 그림그리기에 솜씨가 좋았다.

“선생님 이렇게 명암을 넣으면 더 멋있어요.”

아이들의 조언을 따라 덧칠해보니 정말 확연히 다른 그림이 되었다. 아이돌보미를 하다보면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도 무척 유익하고 즐겁다.

“선생님 비밀인데요, 아빠는 우리를 안 좋아해요.”

시무룩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둘째를 보니 정말 안쓰럽고 마음이 저렸다.

“아니야. 아빠가 일이 바빠서 못 오실 뿐이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바쁜 일만 끝나면 너희들을 만나러 달려오실걸?”

이렇게 아이들을 위로해주며 진심을 담아 꼭 안아준다.

아이돌보미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나는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진 돌보미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이돌보미가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나는 아이돌보미를 통해 자칫 우울감에 빠지기 쉬웠던 갱년기를 극복하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간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즉 아이돌보미란 직업이 있음에 항상 감사하고 잘해나갈 것을 다짐해본다.

평생교육을 실현시키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수자

칠곡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여느 해보다 일찍 핀 벚꽃들이 눈처럼 꽃비를 휘날린다. 이에 발맞추어 개나리, 진달래 등 알록달록한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서로 경쟁하듯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아무런 욕심과 가식이 없는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이 꽃 속에 투영된다. 각자의 개성과 독특한 매력, 장점들이 꽃 못지않게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귀하고 예쁘지 않은 아이가 없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이 어리고 예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 건강한 씨앗을 만들어 자연의 순환을 이어가듯, 우리 아이들도 제 몫을 다하는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이 새록새록 생겨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사회,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데, 미력하나마 나도 이 귀한 일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어깨는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생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던 일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나는 다른 직업을 알아보던 중 아이돌봄사업을 알게 되었다. 전에 청소년 상담봉사자로 10년의 경력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 방문지도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로 일한 적이 있는 나는 아이돌보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이란 생각이 들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하게 되었다. 다행히 합격하였고, 운 좋게 바로 활동할 수가 있었다.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아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져서 더욱 돌보미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님과 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내 생각만큼 충족되지 않아서 조금 낙심하기도 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바가 너무 다양하고,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가 드러날 때마다 나는 돌보미로서 고민에 빠졌다.

‘단순한 보살핌만 제공할 것인가?’

‘아이의 내면의 욕구를 어떻게 부모에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시점에 센터에 보고하여 그 아이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아이와 부모님이 원하는 돌봄을 잘 제공하고 있는가?’

물론 이런 문제는 정해진 해답이 없으므로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이용자 아버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센터는 주말이라 연계가 되지 않고, 돌보미 선생님도 연락이 닿지 않아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 가정은 현재 말고 계신 돌보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내가 대신 하루 돌봄을 했던 곳이었다. 얼마나 급했으면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을까 싶어 불일을 뒤로하고 흔쾌히 돌봄을 수락했다.

아버님은 너무나 고마워하며 어쩔 줄 몰라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26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은 출장 중이고 나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인데, 8개월 된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찌어찌하여 먼 친척에게 맡기

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 아기가 집도 아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며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 싶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 지면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지금처럼 아이돌봄제도가 있었다면 낯설지 않은 곳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큰 시절이었다.

그 후 아버님과의 인연은 기존 돌보미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시게 되자 내게로 이어져 지금까지 햇수로 2년째 그 아이를 돌보고 있다.

아이는 돌도 되기 전에 엄마랑 헤어져서 그런지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했다. 화장실에서도 “선생님 어디 있어요?” 하고 계속 확인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나 심지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나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는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 아이였다. 그래서 나는 늘 말이나 행동을 조심했다. 더구나 아버님이랑 처음 면담을 했을 때 엄마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기에 특히, 그 부분은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하루는 《성냥팔이 소녀》 동화책을 읽어주고 나서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고 물었는데, 아이의 뜻밖의 대답에 가슴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 아이는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에 하나하나 불을 붙이면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나고 엄마를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른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마음속 깊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묻어두고 있었나 보다.

아이답지 않게 너무 덤덤히 말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나는 속울음을 삼켰다. 나를 믿고 의지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니 한편으론 고맙고 또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의 어깨를 토닥토닥하면서 안아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괜찮다면 선생님이 집에서는 엄마가 되어줄게.”

그 말에 아이는 너무나 환하게 웃으면서 천진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도 가족이 있어서 함께 생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네 편이고 항상 너의 곁에서 너를 돌봐줄 거야.”

그 말에 아이는 편안한 표정으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이에게 편안함과 안도감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밖에는 없었지만, 아이는 이제 엄마처럼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 마냥 애기 같았던 유치원생이 이제는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다. 등굣길에는 현관 앞에서 자기 운동화를 신은 뒤, 나갈 때 신기 좋도록 내 신발을 돌려 놓는다. 하굣길에는 내 손을 꼭 잡고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배려심이 깊은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로 자라나는 모습이 대견하다.

이제 아버님과 나는 공동양육자로서 함께 고민을 상담하며 아이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아이의 2차 성장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행여나 한부모가족이라고 사회나 아이들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늘 아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어느덧 나는 아이돌보미로서 2년 6개월을 지냈다. 처음에는 의욕에 넘쳐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도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부분을 해결하여 각 가정에서 원하는 아이의 양육방식에 따라 적합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지나친 의욕과 걱정, 선부른 판단보다는 시간을 두고 부딪히기면서 아이도 나도 부모님도 같이 성장해가는 것이 현명하고 바람직한 돌봄 영역인 것 같다.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란 말이 있

다. 가족, 친지들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맞벌이로 인해 양육공백이 커져만 가는 오늘날 마을 단위, 사회 단위, 국가 단위의 돌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안타깝게도 ‘가만둬도 사라지는 나라 1위’로 나라의 존재까지 위협받는 현실이 올지도 모른다.

아이돌봄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국가의 근간사업이며 나라의 생존 필수전략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뛰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매우 크고 고귀하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인간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나는 오늘도 노력한다. 늦은 나이지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평생교육사 국가자격증에도 도전하는 중이다.

‘배움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어른이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모두 훌륭한 것은 아니다. 돌봄아동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이용자 가정의 부모님에게도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사회적 지식, 생활의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으며, 센터의 끊임없는 재교육은 우리를 일상적 나태함에서 일깨워주는 소중한 스승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런 귀한 국가적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미력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보물을 만나러 가보자.

아이들의 비밀공간



날마다 좋은 날

조 영 숙

시흥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완연한 봄날이다. 추위에 움츠렸던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벚꽃과 생강나무 꽃이 수줍은 듯 피고 있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아이 손을 잡고 등원하는 길, 아이가 참새처럼 재잘거린다.

“선생님, 여기 나무 좀 보세요. 초록색 잎이 보여요.”

“저기 노란 꽃 이름은 뭐예요?”

아이는 매사에 궁금한 게 많은 7살 여자아이로 오빠 둘을 둔 애교 넘치는 공주님이다. 등·하원을 하며 하루에 두 번 만나는 사이지만 매번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안아주고 손하트를 날리며 사랑한다고 말한다. 사랑스러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진다.

불혹의 나이에 늦둥이를 낳고 15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늦은 나이에 육아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했지만, 친구들이 취업이나 자기 개발로 바쁘게 지내는 걸 보면 나만 도태되는 느낌도 들었다.

4년 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오랜 경단녀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맞벌이 등으로 바쁜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였다. 출산 장려정책 중 하나로 가구 소득에 따라 돌봄서비스 비용을 보

조해주는 정부지원사업이었다.

내가 만난 가정은 3남매를 둔 초등학교사 부부였다. 큰아이가 1학년, 둘째가 5살, 막내는 걸음마를 시작한 돌쟁이었다. 돌보미인 나는 이사로 인해 모든 것이 낯선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도록 노력했다. 첫째, 둘째는 몸으로 함께 놀거나 공부를 도왔고 어린 막내는 많이 안아주며 교감을 쌓았다. 돌쟁이를 안으며 내 아이를 키우던 시절로 돌아간 듯 엄마 미소가 절로 나왔다.

큰아이는 올해 5학년이 되었고, 5살이던 둘째는 2학년이 되어 더는 돌봄 혜택을 받지 않는다. 현재는 막내만 돌보고 있다. 아장아장 걷던 아가는 날로 체력이 좋아져 펄펄 날지만 뒤쫓는 나는 진땀이 난다. 넘치는 에너지를 실컷 분출하도록 놀이터, 보드장, 산책 등 야외놀이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나 또한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활동적인 편이라 아이와 눈높이가 맞으니 안성맞춤 직업인 셈이다. 요즘 아이답게 유튜브에 빠진 막내의 손을 잡고 짹짹 동네 도서관에 가서 그림책을 읽어줬더니 책을 좋아하고 한글도 일찍 깨쳤다. 퍼즐 맞추기, 색종이 접기, 그림그리기를 하며 함께한 세월만큼 아이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다.

돌보미 활동을 하던 첫해에 가장 기억에 남는 큰 사고가 있었다. 키보드 위에 멀쩡히 서 있던 둘째가 한순간 시멘트 바닥으로 고꾸라져 경기(驚氣)를 했다. 사전징후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황스러움이 컸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진정되지 않는 아이를 지켜보는 내내 식은땀이 나고 애간장이 녹았다. 3시간 같은 3분이 흐른 후, 구급대원의 신속한 도움으로 아이는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때라 이대로 돌보미 일을 끝내야 하는가 싶어 심장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했다. 부디 아이가 무사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했다. 한참이 지난 후 괜찮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안심할 수 있었다.

4년 동안 돌봄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 5살이던 둘째의 등원 거부가 심각했다. 안 가겠다고 큰 소리로 울었고 길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거나 되돌아오려고 떼를 썼다. 힘들게 보내놓으면 울면서 뛰쳐나오기도 했다. 어린이집이 아이와 맞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해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고서야 깨달았으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작년에는 6살이던 막내의 급작스러운 경기(驚氣)로 한밤중에 긴급하게 호출되기도 했다. 몸이 축 처진 아이를 안고 겁에 질려 응급실로 가는 부모를 대신해 초등학생 오빠 둘을 진정시키고 함께 누워 잠을 재웠다.

아이아빠가 부친상을 당해 경황이 없을 때에는 아이들 걱정 없이 장례를 치르도록 힘을 보탰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이용자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노고를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느라 매시간 동동거리며 바쁘게 사는 아이엄마를 보면 안쓰러움에 친절엄마 같은 든든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그녀의 고단한 모습에서 맞벌이하며 친절엄마에게 아이를 맡겼던 과거의 나와 내 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딸 셋을 키우며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한나절 거리의 강원도 친절에 맡겼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이라 한 달에 한 번 하룻밤의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오면 아이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엄마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며 아이 모습을 그려볼 수밖에 없었다.

“요즘 실룩실룩 엉덩이춤을 어찌나 잘 추는지 마을회관 할머니들이 귀엽다고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

“밥을 흘리면서도 혼자 먹겠다고 난리야. 뭐든지 잘 먹어서 예쁘다.”

엄마를 못 알아보고 할머니 품에 안겨 천진난만하게 손을 흔들던 딸아이 모

습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한창 몸을 비비고 애착을 쌓아야 할 시기에 떨어져 지냈으니 지금도 가슴 한 편이 저린다. 아이돌봄서비스가 그때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에만 득이 되는 게 아니다. 돌보미 활동 특성 상 등·하원 시간을 제외한 낮에는 시간 여유가 있다. 그 덕분에 미뤄두었던 배움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었다. 시흥보건소와 작은자리복지관이 공동주관한 놀이활동가 교육을 이수하여 배운 놀이를 돌봄에 적용하였고, 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하여 논술지도사, 독서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다. 나의 배움이 돌봄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에 오늘도 멈추지 않고 달린다.

김태형 심리학자는 한 사람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다운 사람, 건강한 사람과의 애착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모가 아니라도 어린이집 교사나 이웃집 아주머니 등 유익한 사람을 통해 공감능력, 정의감 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돌보미로서의 내 존재가 그랬으면 좋겠다.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꼬마 산책자와 동네 한 바퀴

허 현 자

고양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건 무슨 나무일까?”

걸음을 옮기다가 싶더니 아이는 또다시 멈춘다. 나는 재촉할 필요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니 뒤따라 선다. 바로 몇 발자국 전에는 산수유나무 앞이었다.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쪼글쪼글해진 빨간 열매를 손바닥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온 뒤였다.

“모감주나무야.”

올려다보니 꼭대기 끝에 세모꼴 열매가 몇 개 달려 있다.

“모감주나무? 이 나무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꼬마 산책자의 ‘의문형 명령’을 받은 나는 까치발을 하고 가지 끝에 붙어 있던 씨앗주머니를 하나 따서 바친다. 하나 더 딸까 하다가 나무 밑을 보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열매가 보였다. 나도 하나 주워 들었다. 아이가 조그마한 손끝으로 조심스레 누르니 껍질이 3쪽으로 갈라진다. 1개의 껍질 안쪽에는 초콜릿처럼 새까만 씨앗이 2개씩 달려 있다. 하나의 씨앗주머니에 모두 6개의 씨앗이 들어 있는 셈이다. 아이의 눈도 덩달아 반짝인다. 아이의 열려 있는 우주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내 지식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보다 나을 것이 없다.

“와, 귀엽다.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이거 가방에 넣어주세요.”

하원하며 들고 나온 어린이집 가방 안에는 이미 솔방울, 꽃사과나무, 작살나무 열매, 아까시나무 꼬투리 등이 들어 있다. 오늘의 전리품도 꽤 쓸쓸하다.

4살배기 꼬마와 나는 매일 걷는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여러 조각이나 시설물, 조경수 등을 둘러보는 것이 일과다. 연못을 지나고 공원과 징검다리가 있는 개울가 산책로에서 오리 가족의 수를 세어보고, 지나가는 강아지들을 살펴보고, 놀이터를 유람한 다음, 공동시설에 있는 놀이방에서 논다. 뽀뽀 언 손을 왼손 오른손 바꿔서 잡아달라는 것 말고는 아무 불평도 없다. 우리의 마지막 코스는 도서관에 가서 공룡이나 상어 관련 책을 보는 것이다. 물론 집으로 오는 길에 숨바꼭질도 하고, 자동차 이름도 알아보고, 정지 턱에서 강충 뛰어내리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제껏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두 아이를 낳고 키우던 시절이라고 말한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 똑같은 행복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로서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황금기였다. 매일 매 순간 달라지는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행운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언제인가 싫게 금방 커버렸다. 어느새 그들은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흔히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하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남의 애가 어디 있겠는가. 나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행여 그 아이가 방긋 웃음이라도 지어주면 마음이 봉긋봉긋 부풀고 마냥 행복해진다.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우는 아이들도 어여쁘기는 마찬가지다. 말하고 싶은데 빨리 말이 안 나오고, 무섭고 불안한데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 얼마나 속상하고

슬플까. 안타까운 마음에 달래주고, 도와주고 싶을 뿐이다. 손자라도 가까이 살면 돌봐줄 텐데, 정작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나는 직장생활에 매여 있었고, 지금은 잘해주고 싶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그 아쉬움 ‘덕분’이었을까. 수십 년을 지나 다시 아이들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코로나 시국으로 퇴직한 후 새롭게 아이 돌보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짬짬이 예전에 했던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도 그것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은 체력과 ‘사랑 에너지’를 요구한다. 더 늦으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저런 체면과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으니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훨씬 더 마음이 즐겁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해도 위선이 없으며, 두렵거나 무서우면 울고, 소리 지르고, 좋아하면 그저 달려가 품에 안길 뿐이다. 불 화산을 뿜다가도 금방 해헤거리고 뒤끝 없이 잊어버린다. 어른들은 과거 이야기에 빠져 있지만, 아이들은 현재를 탐닉하고 미래에 산다. 주위의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날이 ‘오늘 처음’이다.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은, 아이와 함께 걷는 길은 온통 기대에 부풀다. 누가, 무엇이 그 벅찬 충만함, 그리고 행복함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아마도 나만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슬며시 흘러나오는 모양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환해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활기가 넘친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자랑질’을 한다.

“그럼요, 매일 천사들의 웃음과 사랑을 갈구하는 눈빛, 맑은 영혼을 만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내 작은 스승은 몇 걸음 옮기다 말고 다시 쪼그려 앉는다.

“으응, 이건 강아지풀이네.”

나는 아이의 손바닥 위에 깨알 같은 희망의 씨앗을 또 올린다.

저는 아이돌보미입니다

황 점 숙

전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매일 같은 시각, 유치원 하원 차량을 기다리는 곳에는 몇 명의 대기자가 늘 함께한다. 누구의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로 알고 인사를 하며 안부를 챙긴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친할머니세요?”

“저는 아이돌보미입니다.”

“어머, 아이들이 잘 따라서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거주 동 주민센터에 가서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돼요.”

아이돌보미를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다. 놀이터, 엘리베이터, 하원 대기장소 등 어디서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의 활동모습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보여 지니 소신껏 일하면서 자신 있게 신분을 밝힌다.

하원 차량에서 내린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연관찰 시간이다. 곤충을 발견하면 환호성을 지르고, 꽃을 보면 다가가 어루만진다. 민들레 씨를 꺾어 ‘후’ 하고 부는 일은 두 아이에게 흥미진진한 놀이다.

오늘도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는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아이는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찾는다. 가끔은 비타민, 젤리, 사탕, 과자 등이 나온다. 동생과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다면서 나눠준다. 올해 7세가 된 아이다.

아이를 만난 것은 4년 전, 24개월 때였다. 이 가정은 동생이 태어나면서 아이돌보미를 신청했다. 연계가정에서 아이돌보미 면접을 위해 방문했더니 이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활동할 계획인지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용자의 양육방식을 따라 요구한 내용에 맞게 활동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이 눈높이에 맞게 활동합니다.”

그 당시 보조의자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던 아이가 어느덧 유치원 제일 높은 형님반이 되어 내년이면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가져온 한글공부 책을 펴서 글자를 따라 쓰면서 어려운지 지루해했다.

“오늘도 엄마가 주말 일기를 안 써줘서 선생님이 내일 꼭 써 오라고 했어. 벌써 몇 번째라며.”

“그래서 속상했겠네. 미안해. 엄마가 깜빡해서.”

초등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는지, 작년부터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주말에 한 일을 그림일기로 그리는 수업이 있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그림을 보여주면, 엄마가 글자를 모르는 아이를 위해 한 줄 문장을 써주고, 아이가 그림일기 밑에 그 글자를 따라 쓰는 일이다. 글자를 아는 친구들은 스스로 글씨를 써 온다는 아이의 말에 엄마는 초초함을 느끼는 듯했다.

한글 숙제를 지루해하던 아이는 한글이 쉽게 늘지 않았다. 그러자 엄마는 태블릿PC에서 한글공부 프로그램을 켜서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기기 작동에 능숙했고 제법 흥미를 가졌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아이는 화면에 나오는 한글 따라 쓰거나 따라 읽기는 대충하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휴식용 게임에 집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한글 학습지 선생님을 불러야 하려나?”

아이엄마의 혼잣말에 내가 불쑥 나섰다.

“우리가 함께 가르쳐보면 어떨까요?”

한글은 부모님이나 돌보미 선생님이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돌보미 일을 하기 전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글문해교육’ 강사로 활동했는데, 벌써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아이돌보미의 임무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므로 부모의 허락 없이는 아이를 지도하겠다는 말은 꺼내지 않는데, 지금은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았다. 게다가 1층에 사는 가정이라 숨바꼭질, 달리기 등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몸으로 하는 놀이들을 함께하다 보니 서로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학습도 가능해 보였다.

우선 동물놀이, 역할놀이, 같은 그림 찾기, 동화책 읽기 등으로 흥미를 유발한 뒤, 책꽂이에 꽂혀 있던 한글공부 학습지를 꺼냈다. 아이는 아무 거부감 없이 하루에 20분간 한글공부를 했다. 우선 받침 없는 단어를 4개 정도 공부하고 ‘생각그물’로 그날 공부한 단어를 재확인했다. 처음에 해를 그리고 나서 햇살에 다시 원을 이어 그려서 그곳에 단어를 적게 했다. 아이가 원 안의 단어를 잘 읽으면 좋아하는 색깔을 칠하게 하고, 반대로 잘 읽지 못하면 반만 색칠을 한 뒤, 나중에 다시 기억해내어 읽으면 다른 색으로 원을 완성하게 했다. 이튿날은 사과, 포도, 기차 등을 그리게 하고 배운 것을 확인하니 아이가 제법 흥미를 보였다. 5일 정도 지나니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자고 청했다.

“선생님, 한글을 재미있게 가르치시네요.”

아이엄마도 지도방법이 마음에 드는지 바로 《한글공부 12주》 교재를 구입해 주었다. ‘가 가 거 겨…’부터 시작된 기초공부는 ‘ㄴ’쯤 진도가 나가니까 아이 혼자서 읽었다. 마치 구구단을 외듯이 ‘라’만 알려주면 ‘라, 띠,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를 읽는 것이다.

“선생님 내가 언제 글자를 알까요?”

“동생이 유치원에 갈 때쯤인 한 달 뒤에는 글자를 알 거야.”

그때쯤에는 반침 없는 글자는 모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답했는데, 아이는 더 빠른 성과를 보였다. 신기한 것은 시계를 볼 줄 아는 아이가 그 시각만 되면 공부하자며 책을 들고 온다. 엄마는 아이가 길을 가다가 간판을 읽었다며 자랑한다.



“선생님 이제 우리 집에 문맹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5살이 된 딸을 가리키는 말이다. 생후 3개월 분유를 먹일 때 만났던 아이는 이젠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며 집 안에 꽃이 되는 폴폴한 아이이니 한글을 깨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작년 어느 날, 아침 일찍 이용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작은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돌보미 선생님에게 가자고 떼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아이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다.

“○○아,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기다릴 테니, 어린이집 갔다 오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와.”

그 말에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다. 그날 아이가 탄 노란 차량이 도착하자 손을 흔들어 반겨주었더니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에게 덥석 안겨 선생님이 약속을 지켰다며 좋아했다.

오빠를 따라 공룡 놀이감, 팽이돌리기를 하면서 자랐는데 이제는 소꿉놀이를 하자며 손을 잡아 끈다. 저녁식사 때에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하면서 스스



로 밥을 먹으려는 모습이 대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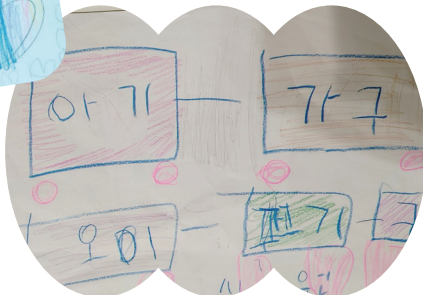
이 가정에서 활동했던 4년 동안 퇴근 전에는 반드시 책을 2권 이상씩 읽어 주었다. 책을 읽을 때면 아이는 자기가 책장을 넘기겠다고 내 무릎에 앉아 재미있게 듣는다. 특히 《똑똑한 마벨라》 동화책을 좋아해서 자주 읽어달라고 들고 온다. 라폰젤처럼 긴 머리가 좋다고 하던 아이는 최근에 단발머리로 잘라서 더 귀여움을 뽐낸다. 퇴근시간도 내게는 행복한 시간이다. 아이는 내 뒤를 졸졸 쫓아오며 말한다.

“선생님, 집에 가서 뭐 해? 나도 따라가고 싶다!”

“선생님 집에는 장난감도 없고 동화책도 없어서 심심하니까, 내일 와서 신나게 놀아줄게.”

이렇게 말하고 나면 어느새 두 아이가 현관 앞에 서서 입을 내밀며 서로 뽀뽀를 하겠다고 기다린다. 신발을 신고 난 후 허리를 굽혀 볼을 내밀면 내 두 볼이 축축이 젖는다. 다시 한 번 하이파이브를 하고 돌아나오면 아이들은 윙크와 손하트를 마구 날리며 나를 배웅한다.

보통 직장이면 정년퇴직을 할 나이인데 일할 곳이 있어서 행복하다. 아이들의 환영 속에서 함께 장난감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하면서 함께 웃고 즐긴다. 꼭 이겨야 만족해하는 아이들의 승부욕을 다독이기 위해 게임에서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하는 것도 나의 몫이다. 나는 미래 나라의 기둥들을 돌보며 동심에 젖어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다.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의 양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송 지 연

대덕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보육교사에서 사회복지사로의 전향을 꿈꾸며 입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육을 위해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간다니! 아이들에게 최고의 양육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아이들에게 최고의 양육 환경이 있다면 그 공간은 단연 ‘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각종 연구와 논문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고 수많은 양육기관들이 집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를 모방하지 않는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은 즐겁게 놀이하고 쉬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나에게는 그저 집과 같은 분위기를 흉내 내는 수준이 아닌, 실제 양육이 필요한 가정에 선생님이 직접 들어가서 도움을 제공한다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참으로 아이 중심 시스템이라는 감동을 준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덕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에 입사하게 되었고 불안과 걱정, 기대감 속에 아이돌봄사업을 마주

하게 되었다. 처음 사회복지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연 선생님, 선생님은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실 거예요.”

센터장님의 말씀이었다. 입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양육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선생님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나의 기대와는 다른 업무였기 때문에 사실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중간에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회계라는 것이 결국 어떤 업무가 되었든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 복지지원사업을 이용자들에게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으며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을 이해할 수도 있었기에 적절한 때 도움을 주는 것도 가능했던 것 같다.

회계를 담당한다고 해서 돌보미 선생님, 이용자와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틈틈이 전화를 받으며 이용자분들의 고충을 들어볼 기회도 있었고, 돌보미 선생님들의 푸념 섞인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속상해하거나 기뻐하고 분노하다 보면 늘 현장에 함께 있는 느낌이 들었다.

신규 돌보미 선생님께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듣고 책을 읽어주려 해도 듣지도 않고…. 정말 속상해요.”

이미 수많은 선생님에게 들어왔던 말이다. 그동안 그 말을 얼마나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싶어 선생님이 걱정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 결국 아이가 우선되어야 하는 돌보미 선생님이니 이 상황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또 이용자 어머니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이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놀아주지 않아서 불만이에요!”

이것 또한 많은 이용자들에게 들은 민원 중 하나다. 사실 아이들과 놀아준다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신뢰를 쌓고 라포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유롭게 세상을 탐색하고 경험하며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용자분들에게 이런 점을 설명해봤자 수용될 리 없었다. 뭔가 다른 방도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아마 신규 돌보미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르는 가정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아이와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낯선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성향에 따라서는 엄청난 공포와 스트레스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지금까지 3번의 신규 돌보미 선생님들을 모집했는데 모두 처음 배정받는 가정에 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셨다.

물론 아이에게도 당연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상당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은 성인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래서 돌보미 선생님과 아이들이 뭔가 특별한 활동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회계상 여유 있는 금액이 있었다. 선생님들 양성교육비로 받아 환급 후 남았던 행정 부대경비, 이것을 다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에 쓴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지출도 없지 않을까? 다행히 지침상에도 이 행정 부대경비를 선생님들을 위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얻고 ‘활동키트’라는 것을 준비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특성상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발달 수준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선생님과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했다. 다년간의 보육 경

힘을 통해 떠올린 것은 바로 종이접기였다. 종이접기는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눈과 손의 협응력, 손가락의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다 고차원적인 종이접기를 통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요즘은 종이접기도 다양한 컬러감에 활동지까지 나와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꼭 종이접기를 하지 않더라도 더 어린 영아들은 책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스케치북형 종이접기를 선택했다.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컬러풀한 색종이에 친절하게도 종이접기 방식이 잘 나와 있어 선생님과 아이들이 처음 함께하는 활동으로 무리가 없어 보였다.

매일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의 사정을 고려해 택배로 책을 보내드렸고 아이들과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 또 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안내했다. 혹시나 참여가 저조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활동사진을 센터로 보내주면 연말에 베스트포토 시상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너무 어려운 활동이었을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 활동인가?

하지만 걱정도 잠시! 2주차 접어드는 시점부터 다양한 사진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왔다.

“아이들이 종이접기 스케치북을 너무 좋아해요.”

“토끼를 좋아하는데 직접 토끼를 만들어보니 더 관심을 가지고, 토끼에 관한 책도 보게 되었어요.”

“함께 개구리를 만들어 시합을 했는데 큰 아이들도 무척 좋아해요.”

다행히 처음 준비한 활동키트는 성공적이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한몫했고 아이들의 높은 호기심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 보내주신 사진 속 아이들이 모두 밝게 웃으며 진심으로 활동을 즐기고 있는 듯하여 가슴을 억누르던 걱정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번 활동키트를 통해 신규 돌보미 선생님들도 가정에 방문하여 적응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기존 돌보미 선생님들도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 소진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도 하고 돌봄사업에 몸담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 이벤트는 나에게도 큰 의미가 되었고 보람도 있었다.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선생님과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라는 역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이용자 가정, 돌보미 선생님과 소통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또 그중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시스템은 결국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는 게 행복한 결말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이용자분들과 선생님들의 푸념 섞인 전화를 기다려본다.



나 또한 돌봄의 등불이 되고 싶다

이숙자

광산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전화벨이 울렸다. 돌보미 선생님의 다급한 전화였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교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남자아이 셋인데, 큰아이는 방바닥에 오줌을 싸고, 둘째는 냉장고 문을 열어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고, 셋째는 붕붕차 타고 여기저기 휘젓고 있어요.”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나는 돌보미 선생님을 안정시키고 모니터링 선생님과 바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했다.

딩동! 딩동!

현관문이 열리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통화할 때 선생님이 너무 당황한 목소리여서 걱정스러웠다. 아이들이 무척이나 활동적이다 보니 창문과 현관문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나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선생님 얼굴에는 ‘나 너

무 힘들어요.’ 하는 표정이 드러나 있었고, 이마에 땀방울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나는 말을 잊지 못하는 선생님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말고 함께 극복하자고 했다.

푸우~! 선생님은 곧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셨다. 이 가정은 돌보미 선생님 한 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 우리 둘은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에 합류했다. 셋이서 각자 아이 한 명씩 맡아 돌봄활동을 진행하다가 우연히 돌보미 선생님을 보게 되었다. 선생님도 조금은 안정을 찾은 모습이셨다. 다행이었다.

아이들 아버님이 퇴근해서 돌아오자 지친 돌보미 선생님은 먼저 퇴근시키고 아버님과 상담을 시작했다. 나는 전에 전문 상담가로 활동한 터라 오랜만에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 있게 상담을 진행했다. 아버님과 이런저런 돌봄활동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아버님께 나의 이력을 말씀드리고 나와 상담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보자고 제안했다. 아버님은 도와주어 감사하다며 흔쾌히 수락하셨다.

내일부터 돌보미 선생님 교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내가 생각했던 선생님이 담당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드렸다.

“선생님의 돌봄 손길이 필요해요. 우리 함께 세 아이를 살려봐요!”

기존 가정의 돌봄서비스는 다른 선생님에게 넘기고 이 가정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선생님은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전화로 부탁하시겠어요?”라며 긍정적인 답을 주셨다. 나는 나와 함께 아버님 상담도 하며 돌봄활동을 진행해보자고 간곡히 부탁했다. 틀림없이 아이들이 좋아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출근해서 나는 바로 교체작업에 들어갔다. 다행히 일이 술술 잘 풀렸다. 나는 돌보미 선생님과 그날그날 돌봄 전체 상황을 듣고 아버님이 아동 인제시 아이들을 맞이하는 방법부터 상담을 시작했다.

아버님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하시는데 어찌 힘들지 않겠는가?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어찌 쉬고 싶지 않겠는가? 아버님은 많은 어려움과 눈물을 가슴에 묻어둔 채 지내셨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책임감 때문에 피곤함도 잊고 세 아이와 씨름하다 어느새 먼저 잠이 드는 날도 있었다고 한다.

차츰차츰 아이들의 막혀 있던 귀가 뚫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버님과 선생님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도 온순하게 변했다. 돌보미 선생님의 의지와 노력은 아주 열정적이었다. 집에 갈 때마다 아이들의 관심사와 흥밋거리를 찾아 함께 놀아주셨다. 예를 들면 간단한 미술 체험을 통해 색다른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아이들은 무척 좋아하며 잘 따라주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관리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기뻐하며 인사하자 우리도 함께 기뻐다.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

아버님은 잠시 떨어져 지내던 아이들 어머니가 주중에 아이들을 돌보기로 합의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은 주말에만 돌보미 선생님이 방문하고 있다. 흠어졌던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된 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돌보미 선생님이 강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한없이 고마웠다. 이번에 돌보미 선생님과 나는 어려운 가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함께 의논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려는 확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졌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돌보미 선생님 같은 유형의 사람은 일에 보람을 느끼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한다. 또 이런 사람은 본인의 자아실현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채운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전담 인력 간 또는 전담 인력과 돌보미 선생님 간의 호흡이 잘 맞아야 일이 잘 진행된다. 그

렇지 않으면 서로 피곤하고 힘들다.

돌보미 선생님들과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속성을 지닌 분들을 만나게 된다. 직업의식이 투철하고 즐겁게 일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 선생님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인생의 경륜과 인성을 갖춘 분들이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책임지고 잘해내신다.

어느 조직이든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돌보미 선생님과 전담 인력 간에 소통이 원만하면 언제나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 힘든 가정은 함께 방문해서 사안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동학대나 방임 등 상담이 필요한 가정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 원만한 가정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돌봄) 정책은 시설 보육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의 출퇴근 시간, 초과근무 시간, 보육시설 휴무로 돌봄공백이 발생하면 자녀양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현실에서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의 틈새를 보완하고 다양한 상황별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정서 및 가정환경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빛을 밝혀주고 있는가? 앞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인생경험이 풍부한 중년여성인 돌보미 선생님의 손길이 닿을 때 미래의 꿈나무들은 쑥쑥 잘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돌봄의 등불이 되고 싶다.

내 삶의 멘토가 되어주신 두 분의 아이돌보미 선생님

윤은미

강동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와, 신기해요~!”

신규 돌보미 선생님 14분이 일제히 의자에서 일어나 직접 만든 색종이 프로펠러를 높이 던졌다. 그리고 색종이 프로펠러가 뱅글뱅글 돌아가며 떨어지는 모습을 보자 신기해하면서 탄성을 질렀다.

오늘은 2023년 제1회 신규 돌보미 선생님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다. 멘토 전○○ 돌보미 선생님은 평소 아이들과 놀이하는 사진과 영상을 슬라이드로 친절하게 보여주시면서 클레이, 색종이로 놀잇감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나는 평소에 아이돌보미를 하는 많은 선생님들을 존경하지만, 오늘 멘토를 해주시는 전○○, 송○○ 선생님 두 분은 더욱 특별하다. 단순히 경력보다 두 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하고 존경하면서 나는 내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작년에 나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점점 지쳐갔고 나의 역량이 부족하니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했었다. 하지만 송○○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힘을 얻었고 나의 멘토를 발견했음에 감사하고 있다.

2022년 11월, 그날도 전화벨이 많이 울린 하루였다.

“팀장님, 상일동 〇〇〇 이용자님이 선생님을 교체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교체 요청했다가 선생님이 노력하시니까 계속 연계 요청한 가정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교체해달라고 하시네요. 주말 선생님과 너무 다르다고 하면서요.”

상일동 〇〇〇 이용자 가정은 30개월 쌍둥이 남매의 하원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4월에도 교체 요청을 했었다. 아이들이 말이 늦고 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상호작용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교체 요청을 했었다. 코로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서 입 모양을 보지 못해 요즘 아이들이 말이 늦는다고도 하지만, 엄마 아빠가 바빠서 아이들과 대화 및 상호작용이 부족해서 말이 늦거나 혹은 자폐의 경계가 아닐까 추측되는 아이들의 소식들을 접하면 마음이 참 안타깝다. 하지만 담당 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놀이도 해주고, 책도 많이 읽어주도록 안내하여 매달 연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가정이었다.

“알겠어요. 제가 전화해볼게요.”

“그래, 역시 한 가정에 두 분의 선생님이 가시면 이런 상황이 오지!”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〇〇〇 이용자에게 전화를 했다. 일단 민원이 커지지 않게 수습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용자와 대화를 이어갔다.

“그렇죠, 네…. 맞아요…” 하면서 이용자의 얘기를 예사롭게 듣다가 수화기 건넌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들여다보자는 생각이 들자 순간 정신이 번뜩드는 느낌이었다.

“주말에 오시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순간 아이들이 주말에 선생님을 만나서 신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졌

다. 어떤 선생님인지 확인해보니 역시 경험이 많은 분이였다. 그런데 경험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았다. 뭔가 많이 다르다고 하신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았다.

일단 주말에 가시는 송○○ 선생님을 센터로 오시게 해서 가정상황과 선생님의 돌봄활동 부분을 자세히 들었다. 송 선생님이 현재 아이들이 5명인 가정과 한부모가족 아이들을 성실하게 돌보시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직업의식과 사명감 그리고 자발적으로 노력해오신 내공이 나를 감동시켰고,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진정한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은 큰 소리로 해야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귓속말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 이 부분은 누가 가르쳐줬다기보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터득된 선생님의 내공 깊은 노하우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와의 소통이 어려운 선생님들은 가끔 이렇게 호소한다.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엄마도 알아요.”

“아이가 다 그렇지 뭐.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번 달까지만 어떻게 해볼 테니, 다른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송 선생님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아이돌봄사업을 담당하면서 이용자들의 양육공백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돌보미 선생님들의 돌봄활동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는 것이 나의 목표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해왔다.

나는 다음 날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어머님 덕분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하며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민원 대상인 선생님을 위해 멘토링을 계획했다.

멘티가 된 선생님은 본인이 신규도 아닌지라 자존심이 약간 상하신 듯하여

조심스럽게 설득했다. 송 선생님과 어렵게 2회 일정을 잡아서 멘티 선생님의 활동일지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서 돌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송 선생님의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나는 송 선생님의 노하우를 접하고 다시 한 번 낯을 잃을 만큼 폭 빠졌다.

“아이와 눈맞춤을 하고 아이에게 엉덩이를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가르치는 말보다 귓속말로 할 때 아이들이 더 집중해요.”

“아이들은 스피지와 같아서 상황에 따라 금방 잊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무한반복을 좋아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데, 아동의 단계에 맞춰 약간의 힌트를 주면 이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잘 때는 가정에 있는 육아서적 등 책을 읽는 걸 추천해요.”

그동안 몸에 배어 있어 자연스럽게 실천하던 선생님의 주옥같은 노하우를 들으며 나는 황홀하기까지 했다. 멘티 선생님도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달리 마칠 때에는 배울 점이 많았고, 본인도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또 한 번 나를 감동시켰다.

그 뒤 송 선생님은 정식 멘토 선생님이 되셨고, 오늘은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신규 돌보미 선생님들을 교육하셨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이라 떨려요.”라고 하셨지만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차분하게 진행하셨다. 그리고 신규 돌보미 선생님들도 선배 돌보미 선생님의 노하우를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고 했다.

강동구에는 현재 전○○ 선생님과 송○○ 선생님 두 분이 멘토로 활동한다. 두 분의 귀중한 노하우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파되어 우는 아이, 낯가림을 하는 아이, 까다로운 아이를 돌보러 가면서도 “오늘도 아이랑 놀러가요!” 하면서 즐겁고 당당하게 출근하는 선생님이 많아질 그날을 그려본다. 두 분은 강동구 돌보미 선생님들의 멘토이자 내 삶의 멘토가 되었다.



2023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김금옥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7 합정동 웰빙센터
전화 02-3140-7900
홈페이지 www.kihf.or.kr
기획·편집 돌봄지원부(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